

연구보고서 2005-27

차상위·빈곤층 패널조사연구

백화종 이연희 도세록 여유진
김계연 김문길 김연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 노동시장유연화, 국내자본의 해외이탈 등으로 양적,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빈곤 및 공공부조 정책의 수립과 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장기간에 걸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빈곤층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빈곤의 성격이 단순빈곤에서 근로빈곤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빈곤의 지속기간도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빈곤층 및 차상위층 관련 횡단면조사 또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패널자료로는 현재 역동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를 심층 분석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내용이 개괄적이고 조사주기별로 표본이 변경되는 기존의 조사방식으로는 빈곤의 실태와 추이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거나, 빈곤 탈출과 진입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주기적 횡단면조사 자료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노동패널 등의 패널조사는 특정계층이나 지역으로 조사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조사내용도 각 패널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빈곤문제 연구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인적자본형성정도, 가족구조의 변화, 소득 및 지출 행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실태 및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빈곤집단의 특성 및 욕구범주별 정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조사 결과의 누적을 통해 중장기 빈곤정책수립 및 심층적인 빈곤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차상위·빈곤 패널조사』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상위·빈곤패널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로 패널 구축을 위한 판별조

사를 통해 패널 표본을 확정하고자 했으며, 또한 외국의 패널구축 사례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빈곤패널 구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백화종 사회보험연구팀장의 책임하에 이연희 책임연구원, 도세록 책임연구원, 여유진 책임연구원, 김계연, 김문길, 김연정 연구원의 공동작업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본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김미곤 부연구위원과 이태진 책임연구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빈곤 패널 구축에 대한 기초 작업을 한 본 연구가 빈곤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를 생산하는 데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목 차

요 약	13
제 1 장 서 론	32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2
제2절 연구내용	33
제 2 장 국내외 패널조사 동향	35
제1절 국내의 패널조사 동향	35
제2절 해외의 패널조사 동향	45
제3절 국내·외 패널조사의 시사점	72
제 3 장 조사 및 표본 설계	77
제1절 조사설계	77
제2절 표본설계	82
제3절 조사결과 및 자료처리	87
제 4 장 조사결과 분석	91
제1절 가구의 일반특성	91
제2절 소득 및 지출	103
제3절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특성비교	137
제 5 장 결론	156
제1절 본조사 표본추출방안	156
제2절 본조사의 패널 관리방안	158
참고문헌	162

표 목 차

〈표 2- 1〉	노동패널 1~6차 조사결과	38
〈표 2- 2〉	청년 패널 1~3차 조사결과	41
〈표 2- 3〉	PSID 조사방법의 변화	47
〈표 2- 4〉	PSID의 핵심조사항목	48
〈표 2- 5〉	PSID의 추가 주제	49
〈표 2- 6〉	NLSY의 구성	52
〈표 2- 7〉	NLSY 97 표본 크기 및 유지율	53
〈표 2- 8〉	NLSY round 별 조사 기간	54
〈표 2- 9〉	NLSY 청소년용 질문지	54
〈표 2-10〉	BHPS의 주요주제	58
〈표 2-11〉	BHPS 개인용 설문지의 내용	59
〈표 2-12〉	GSOEP 하위표본	63
〈표 2-13〉	SLID 패널설계	67
〈표 2-14〉	SLID 응답률	68
〈표 3- 1〉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 층화 결과	84
〈표 3- 2〉	층별 표본조사구수 배분 내역	86
〈표 3- 3〉	층별 신축아파트의 표본조사구수 배분 내역	86
〈표 3- 4〉	표본조사구 추출결과 층별 내용	87
〈표 3- 5〉	가구조사결과 가구수	88
〈표 4- 1〉	조사가구의 일반특성	91
〈표 4- 2〉	가구규모별 특성	92
〈표 4- 3〉	주거점유 형태별 특성	92
〈표 4- 4〉	기초보장수급여부별 특성	93

〈표 4-5〉	지역별 가구규모	93
〈표 4-6〉	기초보장 수급여부별 가구규모	94
〈표 4-7〉	지역별 주거점유형태	94
〈표 4-8〉	기초보장수급여부별 주거점유형태	95
〈표 4-9〉	가구주 일반특성	96
〈표 4-10〉	노인가구주 가구특성	97
〈표 4-11〉	가구주의 장애상태	97
〈표 4-12〉	가구주의 경제활동참여상태	98
〈표 4-13〉	가구주 성별 경제활동참여상태	99
〈표 4-14〉	장애상태별 경제활동참여상태	99
〈표 4-15〉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비율	100
〈표 4-16〉	장애인이 있는 가구비율	101
〈표 4-17〉	중증장애인(1, 2급)이 있는 가구비율	101
〈표 4-18〉	아동가구원이 있는 가구비율	102
〈표 4-19〉	취업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비율	103
〈표 4-20〉	근로무능력 가구비율	103
〈표 4-21〉	조사가구의 평균소득	104
〈표 4-22〉	지역별, 가구규모별, 수급여부별, 주거점유형태별 소득	105
〈표 4-23〉	가구주 특성별 소득	106
〈표 4-24〉	가구원 특성별 소득	108
〈표 4-25〉	소득원천 구성	109
〈표 4-26〉	지역별 소득원천 구성	109
〈표 4-27〉	가구주 성별 소득원천 구성	110
〈표 4-28〉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원천 구성	110
〈표 4-29〉	가구주 장애여부별 소득원천 구성	111
〈표 4-30〉	가구주 취업여부별 소득원천 구성	112
〈표 4-31〉	가구주 경제활동상태별 소득원천 구성	112
〈표 4-32〉	근로능력 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소득원천 구성	113

〈표 4-33〉	노인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소득원천 구성	113
〈표 4-34〉	장애인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소득원천 구성	114
〈표 4-35〉	아동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소득원천 구성	114
〈표 4-36〉	취업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소득원천 구성	115
〈표 4-37〉	취업자수에 따른 소득원천 구성	115
〈표 4-38〉	수급/비수급 여부에 따른 소득원천 구성	116
〈표 4-39〉	지역별 월평균 총지출	116
〈표 4-40〉	가구규모별 월평균 총지출	117
〈표 4-41〉	기초보장수급여부별 월평균 총지출	117
〈표 4-42〉	주거점유형태별 월평균 총지출	118
〈표 4-43〉	근로능력가구와 근로무능력가구별 월평균 총지출	118
〈표 4-44〉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월평균 총지출	119
〈표 4-45〉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월평균 총지출	119
〈표 4-46〉	지출비목 구성	120
〈표 4-47〉	지역별 지출비목 구성	120
〈표 4-48〉	기초보장수급여부별 지출비목 구성	121
〈표 4-49〉	주거점유형태별 지출비목 구성	122
〈표 4-50〉	근로능력가구와 근로무능력가구의 지출비목 구성	123
〈표 4-51〉	노인가구원수별 지출비목 구성	124
〈표 4-52〉	아동가구원수별 지출비목 구성	124
〈표 4-53〉	취업가구원수별 지출비목 구성	125
〈표 4-54〉	전체가구 가계수지 현황	126
〈표 4-55〉	기초보장수급여부별 평균가계수지	127
〈표 4-56〉	주거점유형태별 평균가계수지	128
〈표 4-57〉	자산증감 현황 및 증감액	129
〈표 4-58〉	지역별 자산증감 현황 및 증감액	129
〈표 4-59〉	가구규모별 자산증감 현황 및 증감액	130
〈표 4-60〉	기초보장수급여부별 자산증감 현황 및 증감액	131

〈표 4-61〉 주거점유형태별 자산증감 현황 및 증감액	132
〈표 4-62〉 부채증감 현황 및 증감액	133
〈표 4-63〉 지역별 부채증감 현황 및 증감액	133
〈표 4-64〉 가구규모별 부채증감 현황 및 증감액	134
〈표 4-65〉 기초보장수급여부별 부채증감 현황 및 증감액	135
〈표 4-66〉 주거점유형태별 부채증감 현황 및 증감액	136
〈표 4-67〉 저소득가구(인구)와 일반가구(인구) 규모	138
〈표 4-68〉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일반특성	139
〈표 4-69〉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구주 연령, 가구규모 특성	140
〈표 4-70〉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노인가구주 가구 특성	141
〈표 4-71〉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구주 성별 특성	141
〈표 4-72〉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결혼상태	142
〈표 4-73〉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구주 장애상태	142
〈표 4-74〉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구주 경제활동참여상태 특성	143
〈표 4-75〉 아동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교	143
〈표 4-76〉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교	144
〈표 4-77〉 근로무능력가구와 근로능력가구 비교	145
〈표 4-78〉 취업가구원수별 비교	145
〈표 4-79〉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득원별 구성비	146
〈표 4-80〉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득원천별 구성비	146
〈표 4-81〉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역별 총지출	147
〈표 4-82〉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출비목별 구성비	148
〈표 4-83〉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구유형별 지출비목 구성비	149
〈표 4-84〉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계수지	150
〈표 4-85〉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구주 성별 가계수지	150
〈표 4-86〉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노인/비노인 가구주 가구 가계수지 ·	151
〈표 4-87〉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취업/비취업 가구주 가구 가계수지 ·	152
〈표 4-88〉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노인가구원 유무에 따른 가계수지 ·	152

〈표 4-89〉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아동가구원 유무에 따른 가계수지 ..	153
〈표 4-90〉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장애인가구원 유무에 따른 가계수지 ..	153
〈표 4-91〉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취업가구원 유무에 따른 가계수지 ..	154
〈표 4-92〉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자산 및 부채증감여부	155
〈표 5- 1〉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수준별 본조사 표본수	157
〈표 5- 2〉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수준별 본 조사 표본수 및 접촉대상가구수	158

그림목차

[그림 4-1]	소득구분	104
[그림 4-2]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득원천별 구성비	147
[그림 4-3]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출비목별 구성비	148
[그림 5-1]	차상위 및 빈곤 패널의 운영조직표(안)	161

Abstract

A panel study on the near-poor and the poor

The poverty problem of Korea is going through changes not only in quantity, but also in quality.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the number of poor people has increased sharply, along with the newly emerging, and rapidly growing, working poor population. Also, the duration of poverty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In this respect, a panel survey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what changes took place in the needs of the poor and the near-poor and to set priorities in mid- and long-term policy-making. To do so requires pre-survey for the sample selection.

As a preliminary study to build up Korean Poverty Panel Survey, we look into the prospects and problems of poverty related panel data, going over a wide range of panel survey conducted in the country and abroad. In the process, we describe overall plan of this survey and questionnaire as well as the sampling design. After that, we analyse data and provide outcomes ranging from general matters on overall households to the specific income and expenditure characteristics of the poor and the near-poor.

Finally, we suggest the method of sampling that is based on 17,768 households and as well as directions or guidelines to keep the quality of panel data. Such a panel survey is expected to provide us with substantial information for reforming and strengthening various public provision systems includ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요 약

제1장 서 론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외환위기 이후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극화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양극화에 의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 등을 동태적(poverty dynamics)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빈곤·탈빈곤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생산할 필요가 있으며,
 -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의 구성, 지원정책의 방향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임.
-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실태 및 욕구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집단간·영역간 정책우선순위 결정을 지원하고, 조사결과와 누적을 통해 중장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패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 제2장에서는 국내외 주요 패널조사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고, 제3장에서는 조사설계 과정과 표본설계 과정, 그리고 조사결과와 자료처리방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 제4장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내용을 크게 가구일반사항, 소득분포, 지출분포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리고 제5장에서는 본조사의 표본추출방법과 패널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제2장 국내외 패널조사 동향

1. 국내의 패널조사 동향

□ 대우패널(한국가구패널: Korea Household Panel Survey)

-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주관, 조사목적은 동일한 가구 및 개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제활동을 파악하고, 가구와 가구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제 변수를 이해하기 위한 것

□ 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주관, 조사목적은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활동과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를 통해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고용보험)의 수립과 평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활패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조사목적은 가구여건·고용상태·건강상태의 변화가 저소득층의 빈곤화 및 탈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활사업의 합리화 및 효율화, 자활대상자 및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청년 패널(Youth Panel)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주관, 조사목적은 학교로부터 직업 세계로의 진입과정(school to work)과 노동시장경로(career path) 등에 대한 조사로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정책(진로 및 취업알선)의 기초자료 수집임.

□ 한국 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 조사목적은 청년층의 교육관련 정보를 충분히 생성하여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관계를 보다 밀도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한국복지패널

-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주관하여 2005년 1차년도 조사가 시작됨. 조사 목적은 인구의 동태적 변화, 생활수준의 변화, 복지욕구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전국민의 삶의 질 실태와 변화를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로 파악하는 것임.

□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국민연금패널조사; National Pension Panel Survey)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관하며, 2005년 1차년도 조사가 시작됨. 조사 목적은 한국인의 퇴직 전·후의 생활수준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퇴직 준비상황, 연금이 저축과 근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노후소득의 원천이 될 국민연금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고령화 대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 고령자 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 한국 노동연구원에서 주관하며, 조사의 목적은 고령자의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인 삶의 전반에 건친 포괄적인 자료를 구축하여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임.

2. 해외의 패널조사 동향

□ 미국: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

- 미시간대학 부설 Survey Research Center(SRC)에서 주관하며, PSID는 1968년 시작하여 현재까지 종·횡단면적인 데이터를 계속 검토하고 기록해오고 있음.
- PSID는 어느 시점에서든 모든 연령층에 대하여 미국의 가구와 개인들을 대표하며, 고용, 소득, 인구학적인 정보에 대한 연도별(때로는 월별) 시계열 데이터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로 세대간을 걸쳐 광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 부, 저축, 친족관계 등의 다양한 보충적인 주제들을 포함시켰으며, 이웃환경, 건강과 사망

등에 대한 특수목적의 연구주제들을 포함시켜왔음.

□ 미국: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NLSY 97)

- NLS는 미국의 대표적인 노동관련 패널조사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CHRR(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에서 주관함.
- 1979년부터 14~22세 사이의 젊은 남녀 12,686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패널 조사가 NLSY이며, NLSY79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1997년 12~16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NLSY97이 시작됨.

□ 영국 가구패널조사: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BHPS)

- 1991년 9월에 시작한 영국의 가구패널조사인 BHPS는 Essex 대학에 있는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ISER) 내의 ESRC Research Centre on Micro-social Change와 UK Longitudinal Studies Centre에서 주관하고, 조사 목적은 영국의 개인 및 가구 단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경제적 변수 범위와 관련한 원인 및 결과와 변화를 확인하고 유형화하고 예측하기 위한 것임.

□ 독일: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GSOEP)

- GSOEP은 국립 경제연구기관인 DIW에서 주관하고, 1984년 옛 서독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어 같은 개별 가구, 개인, 가족들을 매년 조사하였고, 1990년부터는 옛 동독지역의 가구들을 포함하였고, 1994/95년에는 이민 가구 역시 조사대상으로 포함됨.

□ 캐나다: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SLID)

- SLID의 주관기관은 Statistics Canada이며, 1993년 1월에 SLID 1차 조사가 실시되었음. 6년마다 표본이 교체되는 medium life panel임.
- SLID의 목적은 소득의 동태적 분석으로 개인 및 가족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의 분석, 빈곤의 동태적 요인 분석, 노동시장의 동태 분석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이, 노동시장에서의 라이프 사이클 등의 움직임을 분석, 가족에 대한 동태적 분석으로 경제적 풍요로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임.

- 호주: the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HILDA)
 -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의 Commonwealth Government에서 주관하며, 조사 설계와 관리는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에서 담당함.

3. 국내·외 패널조사의 시사점

가. 국내 패널조사의 시사점

- 빈곤패널조사는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양태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빈곤관련 정책의 수립과 그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따라서 적절한 빈곤관련 정책의 마련 및 그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개인 및 가구를 관찰한 연속적인 자료의 확보가 중요함.
 - 국내 패널조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빈곤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빈곤패널의 구축이 중요함.
- 시사점
 - 빈곤패널은 첫째, 빈곤의 역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인구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표본이어야 하므로 표본은 고령자 패널, 국민노후보장 패널, 청년패널, 교육고용패널처럼 특정계층에 한정되지 않아야 할 것임.
 - 둘째, 지역적으로도 노동패널처럼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적인 표본이 되어야 할 것임.
 - 셋째, 빈곤패널 이용과 빈곤관련 연구의 활성화, 그리고 빈곤관련 정책

의 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처럼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통해 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나. 해외 패널조사의 시사점

- 미국의 PSID는 1968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1984년부터 가구패널조사인 GSOEP가 시작되었고, 영국 1991년 가구패널조사인 BHPS, 캐나다 1986년 노동패널조사인 SLID, 호주의 경우 가구패널조사인 HILDA가 2001년부터 시작되어 우리나라에 비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
 - 패널조사에서 표본을 유지하는 것은 패널조사의 성공유무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나라마다 원표본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패널조사는 패널가구나 가구원과의 원만한 유대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고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직접대면 면접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응답가구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년 면접타계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변화에 민감한 부분에 한하여 CATI를 활용한 조사방식의 활용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국내의 패널조사 동향을 살펴본 결과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 본조사(패널조사)를 위한 원표본의 규모는 패널탈락률을 고려하여 과대표본추출이 되어야 할 것이며, 원표본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전담관리팀의 신설이 필요함.
 - 패널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면접자의 연속성 유지 및 품질관리와 조사의 질 및 데이터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선된 조사 도구로써 CAPI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3장 조사 및 표본 설계

제1절 조사 설계

1. 조사개요

- 표본으로 추출한 200개 지역 400개 조사구 내의 일반가구로, 20,000가구 (조사구당 50가구)를 대상으로 함.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및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단, 사업과 주거의 겸용주택 내의 가구, 외국인 가구, 비혈연 집단 가구, 학생 1인 가구 등은 제외함).
- 2005년 10월 11일~11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짐.

2. 조사표 설계

□ 조사표의 목적과 구조

- 2005년의 기초조사는 본조사의 표본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가구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고, 둘째, 그 가구가 지속적인 패널조사를 위한 표본으로서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함.
- 본 연구의 조사표는 이러한 패널조사의 기초조사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음 몇 가지 점을 고려하여 설계됨.
 - 첫째, 조사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빈곤패널을 위한 예비조사』라는 표제 대신 『2005년 가구경제 기초조사』라는 다소 중립적인 표제를 사용함.
 - 둘째, 주어진 예산과 일정의 제약 속에서 18,000가구를 조사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이번 조사가 기초조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문항을 최소화하고자 함.

- 셋째, 이번 조사의 일차적 목적인 소득과약을 통한 본조사 표본의 확정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소득과약에 초점을 두고 조사표가 설계됨.
- 넷째, 패널조사라는 것을 미리 알림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부효과와 승인 후 패널표본으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의 실패효과를 동시에 방지하기 위해 패널조사 표본가구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대신 6개월 이내에 이사계획과 정확한 연락처만을 확인하는데 그침.

□ 조사문항의 구성

- 조사표는 가구일반사항, 생활비, 자산 및 부채 변동, 주거환경 및 이사계획,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사문항의 활용과 본조사시의 유의사항

- 표본확정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일차적으로, 본조사의 표본을 몇 개로 할 것이며 완전비례표집할 것인지 소득계층에 따라 층화표집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조사결과의 소득의 정의와 범주를 명확히 정해야 함.
 - 다음으로, 패널조사에 대한 불응가구, 이사 등으로 인해 이 기간 동안 조사구를 크게 이탈한 가구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표본의 수는 최종적으로 본조사 대상이 될 표본의 약 150% 이상은 되어야 함.
 - 이 밖에도 본조사에서는 소득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득조사의 대상기간을 동일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제2절 표본설계

1. 기획단계 결정 사항

□ 조사규모

- 빈곤층에 대한 패널 구축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큰 조사규모가 필요하였으나 주어진 예산과 조사기간을 감안하여 표본조사구수를 400개, 조

사구당 평균 45가구를 조사완료하여 총 18,000 조사완료 가구를 목표로 함.

- 조사대상지역
 - 제주도를 제외한 섬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조사지역으로 함.
- 표본조사구 추출 기초자료
 -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활용 함.
- 신축아파트에 대한 조치
 - 표본조사구 내의 신축아파트는 조사에서 제외시키고 그 대신에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신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본조사구를 정하여 조사함.

2. 표본조사구 추출

- 기초자료의 정리 및 층화
 - 조사구를 행정구역과 주택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층화함.
- 층별 가구수에 대한 크기의 측도 부여
 - 각 조사구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조사구 가구수를 5로 나누어 반올림한 결과를 조사구에 대한 크기의 측도(MOS; Measure of size)로 함.
- 표본조사구 추출
 - 총 400개의 표본조사구 중에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에서 380개 조사구를 추출하고 신축아파트에서 20개 조사구가 추출되도록 함.
- 신축아파트 표본조사구 추출
 - 993,075가구분의 신축아파트를 7대 시, 기타 시의 동, 읍·면으로 층화하고 각 층의 가구수를 60가구로 나누어 반올림한 결과를 신축아파트 추정조사구수로 함.
 - 신축아파트의 표본조사구수는 추정조사구수에 비례하여 7대 시에서 10개, 기타 시에서 6개, 읍·면에서 4개를 추출함.

3. 표본조사구 추출결과 및 조사규모

- 이와 같이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결과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에서 21,987가구, 신축아파트 조사구에서 1,200가구를 추출하여 표본조사구에 있는 총가구수는 23,187가구가 됨.
- 표본조사구 안에서의 조사대상가구 선정은 거처번호 순으로 하였으며 서로 인접한 조사구의 가구수 합이 110가구 이상 도달하는 거처 까지를 조사대상가구로 하여 총 21,703가구를 조사대상가구로 함.

제3절 조사결과 및 자료처리

1. 조사결과

- 400개 표본조사구에서 조사원이 방문한 21,703가구 중에서 17,769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조사완료율은 81.9%이었음.

2. 추정방법

- 이 조사결과에 의한 각종 통계치는 가중표본합계치(가중표본합계치, weighted sample total)와 이에 의한 평균 및 구성비임.
 - 여기서 조사결과를 그대로 합산한 단순표본합계치(단순표본합계치, simple sample total)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각 조사구역이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이 동일하지 않고 미방문가구율 및 조사미완율이 조사구마다 다르기 때문임.
 - 결과적으로 가구조사 결과의 가구수의 가중표본합계치는 전체 조사 완료가구수와 일치되도록 함.

제4장 조사결과 분석

제1절 가구의 일반특성

1. 가구 일반특성

□ 가구 일반특성

- 지역별로 대도시 49.2%, 중소도시 32.3%, 농어촌 18.5%.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와 비교시, 대도시 비율이 약간 높고, 농어촌 비율이 약간 낮음.
- 평균 가구원수는 3.0명이며, 최소가구원은 1명, 최대 가구원은 12명이며, 가구규모는 4인가구가 30.6%로 가장 비중이 높았음.
- 자가가 57.8%, 전세 22.4%, 보증부 월세 10.6%순이며, 통계청 가계조사(2005)와 비교시, 자가의 비율은 더 낮게, 전세의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음.
- 기초보장수급자 비율이 3.7%로 실제 수급가구 비율 5.1%보다 적게 나타났음.

□ 지역별 가구특성

- 도시는 4인가구의 비율이 32.7%로 가장 높고, 농어촌은 2인가구의 비율이 32.3%로 가장 높았으며, 모든 지역에서 자가 비율이 가장 높으며, 농어촌은 69.5%로 특히 더 높음.

□ 기초보장 수급여부별 가구특성

- 수급가구의 경우 1인 단독가구 38.4%, 2인가구 24.2%, 3인 가구 19.3% 순이었고, 수급가구 중 자가가 28.4%로 비수급 가구의 59.0%에 비해 1/2 수준에 머물렀으며, 월세 비율은 19.2%로 비수급자의 3.7%에 비해 5배 정도 높았음.

2. 가구 구성원 특성

가. 가구주 특성

□ 가구주 일반특성

- 성별은 남성이 82.9%, 여성은 17.1%임. 평균연령은 48.3세이며, 연령대별

가구주 특성은 40대 28.5%, 30대 24.9%, 50대 17.9% 순임.

- 취업 78.5%, 비취업 21.5%이며, 임금근로자 67.4%, 자영업자가 28.0%임.

□ 가구주 특성별 경제활동 참여상태

- 남성가구주의 취업은 83.2%이며, 여성가구주의 취업은 56.2%임. 여성 가구주의 고용상태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상당히 불안정함.
- 비장애인 가구주의 취업은 80.1%, 장애인 가구주의 취업은 52.6%로 장애인 가구주의 취업 비중이 낮음.

나. 가구원 특성

□ 가구원 특성

- 노인이 없는 가구는 전체의 75.8%, 노인이 한 명 이상 있는 가구는 전체의 24.2%로 네 가구 중 한 가구에는 노인이 한 명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비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구는 전체의 90.7%,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가구는 전체의 9.3%로 나타났음.
- 취업한 가구원이 없는 가구가 전체의 14.7%이고 취업한 가구원이 1명이라도 속한 가구는 전체의 8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 아동, 중증장애인으로만 가구가 구성된 근로무능력가구비율은 10.3%임.

제2절 소득 및 지출

1. 소득

가. 소득일반

□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공공부조 급여전 소득

- 경상소득 236.4만원, 시장소득 230.3만원, 가처분 소득 218.5만원, 공공부조 급여전 소득 234.8만원으로 조사됨.

- 중위소득, 평균소득
 - 대도시 220만원, 중소도시, 214.1만원 농어촌 138만원이고, 평균소득은 대도시 253만원, 중소도시 244.6만원, 농어촌 178.3만원으로 조사됨.
 - 기초보장 수급자의 중위소득은 51만원, 평균소득 66.1만원이며, 기초보장 비수급자들은 중위소득 213만원, 평균소득 242.6만으로 나타났음.
- 가구주 특성별 평균 소득
 - 남성일 경우 평균소득은 260.8만원, 여성일 경우 117.9만원이었으며, 40대일 때 283.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30대 274.8만원, 50대 263.7만원 순으로 소득이 높았음.
 - 가구주가 취업상태일 때는 271.3만원, 비취업상태일 때는 108.2만원으로 취업 여부에 따른 소득의 격차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음.
- 가구 특성별 평균소득
 - 근로능력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평균소득이 256.4만원이나, 근로능력 가구원이 한명도 없는 경우는 평균소득이 63.8만원으로 근로능력 가구원의 유무에 따라 소득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음.

나. 소득원천별 구성

- 소득원천(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구성비
 - 임금소득 66.1%, 사업소득 25.1%로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이 91.2%
 - 임금소득이 대도시 67.1%, 중소도시 68.0%로 비슷하였으며, 농어촌의 경우는 임금소득이 57.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근로능력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임금소득이 67.6%, 근로능력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이전소득이 62.9%로 높은 비중을 차지

2. 지출

가. 지출일반

- 평균 총지출은 196만원이며, 대도시 212.8만원, 중소도시 197.5만원, 농어촌

148.6만원으로 거주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구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출액도 커짐.

나. 지출비목 구성

지출비목 구성

- 장보는 비용 43.0만원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하고, 교통통신비 16.3%(31.9만원), 교육비 13.7%(27.0만원),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6.4%(12.5만원) 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구특성별 지출비목 구성

- 기초보장 수급여부와 근로능력유무별 지출비목의 비중은 보건의료비와 교육비에서 유의할 만한 차이점을 보이며, 주거점유형태에 따라서는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동가구원수별로 볼 경우 교육비와 장보는 비용이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 가계수지

- 전체적인 가구는 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평균액은 40.5만원이며, 총생활비 대비 경상소득의 지수는 1.2로 계산되었음.

기초보장수급여부별 가계수지 상황

- 수급가구의 평균가계수지액은 -2.6만원으로 경미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총생활비 대비 경상소득의 비율은 약 1.0으로 수지균형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비수급가구의 경우는 수지액이 41.7만원, 총생활비 대비 경상소득의 비율은 1.2로 수지흑자를 보이고 있음.

4. 자산 및 부채 증감

자산 증감 현황 및 증감액

- 자산이 증가한 가구 50.3%, 변동이 없는 가구 34.5%, 감소한 가구 15.2%이며 증가한 가구는 평균 257.6만원 증가, 감소한 가구는 평균 263.2만원 감소

□ 특성별 자산증감 현황

- 자산이 감소한 가구는 중소도시가 13.7%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대도시 15.4%와 농어촌 17.2%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액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부채 증감 현황 및 증감액

- 증가가구 10.6%, 감소한 가구 6.5%이며, 변동이 없는 가구 82.9%이며, 증가액은 평균 379.2만원, 감소액은 평균 248.7만원임.

□ 특성별 부채증감 현황

- 변동 없는 가구의 비중이 전 지역에 걸쳐 80% 초중반대로 나타나고 있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순으로 작아지고 있으며, 부채가 증가한 가구의 비중은 가구규모가 커질수록 조금씩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3절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특성 비교

1.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규모

- 가구균등화 지수를 사용한 저소득가구의 규모는 22.5%, 저소득인구 규모는 17.0%로 나타났고, 가구규모별 중위소득 50% 기준을 사용했을 때는 저소득 가구규모가 19.3%, 저소득인구규모가 16.8%로 나타났음.

2.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일반 특성

□ 가구특성 비교

-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일반가구가 각각 80.5%, 81.5%로 대부분을 차지, 농어촌은 62.3%이며, 1인 단독가구에서는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비율이 47.8%, 52.2%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2인~4인가구는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낮아짐.

□ 가구주 특성 비교

- 저소득 가구 가구주 평균 연령 59.6세, 일반가구 가구주 평균 연령 45.3세로 저소득 가구주의 연령이 평균 14.3세가 많으며, 평균 가구원수는 저소득 가구 2.3명, 일반 가구 3.2명으로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이 1명 정도 적었음.

□ 가구주 성별에 따른 비교

- 남성가구주 가구는 저소득 가구가 17.5%인데 비하여 여성 가구주 가구는 저소득 가구가 46.9%나 되어서 남성가구주 가구의 2.6배정도 저소득 가구 비율이 높았음.

□ 장애상태에 따른 특성 비교

- 가구주가 비장애인인 경우 저소득가구가 21.3%이고, 장애인 가구주인 경우 43.1%로 나타나 가구주에게 장애가 있을 때 저소득 가구가 되는 비율이 2배 정도 높았음.

3. 가구원 특성비교

□ 가구원 특성별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비교

- 일반가구의 경우 아동이 없는 가구가 48%이며, 저소득가구에 있어서는 아동이 없는 가구의 비중이 73.8%로 상대적 비중이 높음.
- 일반가구 중에서 근로능력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97.0%,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근로능력가구가 64.3%임.

4.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득 및 지출

□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득원별 구성비

- 가구주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가구 80.3%, 일반가구 79.8%임.

-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출 비교
 - 저소득가구의 총지출^{주1)}은 86.8만원으로 일반가구 227.7만원의 38.1%임.
- 소득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계수지 비교
 - 저소득가구 중 가계수지 흑자인 가구비율은 29.9%, 일반가구의 경우 17.5%만이 가계수지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가구주 특성별 가계수지
 - 남성가구주 가구만을 비교할 때, 저소득가구의 경우 60.8%가 가계수지 적자로 나타나 일반가구보다 적자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저소득가구의 가계수지 적자 가구의 비율이 43.9%로 일반가구의 19.7%에 비해 높음.
- 가구주 노인여부에 따른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계수지
 - 노인가구주 가구 중 저소득가구의 경우 37.5%가 가계수지 적자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15.9%와 비교할 때, 적자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장애인가구원유무에 따른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계수지
 - 저소득가구의 경우 장애인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15.3%로 일반가구의 경우 7.3%에 비해 장애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으며, 장애인가구원이 없는 가구의 중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계수지 적자 가구의 비율이 55.5%로 일반가구의 17.3%에 비해 적자가구 비율이 높음.
- 취업가구원유무에 따른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계수지
 - 취업가구원이 있는 가구만을 비교할 때, 저소득가구의 경우 59.6%가 가계수지 적자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17.0%와 비교할 때, 적자가구의 비율이 높음.
-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여부
 - 저소득가구의 15.1%가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60.6%와 비교해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저소득가구의 29.5%가 자산이 감소한

주1) 여기서 총지출은 경상지출을 의미한다.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11.0%와 비교해 자산이 감소한 가구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가구 중 부채가 증가한 가구의 비율은 16.4%로 일반가구의 10.8%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부채가 감소한 저소득가구의 비율은 1.9%로 일반가구의 7.8%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제5장 결론

제1절 본조사 표본추출방안

- 빈곤패널 본조사의 표본추출방안은 조사목적(빈곤계층 실태분석 자료 제공, 표본의 대표성과 충분성 충족)에 따라 조사비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익년도에는 약 4000가구를 목표로 빈곤패널 표본을 구성할 예정이다.
- 표본추출방법으로는 우리나라의 빈곤계층을 규모를 고려하여 4000가구 전부를 중위소득이하 집단에서 추출하는 방법, 둘째 4000가구를 소득계층 구성비에 비례하여 뽑는 방법, 그리고 셋째 이들 두 방법을 절충하여 저소득계층을 과다 표집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빈곤패널의 조사목적에 살리고, 표본의 대표성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을 과다 표집 하는 추출방법이 첫 번째 와 두 번째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조사비용예산의 제약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 이라고 할 수 있음.

제2절 본조사의 패널 관리방안^{주2)}

1. 추적조사

- 먼저 추적조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주2) 본 절은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 데이터 구축방안(2004)」에서 재구성 함.

- 조사대상자가 이사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지역을 이동할 경우
- 한번 표본으로 설정된 조사 대상가구는 이혼, 별거, 가구원의 독립 등의 변화가 있어도 계속적으로 가구원들을 추적
- 가구의 이사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친지, 이웃 등 가장 가까운 가구나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두어 응답자 관리의 부차적인 접촉방법으로 강구함.
- 추적조사 대상은 응답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조사에서의 응답대상자를 대상으로 함.

2. 응답자 관리

- 패널조사의 응답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 할 수 있음.
 -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조사에 대한 사전예고 우편물 발송
 - 조사를 약속한 응답자가 약속을 어길 경우 ‘또 찾아 뵈겠습니다’ 카드를 남겨 후속 약속을 잡도록 함.
 - 응답거절자에 대하여 설득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발송하여 응답률을 높임.

3. 관리조직

- 이상과 같은 패널자료의 수집과 분석·관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조직이 필요함.
 - 행정적 지원과,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자료수집, 수집된 자료의 처리, 자료 분석, 지속적인 자료의 관리를 맡는 전문적인 팀에 의한 운영이 필요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뚜렷해진 양극화 현상은 산업, 노동시장, 소득을 비롯한 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을 약화시키고 특히 하위계층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킴으로써 빈곤탈피의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급속한 빈곤화는 단순한 경기침체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위 ‘신빈곤’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양극화를 주도하는 것이 근로소득의 양극화이든 자산을 포함하는 비근로소득의 양극화이든,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의 양극화이든 간에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심각한 화두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이러한 양극화에 의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 등을 동태적(poverty dynamics)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빈곤·탈빈곤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복지지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즉,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의 구성, 지원정책의 방향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한

주3) 최근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연구로는 이정우, 이성림(2001), 최희갑(2002), 민성규(2006), 신동균(2006) 등이 있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대한 연구로는 전병유, 김혜원, 신동균(2005)가 대표적이다. 또한, 산업양극화에 대한 연구로는 서중해(2004), 김정언, 정현준(2005)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소득, 노동시장, 산업 전반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각종 빈곤층 및 차상위층 관련 조사들은 단절적, 단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조사가 특정집단이나 영역에 대한 단발성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어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누적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서로 다른 시점에 다른 표본추출방식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져 우선지원 대상 집단을 결정하거나 그 규모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실태 및 욕구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집단 간·영역 간 정책우선순위 결정을 지원하고, 조사결과의 누적을 통해 중장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패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패널조사’에 의해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실태 및 욕구변화에 대한 패널자료가 구축된다면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제도 및 자활지원제도의 개선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연구에도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에서도 가구의 소득 및 취업상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각종 패널조사를 오래 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들 패널조사의 결과가 다각적인 정책처방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다(미국의 PSID, 캐나다의 SLID, 유럽의 ECHP 등).

본 연구는 이러한 빈곤층 및 차상위층에 대한 ‘패널조사’의 표본을 선정하기 위한 전국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패널조사)의 원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제2절 연구내용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내외 주요 패널조사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국내

패널조사로는 대우패널(대우경제연구소), 한국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 자활패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패널(중앙고용정보원), 한국교육고용패널(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최근 조사를 시작한 한국복지패널(서울대학교), 국민노후보장패널(국민연금연구원), 고령자패널(한국노동연구원) 등을 살펴보고, 해외 조사로는 미국의 PSID, NLSY, 영국 BHPS, 독일 GSOEP, 캐나다 SLID, 그리고 호주의 HILDA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조사설계 과정과 표본설계 과정, 그리고 조사결과와 자료처리방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조사설계 과정에 관해서는 대상가구, 조사기간, 조사방식 등에 관한 개요를 소개하고 조사표의 방향과 조사문항의 구성을 살펴보고, 표본설계 과정에 관한 내용은 표본조사구 추출방법, 신축아파트 표본조사구 추출방법, 그리고 추출결과와 규모를 포함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내용을 크게 일반사항, 소득분포, 지출분포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분석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제4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조사의 표본추출방법을 제시하고 패널관리방안에 관한 내용과 함께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제2장 국내외 패널조사 동향

제1절 국내외 패널조사 동향

1. 대우패널(한국가구패널: Korea Household Panel Survey)

가. 개요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주관하였으며 자체예산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목적은 대우경제연구소가 아시아 최초로 실시한 가구패널조사로서 동일한 가구 및 개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제활동을 파악하고, 가구와 가구원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제 변수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부정책을 포함한 각종 환경의 변화가 가구와 가구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하여 가구와 가구원의 행동양식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나. 표본

표본추출은 다단계 층화확률표본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일반가구 8,236가구를 선정하였고, 1차년도 조사에서 선정된 가구의 55.2%인 4,547가구에서 패널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표본관리의 부실 등으로 인한 탈락률의 증가로 표본수는 점차 급락하여 제4차년도의 조사가 완료된 시점(1996년)에는 2,833가구만이 남게 되었다.

다. 조사

설문지는 가구용 설문지와 개인용 설문지로 구분된다. 가구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상황을 파악하는 가구용 설문지는 한 가구에서 가구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을 가장 잘 아는 가구원에 의하여 응답되며, 그 가구에 속한 18세 이상의 모든 개별가구원의 경제활동상황을 파악하는 개인용 설문지는 그 가구에 속한 18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이 응답한다.

가구용 설문지의 조사내용은 가구 및 주거에 관한 사항, 가구 연간 총소득, 가구 경제상태 평가, 가구 연간 소비지출, 금융상품 보유현황에 대한 것이고,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내용은 개인의 상황, 봉급생활자의 경제활동, 자영(자유)업자, 농림수산업자, 비정규직·미취업자 등의 경제활동, 직장 및 직업경력에 대한 내용이다.

라. 관리체계

조사주기는 매년이며, 대우패널조사는 1992년 9월부터 1년 동안 준비단계를 거친 뒤 1993년 9월에 패널조사를 시작하였다. 그 후 제 5차년도(1998년)의 패널조사를 완료한 후 대우경제연구소의 해산으로 조사가 중단되었다. 조사설문지 구성, 데이터의 분석, 보고서의 작성 등 총괄작업은 대우경제연구소의 패널팀에서 담당하였다. 실제 설문조사는 조사전문회사에 용역을 주었다.

조사요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재하는 면접타계식 조사로 진행되어 훈련된 면접원이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내용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개별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2. 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가. 개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조사비용이 지원되었다. 조사목적은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과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를 통해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고용보험)의 수립과 평가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다. 1998년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2004년 7차년도 조사가 완료되었다(2005년 현재 6차년도 조사까지 자료공개).

나. 표본

조사대상은 도시지역의 일반근로자가구(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이며, 1차 조사시의 조사성공 표본 규모는 5,000 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 13,000명이었다.

표본추출은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전국 21,938조사구)로 하였으며, 조사구 추출방법은 계통추출방법을 사용하여 21,938조사구 중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시지역만을 층화하여 1,000개의 조사구를 선정하였으며 층화기준은 지역 우선, 그리고 동일 지역 내에서는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층화방법을 채택하였다. 조사구가 추출될 확률은 지역에 상관없이 5.3%이다. 표본추출은 각 조사구 내에서, 1997년 고용구조 특별조사에서 조사에 성공한 가구들 중 임의추출(random sampling)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5~6가구 선정하였다.

다. 조사

설문지는 개인용 설문지와 가구용 설문지로 구성되며 개인용 설문지는 조사대상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구성원이 응답자가 되며, 가구용 설문지는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를 응답자로 하되, 가구주와 그 배우자가 응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구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가구구성원을 응답자로 한다.

내용은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과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을 다룬다.

〈표 2-1〉 노동패널 1~6차 조사결과

	1차(1998)	2차(1999)	3차(2000)	4차(2001)	5차(2002)	6차(2003)
조사성공가구수	5,000	4,509	4,267	4,248	4,298	4,592
유효표본가구수	5,000	4,379	4,045	3,865	3,798	3,862
표본유지율	-	87.6	80.9	77.3	76	77.2
분가가구수	-	130	222	383	500	730
가구원수	13,317	12,042	11,206	11,051	10,965	11,543
실시기간	6월~10월	7월~12월	5월~10월	5월~10월	4월~9월	4월~9월

자료: <http://www.kli.re.kr>

라. 관리체계

1997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1998년 본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매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방법은 면접타계식을 원칙으로 하는데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이다. 유치조사방법을 함께 활용하는데 심야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조사방법이 사용가능하다.

노동연구원의 고용보험연구센터에서 총괄하여 데이터관리 및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실사업무는 민간의 조사전문기관에 위임하였다.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활패널

가. 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관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였다. 조사목적은 가구여건·고용상태·건강상태의 변화가 저소득층의 빈곤화 및 탈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출입 과정을 종합적(가구형태별, 고용상태별, 소득수준별)으로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진입이 가능한 집단과 힘든 집단의 특성을 포착하는 것이다. 또한 실직·빈곤상태에 있으면서 자활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규모를 파악하여 자활사업을 합리화하고 효

을화하며, 개별급여에 대한 저소득층의 수요를 파악하여 자활대상자 및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초자료의 구축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2002년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2004년 3차년도 조사가 완료되었다.

나. 표본

1차 조사대상과 2차 조사대상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차 조사대상은 전국적으로(섬지역 및 시설 단위 조사구 등은 제외) 177개 표본조사구에 거주하고 있는 10,114가구의 30,033명에 대하여 빈곤계층을 파악하는 등의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의 대상은 파악된 저소득 가구(2002년 중위소득의 60%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가구) 1,125가구 및 그 가구에 속한 근로가능인구(15~65세 미만) 1,763명에 대하여 심층조사하였다.

표본조사구 추출을 위한 기초자료는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조사의 조사구별 집계결과 파일을 활용하여 행정구역에 따라 5개 지역으로 층화한 다음, 각 층에서는 주택특성에 따라 조사구를 분류하였다. 전체조사구 중(인구주택 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25,300가구)크기의 척도에 비례하는 확률로 177개 조사구를 계통추출하고, 표본가구를 임의추출하였다.

다. 조사

1차 조사는 빈곤가구 및 빈곤층(개인) 판별용 조사표를 사용하였으며 가구 및 개인용 조사표로 구분되어있다. 가구용 설문지는 가구원 수 및 주거상황, 월 평균 가구 총소득, 재산, 부채, 사회보장(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수급여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개인용 설문지는 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등 일반현황과 소득, 사회보험 가입 및 수급현황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2차 조사는 빈곤가구에 대한 심층조사로 가구용 조사표와 개인용 조사표로 구분되며, 개인용 조사표는 다시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용으로 구

분된다. 가구용 설문지는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과 구성, 저축실태, 가구여건(보육, 양육, 간병실태 등), 사회복지(공공부조 수급이력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개인용 설문지는 공통적으로 직업능력, 취업욕구,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자활지원서비스, 취업 및 창업경로 등), 개인적 특성(성장, 학력, 경험 등)을 조사하고 집단별 특수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라. 관리체계

조사는 사전에 훈련된 전문조사원이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여 면접타계식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총괄, 현지조사 지도·감독, 데이터 처리·관리 및 조사보고서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동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선발·채용한 전문조사원이 실사업무, 데이터 편집, 코딩작업 등을 수행한다.

4. 청년 패널(Youth Panel)

가. 개요

노동부의 예산지원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목적은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진입과정(school to work)과 노동시장경로(career path)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개인의 교육·훈련 욕구 및 노동시장 내 수요(희망직업 등)를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정책(진로 및 취업알선)의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특히 청년층의 노동력 수급 불균형(청년 실업)의 원인과 그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및 인력수급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1년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3차년도 조사까지 진행되었다.

나. 표본

대상은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위해 선정된 50,000가구 중 15~29세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그 개인이다. 표본추출

은 조사구별 무작위 추출을 사용하여 20%인 약 10,000가구와 그 가구의 15~29세 연령대의 가구원을 추출한다. 1차 년도에 확정된 표본은 전국적으로 15~29세 사이의 청소년 및 청년층 8,296명과 그가 속한 대표가구 6,487가구이다.

다. 조사

가구용 설문지와 개인용 설문지지로 구분되며 가구용 설문지는 가구의 구성, 가구 주거형태, 소득관련항목 등을 조사한다. 개인용 설문지는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자용 및 미취업자용 설문지로 구분하고 기본적으로 교육 및 취업진로, 직장경험, 직업관, 취업준비 등을 조사한다. 각 대상자 유형에 따라 질문내용이 다르다. 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질문하고 그 응답을 기록하며, 가구용 설문지는 유치하거나 대리 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

〈표 2-2〉 청년 패널 1~3차 조사결과

	1차(2001)	2차(2002)	3차(2003)
총조사 표본수	6,487가구 / 8,296명	5,159가구 / 5,957명	4,198가구 / 5,112명
원표본 성공률	-	71.8%(of 8,296명)	61.6%(of 8,296명)
면접원수	222명	119명	119명
실사기간	9월~11월	10월~12월	8월~12월
자료처리기간	2001. 10 ~ 2002. 9	2002. 11 ~ 2003. 10	2003. 11 ~ 2004. 10

자료: <http://youthpanel.work.go.kr>

라. 관리체계

산업·직업별 고용조사의 부가조사형태로 2001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매년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면접타계식 설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전화조사도 병행한다.

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부설기관인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총괄하고 데이터 관리 및 조사보고서를 발간하며 실사업무는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와 한국산업

입력공단 지방사무소의 직업상담원이 진행한다.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담당하고 있다.

5. 한국 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가. 개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며, 조사목적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대표성을 갖는 청년층의 교육관련 정보를 충분히 생성하면서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관계를 보다 밀도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04년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2차년도 조사까지 진행되었다.

나. 표본

대상은 중학교 3학년생(2,000명)과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2,000명),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2,000명)이다. 이들 조사 학생의 학부모와 담임선생, 학교행정가를 동시에 조사한다.

표본추출은 1차 웨이브에서는 1단계에서 전국을 지역별로 층화(stratification) 하고(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유형별로 층화), 2단계에서 지역별 학생수 비중에 따라(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유형별 학생수 비중에 따라)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 및 학생을 추출하는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한다. 모집단은 전국의 시읍면지역에 위치한 31명 이상의 3학년이 있는 4,209개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이다.

다. 조사

학교, 학생, 가구 설문지로 구성되며, 학교설문지는 일반현황, 학생평가, 담임교사, 일반적 사항을 조사한다. 학생설문지는 학교생활, 가정생활, 학업성취, 진로계획, 진로지도, 재학중 근로, 자아관·직업관, 일반적 사항을 조사하며, 가구설문지는 가구원현황, 생활환경, 교육환경, 경제활동 및 자기개발, 가구소득을

조사한다. 기존의 종이와 연필을 이용한 조사에 대신하여, 국내 최초로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를 통한 조사 방식을 도입하였다. 학생과 담임선생, 학교행정가를 먼저 1:1 면접타계식으로 조사하고, 여기에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학부모를 찾아가 1:1 면접타계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생의 학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관리체계

조사의 진행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협조공문을 대상학교로 발송하고 방문하여 조사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차기년도 표본의 *freshening*을 시도하며, 조사대상 학생의 라이프사이클이나 당시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6. 최근 시작된 기타 패널조사

가. 한국복지패널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주관하여 2005년 1차년도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의 목적은 인구의 동태적 변화, 생활수준의 변화, 복지욕구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전국민의 삶의 질 실태와 변화를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로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 평가에 이용가능한 종단적 데이터베이스의 개발로 계층별 소득변화 등을 장기간에 걸쳐 역동적으로 분석하며,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는 전국적 대표성을 갖는 표본의 구축으로 농어촌 지역의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를 심층 파악한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가계소득 및 주거생활, 개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거주지 및 인구이동, 생활만족도, 사회복지욕구,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이용, 사회보험서비스 수급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나.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국민연금패널조사: National Pension Panel Survey)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관하며, 2005년 1차년도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의 목적은 한국인의 퇴직 전·후의 생활수준에 대한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퇴직준비상황, 연금이 저축과 근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노후소득의 원천이 될 국민연금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고령화 대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사내용은 고령자의 퇴직계획, 노후소득원, 고용, 지출과 소득, 자산, 가족구조, 가족간 이전, 건강, 주거 등에 대하여 다루며, 50세 이상 가구원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단위는 가구단위, 세대단위, 개인단위로 이루어지며 가구단위에서는 가구원의 인적사항, 주거상황, 지출과 소득을 다룬다. 세대단위에서는 세대의 소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세대의 보유자산과 부채, 상속관계, 가족관계를 다룬다. 개인단위에서는 근로활동 유형에 따라 조사내용이 달라지며 직장근로자용,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용, 비취업자용으로 나누어진다. 일자리, 근로능력, 근로경력, 사회보험, 퇴직금, 구직활동, 건강, 은퇴, 노후준비에 대하여 다룬다.

다. 고령자 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주관하며, 노동부의 고용보험연구사업비의 지원으로 2005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06년 1차년도 조사가 시작될 계획이다. 조사의 목적은 고령자의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인 삶의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자료를 구축하여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패널자료를 구축함으로써 다른 국가와의 고령화 현상과 추이를 비교분석하여 고령화를 대비하는 국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45세 이상의 중·고령자이며, 12,000명 정도의 표본을 구축할 것이다. 조사내용은 인구학적 특성, 노동시장의 특성, 건강 및 보건, 개인 심리, 자산 및 소득, 주거,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 다룬다. 조사는 HRS

나 SHARE와 같이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방식을 사용한다. 특히 이 조사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Ohio State University) 인적자원연구센터(CHRR; Center for Human Resources Research)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할 예정에 있다.

제2절 해외의 패널조사 동향

1. 미국: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

가. 개요

존슨(Johnson) 대통령 재직시 빈곤에 대한 전쟁의 일환으로 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OEO)는 통계국으로 하여금 이 빈곤에 대한 전쟁이 국민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를 평가하게 하였다. 소위 ‘Survey of Economic Opportunity’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1966년에 3만 가구를 조사하였으며 이 조사는 1967년에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국민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OEO는 미시간대학 부설 Survey Research Center(SRC)로 하여금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SEO 표본으로부터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약 2,000가구를 추출하여 계속 조사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SRC 소속의 모건(Morgan) 교수는 이 연구가 중산층 및 부유층까지도 포함하여 전체 미국인들을 대표하는 연구가 되게 하기 위하여 SRC가 가지고 있는 표본조사 틀로부터 새로운 대표표본을 추출하여 기존의 SEO 표본에 추가시켰고 이 연구의 이름이 PSID이다.^{주4)}

주4) 패널연구에서는 표본들이 1차년도 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하여도 계속 대표성을 갖게 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패널표본이 어느 시점에서든 항상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은 첫째, 1차년도에 임의적으로 추출된 표본가구들을 빠짐없이 조사해야 하며(100%의 응답률), 둘째, 최초 표본가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매년 조사되어야 하며(0%의 이탈률), 셋째, 표본가구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모집단의 변화를 100% 모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에 관련된 예를 들면 출생, 사망 등에 의한 인구의 변화, 결혼, 이혼 등에 의한 가구수의 변화 등이 표본에 의해서도 그대로 포착되도록 표본관리 및 추적원칙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실행한 연구 중의 하나가 PSID이다.

PSID는 어느 시점에서든 모든 연령층에 대하여 미국의 가구와 개인들을 대표하며, 고용, 소득, 인구학적인 정보에 대한 연도별(때로는 월별) 시계열 데이터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세대로부터 직접 취득한 성인들에 대한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 유년기뿐 아니라 그들이 성년이 된 후에도 획득한 정보, 가구내의 모든 어린이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들을 포함하여 세대간을 걸쳐 광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또한 건강, 부, 저축, 친족관계 등의 다양한 보충적인 주제들을 포함시켰으며, 이웃환경, 건강과 사망 등에 대한 특수 목적의 연구주제들을 포함시켰으며, 연구시작년도인 1968년도부터 종·횡단면적인 데이터를 계속 검토하고 기록해왔다.

나. 표본

PSID의 최초 표본은 2개의 독립적인 표본들로 구성되어있다. 하나는 군대와 감옥, 정신병원 등을 제외한 생산가능 인구에 대한 횡단면적인 대표표본을 다단계층화추출 방법에 근거하여 추출한 표본이며,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표본이다.^{주5)} 이 횡단면적인 표본은 SRC에 의해 추출되었고 종종 SRC 표본이라 불린다. 이는 등확률표본으로 1968년에는 2,930가구들을 성공적으로 면접하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표본은 PSID가 SEO 표본으로부터 추출한 1,872가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SEO 표본으로 불리기도 한다. SEO 표본은 표준도시 통계지역(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 SMSAs)과 남부지역의 비표준도시 통계지역(non-SMSAs)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이는 확률 표본이다.

최초 PSID 가구들은 1967년도의 미국 가구들을 대표하는 확률표본을 구성한다. 어느 시점에서든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도 이 표본이 대표성을 갖게 하기 위해 PSID는 다음의 표본추적원칙을 세웠다.

기본원칙은 1차년도의 표본가구들에 나타난 18세 이상의 가구(다시 말해 군대, 감옥, 기숙사 등의 가구가 아닌 기관들을 제외한) 구성원들을 PSID ‘표본

주5) PSID는 1968년도 최초 표본 구성원의 25세 이하의 자녀 및 양자, 양녀로서 군대, 대학기숙사 등의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표본 구성원으로 분류하였다. 그들은 그 기관을 떠나 자신들의 가정을 구성한 후에는 면접되었다.

구성원'들이라 칭하고 이들을 추적 조사한다. 이들 중 면접대상은 18세 이상으로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이다. 만약 18세 이상의 '표본구성원'이 가구에 있지 않고 군대, 감옥, 기숙사 등의 기관에 들어갈 경우는 이 사실을 그들이 떠난 가구에 기록 보존한다. PSID는 표본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은 가구 내에 동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편의상 동거인이라 부름)도 조사한다. 이러한 과정은 모집단에서의 가구변화과정을 모방하여 표본이 시간을 초월하여 동태적으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최초의 표본가구들로부터 생겨난 아이들이 성장하여 새로운 PSID 가구들을 형성하고 최초의 PSID 가구들이 이혼 및 재혼을 통하여 별도의 PSID 가구들을 만들어냄에 따라 가구 수와 개인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다. 조사

조사방식은 1968년~1972년까지는 직접면접방식을 취했으나, 1973년부터는 전화가 없거나(매년 약 500명) 특별한 이유로 전화면접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표본구성원은 비용절감을 위해 전화면접을 시행하였다(표 2-3 참조). 또한 비용절감과 전화면접조사의 한계인 장시간 면접의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질문지의 내용을 조정, 축소함으로써 면접시간을 단축시켰다. 직접 면접시에는 약 1시간 걸리던 것이 전화면접실시 이후 평균 20~30분 소요되었다.

<표 2-3> PSID 조사방법의 변화

연도	조사방법
1968~72	면접조사(기장조사)
1973~90	전화조사
1991~93	컴퓨터보조전화조사(CATI ^{주6)} 로 점차 전환
1994~현재	컴퓨터보조전화조사(CATI)와 컴퓨터보조직접면접조사(CAPI ^{주7)} 로 조사

주6) CATI(Computer Added Telephone Interview): 컴퓨터에 미리 입력된 조사대상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컴퓨터가 임의로 전화를 걸고 전화통화를 통해 들은 응답결과를 면접원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

주7) CAPI(Computer Added Personal Interview): 조사대상자가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응답하는 방법

〈표 2-4〉 PSID의 핵심조사항목

구분	내용
소득원천 및 소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구성원들의 소득 · 전문업 및 상업 소득 · 임대소득 · 신탁 및 로열티 · 각종 사회보장제도 소득 · 직장의 비금전적 소득 · 사업소득 또는 농업소득 · 농업 및 조경업 소득 · 주식배당 · 연금 · 퇴직금 · 이자 · 위자료 · 육아지원금 · 친척·친지들로부터의 보조금
빈곤	· 가구 빈곤상황
양식과 주거면에서의 공공지원	· 식권 사용실태
기타 재정문제	· 주거와 관련된 공공지원(공공주거사업대상자 여부, 임대대 · 연방세 납부 금액 · 자가 및 임대 이외의 거주에 대한 재정지원
가족구성 및 인구학적 통계	· 결혼행위 및 혼인상태 : 양자, 양녀 · 자녀수 : 인종, 인종
고용에 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당 근로일수 · 비경제활동일수 · 자영업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병구완으로 빠진 일 · 파업한 주의 수 등에 대한 월간 및 연간정보 · 주직장과 부직장에 대한 직종 및 산업 · 공무원 여부 · 주직장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여부 ·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 · 근로정환: 중 경험연수와 현직장에서의 경험연수 · 고용 상황 : 구직활동 여부와 방법 · 이전의 고용상황 변화 - 고용주가 변동된 경우 - 고용주는 불변이나 직위가 변동된 경우 - 직종 및 산업의 변동 - 각 고용주하에서 일한 시작과 끝의 보수와 작업량 - 고용주를 바꾼 이유 · 실업기간 · 휴가(주 단위) · 주간근무시간 수
가사종사 시간	
주거	· 주거하는 곳의 구조와 규모 : 소유상태(자가, 임대) · 소유한 집의 자산가치 : 남아있는 모기지(mortgage) 액수
지역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동안의 이사(언제와 왜) · 장래 이사계획(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왜) · 주거하는 곳의 주와 카운티 · 가구주가 성장한 곳 · 가구주가 살아왔던 모든 주들 · 가구주의 전직을 위한 이사 여부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사회·경제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유과정 · 인종 및 민족 · 부모의 빈곤상황 · 부모의 교육수준 · 아버지의 직업 · 자녀수
보건, 종교, 군복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구성원들의 건강상황 및 장애상태 · 종교 · 군복무 경험
국가단위의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률 · 노동주요 상황 ·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자료: 신동균, 『미국 패널 데이터의 현황과 시사점』, pp.22~23 재인용.

PSID의 핵심조사항목은 소득, 빈곤, 가족구성, 고용, 가사, 주거,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다. 그 밖에 연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를 추가항목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교통이용 상황, 육아, 부(wealth), 보건, 그리고 친구, 친지사이의 시간 및 금전의 이전 등이 있다.

PSID 패널데이터 형성 초기의 조사항목에는 경제적·인구학적 분석에 초점을 두고, 크게 전체와 각 가구구성원의 소득원천과 소득액, 취업상태, 가구구성원의 변화, 거주환경 등에 대한 실제적인 세부항목들이 포함되었다.

〈표 2-5〉 PSID의 추가주제

연도	추가된 주제 내용
1968~72 / 1977~87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요금
1969~86	· 통근 수단
1968~72	· 거주 및 이웃 특성, 태도 및 행동양식, 직장외에 스스로 하는 활동, 저축, 가족구성원들의 장애상태, 임신 및 가족계획, 육아
1972	· 성취, 동기, 인식력(문장력 테스트)
1973~74	· 육아
1975	· 이웃에 대한 만족과 주거문제, 태도, 가구주의 장애상태
1976	· 아내에 대한 면접 - 고용경험 - 임신과 가족계획 - 직업의 특성(요구되는 직업훈련 포함) - 노동력 참가 실태 - 육아 - 태도
1977	· 육아, 가구주의 장애
1978	· 직업훈련, 직업을 갖게 된 방법, 은퇴 계획 및 경험, 가족구성원들의 장애상태
1979	· 직장외에 스스로 하는 활동, 육아, 인플레이션의 영향, 저축, 은퇴계획, 가구주의 장애상태
1980	· 위급할 때 시간적·금전적 도움, 식권·사회보장소득 수혜자격 여부, 인플레이션의 영향, 가구주의 장애상태, 확대가족, 저축
1981~83	· 은퇴계획, 실업기간 및 노동력으로부터의 이탈기간, 연간 입원상황, 가족구성원의 장애 및 병
1984	· 부(여러 자산의 가치), 금전의 소득, 연금계획과 연금 수혜권, 은퇴계획, 유산, 저축, 직업훈련, 실업기간 및 노동력으로부터의 이탈기간, 가구주와 아내의 장애 및 병

연도	추가된 주제 내용
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내에 대한 면접 - 출산에 대한 회고 - 양자, 양녀에 대한 회고 - 대리부모 역할에 대한 회고 - 결혼내역에 관한 회고 - 전 교육과정에 대한 회고 - 육아, 가사 - 가족계획 - 가구주, 아내의 장애와 병 - 직업훈련
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가족구성원들의 건강(일일활동 상황, 연간입원상황, 키와 몸무게, 흡연, 운동)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 가족들간의 연계(부모의 재정상태, 부모의 건강과 시간 및 금전적 지원)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러 가지 자산의 가치), 저축행위(1984~89)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자들의 건강과 의료행위

자료: 신동균, 『미국 패널 데이터의 현황과 시사점』 pp.23~24 재인용.

라. 관리체계

PSID는 체계적인 조직 아래에서 운영되며, PSID 운영을 위해 행정팀, 조사현장 운영팀, 자료 처리팀, 자료 분석팀 등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PSID 패널조사는 프로젝트책임자의 총괄하에 각 팀의 역할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면접원들과 실사감독관이 데이터 수집에 참여한다. 실사감독관들은 면접원들을 선발하여 교육시키고 면접과정을 감독한다. 또한 면접의 질과 완결성, 정확성 등을 검토하면서 면접원과 응답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들을 해결한다. SRC 사무국은 감독관들과 면접원들의 본조사 수행전에 사전조사를 통하여 실제의 면접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며, 본조사에서 감독관들 및 면접원들로부터 질문에 답하며, 면접자료들의 배포 및 수거를 맡는다. PSID 참모들은 면접원들의 선발 및 교육을 도와주고, 응답자들의 선정 및 면접에 관한 실사사무국으로부터의 질문에 답하며, 실사사무국으로부터의 표본통제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검토한다.

표본의 횡·종단면적 대표성은 패널데이터의 생명과도 같다. 최초의 표본가구들을 계속해서 추적조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응답자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어떤 종류의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이는가의 문제이다. PSID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이사한 표본가구들을 추적하고 응답을 거부하는 가구들을 설득하고 추적한다. 그리고 각 응답자들에게 \$55를 지급하

는데 이는 면접에 응해준 것에 대한 보상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변경카드를 반송하는데 드는 경비이다. 매년 분석된 PSID 데이터의 내용들과 이들이 정책토론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요약한 책자를 모든 응답자들에게 우송하고, 응답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득하는 내용의 개별편지를 보낸다. 전화면접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면접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특별 우편접촉으로 응답자들이 이사하는 경우 변경된 주소를 신속히 포착할 수 있게 한다.

2. 미국: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NLSY 97)

가. 개요

NLS는 미국의 대표적인 노동관련 패널조사로 1966년에 시작되어 미국 노동성의 노동통계국(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CHRR(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에서 주관하고, 시카고 대학의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서 그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초 조사대상은 45~59세의 남성, 30~44세의 여성, 14~24세의 젊은 남성, 14~24세의 젊은 여성 등의 4집단으로 하였다. 각 집단마다 각각의 그룹은 일정한 시기에 태어난 각 그룹에 해당하는 모든 미국인을 대표하여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 표본집단에서 얻어진 결론이 모든 미국인에 대한 결론이 되도록 선택되었다.

NLS의 일차적인 목적은 각 집단에 대한 노동경험(현재의 노동력, 고용상태, 과거의 노동경험, 현재와 마지막 직업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밖에 노동시장 참여에 잠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데, 여기에는 교육·훈련에의 투자, 거주지의 지리학적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노동시장 여건, 부모로부터의 공식적인 지원, 현재의 결혼상황 및 가족부양 책임, 일과 관련된 태도 및 열망, 건강상의 문제나 직업차별 등 잠정적으로 노동참여를 제한하는 요인 등이 포함된다.

초기에는 4개의 집단에 대해 5년 동안 조사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높은 퇴직률과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초기 4개 집단의 조사를 계속할 것과 청소

년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하기로 하여 1979년부터 14~22세 사이의 젊은 남녀 12,686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패널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NLSY이다.

NLSY의 조사내용은 노동부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다양화되었다. NLSY79가 해를 거듭하면서 패널집단이 노령화됨에 따라 새로운 집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NLSY97로서 가족 및 지역사회 배경, 교육경험 등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였다. 또한 1986년부터 NLSY 조사대상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Children of the NLSY가 실시되고 있다.

NLSY자료는 ‘고용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소’(Office of Employment Research and Program Development)에 보존되어있다. BLS는 NLS의 각 집단의 관리, 설문도구 설계에 대한 정보공유, 자료보급, 사용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CHRR 및 인구조사국(Census Bureau)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NLSY79 및 NLSY79 Children에 대한 자료수집과 집단관리의 계약을 시카고 대학의 NORC와 체결하였다.

〈표 2-6〉 NLSY의 구성

대상그룹(집단)	연령	표본 크기	시작 년도	최근 조사	조사 횟수	현재 상태
Old Men	45~59세	5,020	1966	1990	13 ¹⁾	종결
Mature Women	30~44세	5,083	1967	2001	20	계속
Young Men	14~24세	5,225	1966	1981	12	종결
Young Women	14~24세	5,129	1968	2001	21	계속
NLSY79	14~21세	12,686	1979	2002	20	계속
NLSY Children	출생~14세	-	1986	2002	9	계속
NLSY Young Adult ²⁾	15세 이상	- ³⁾	1994	2002	5	계속
NLSY97	12~16세	8,984	1997	2002	5	계속

주: 1) 1966~83년 기간 사이에 12번의 조사 실시, 1990년 조사는 가구원 및 고인의 친척에 대해 이루어졌음.

2) NLSY79 Young Adult는 초기에는 NLSY79 Children 표본의 일부로서 조사되었으나 1994년부터 15세 이상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조사되었음. 1988년 21세 이상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음.

3) NLSY79 Children과 NLSY79 Young Adult의 표본크기는 NLSY79 응답자의 가정에 태어난 아동들의 수에 따라 달라짐. 이 아동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표본크기는 생략하였음.

자료: CHRR(2003), NLSY79 User's Guide p.5의 Table 1.2.1 인용.

나. 표본

표본추출은 먼저 가구를 추출한 후 가구내에서 적격한 가구원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구의 표본추출과정을 보면 먼저 NORC의 1990년 national sample로부터 147개의 PSUs(non-overlapping primary sampling units)를 추출한다. 그리고 PSUs로부터 1,748개의 샘플이 추출되는데, 이 샘플에 있는 모든 가구인 96,512가구가 대상가구로 확보된다. 이렇게 가구표본이 추출되면 이 가구에 대해 가구원에 대한 적격한 개인을 추출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표 2-7> NLSY 97 표본 크기 및 유지율

round	1		2		3		4		5		
표본크기	8,984		8,386		8,209		8,081		7,883		
횡단면	부가	6,748	2,236	6,279	2,107	6,173	2,036	6,055	2,026	5,919	1,964
원표본	유지율	-		93.3		91.4		89.9		87.7	

자료: CHRR(2003), NLSY79 User's Guide p.22의 Table 2.2.1 인용.

NLSY97의 핵심이 되는 횡단면표본은 미국에 사는 1980년 1월 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청소년의 대표표본이다. STP(Department of Defense Student Testing Program) 표본과 ETP(Department of Defense Enlistment Testing Program) 표본으로 구성된다. 부가표본은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 NLSY97 black & hispanic 과대표본과 Department of Defense STP 표본, Department of Defense ETP black & hispanic 과대표본이다.

다. 조사

조사의 방법은 CAPI, 질문지(Paper), 대리(Proxy), Gatekeeper, 전화조사 등이 상황에 맞게 병행되었다. NORC본부는 간단한 공식적인 우편엽서를 각 응답자에게 발송하여 인터뷰가 다가왔음을 알리고 응답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표 2-8〉 NLSY Round 별 조사 기간

round	1	2	3	4	5
기간	1997년 1월 ~ 10월	1998년 10월 ~ 1999년 4월	1999년 10월 ~ 2000년 4월	2000년 11월 ~ 2001년 5월	2001년 11월 ~ 2002년 5월

NLSY97의 조사내용은 1997년에 특정연령인 12~16세 청소년으로서 전체 미국인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설계하여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이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주된 내용은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그리고 성년이 되어가는 과정의 특징 파악과 청소년의 노동시장 행태, 교육경험, 가족과 지역사회 배경, 부모에 대한 조사(round1), 청소년기의 경험이 경력에 미치는 영향, 정부 프로그램의 참여, 가족의 형성에 대해 파악하여, 다른 NLS 집단과 비교하였다.

〈표 2-9〉 NLSY 청소년용 질문지

section	세부내용
information	rd. 1의 유효한 청소년의 자료, 가구명부, 비거주자 명부
household information	rd. 1 이후 청소년 가구 구성원 정보의 확인과 업데이트
schooling	현재의 학교교육과 교육환경에 대한 정보
peers/opportunity sets	rd. 1에서 청소년의 활동목록, 각각의 활동에 참여하는 동료들의 비율 추정
time use	rds.1-3에서 다양한 활동들에 하루·주 당 투입하는 시간
employment	프리랜서 고용을 포함한 14세 이후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정보
training	정규교육 외에 참여한 훈련 프로그램
health	건강상태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self-administered	민감한 질문은 청소년이 직접 작성; 가족과 이웃의 환경, 부모와의 관계, 사춘기, 데이트 또는 성적 행동, 임신과 낙태, 자신에 대한 태도, 물질의 이용, 범죄 또는 비행 행동
marriage	청소년이 생각하는 결혼이나 결혼과 유사한 관계
fertility	생물학적 아이들(biological children)에 대한 정보
child care	rd. 5에서 아동보호 준비와 아동보호 이용에 대한 세부적 정보
program participation	청소년이나 그들의 배우자(파트너)가 참여했던 원조 프로그램
income/ assets	청소년과 그들의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
experience	rd. 1, 4, 5에서 미래의 어떤 지점에서의 그들의 상황에 대한 예측

자료: CHRR(2003), NLSY79 User's Guide p.11의 Table 1.4.1 인용.

NLSY97의 조사에 대한 사례비는 1~3 round에서 응답자 10\$, 부모는 1 round에서 10\$을 참여 사례비로 주었다. round 4에서 관리자는 응답자에게 10\$, 15\$, 20\$의 다른 인센티브로 사례비를 지급하였으며, 또한 이때 응답자의 1/2은 미리 사례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1/2은 인터뷰 후에 사례비를 지급한 결과 사례에 따른 round 4의 자료에 차이가 있었다. 5 round에서는 모든 응답자에게 20\$을 지급하였다.

라. 관리체계

관리의 책임은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와 agency of the U.S, Department of Labor에서 지고 있으며, 자료의 분석과 출판 책임은 BLS(고용과 실업, 물가와 생활상태, 보수와 근로조건, 생산성, 직업안정성, 건강, 경제성장과 고용계획)에서 담당한다. BLS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CHRR)와 조사설계, 자료보급, 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계약하였다. Census Bureau는 BLS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집단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 있으며, BLS는 NLSY79, NLSY79 Children의 자료수집을 시카고대학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NORC)와 도급계약(subcontract)하였다. 프로젝트의 진행은 NLS Technical Review Committee의 도움을 받는데, 질문지 설계, 부가조사 주제, 가능한 조사활용, 방법론적인 이슈, 자료배포와 이용자 서비스 등에 대하여 제안한다.

3. 영국 가구패널조사: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BHPS)

가. 개요

1991년 9월에 시작한 영국의 가구패널조사(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BHPS)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추세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21세기 영국의 정치, 사회, 경제 구조를 예측함으로써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 조사는 매년 실시되

며, 2004년 14차년도 조사(wave 14)가 진행되었다.

BHPS의 주요 목적은 영국의 개인 및 가구 단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경제적 변수 범위와 관련한 원인 및 결과와 변화를 확인하고 유형화하고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BHPS는 Essex 대학에 있는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ISER) 내의 ESRC Research Centre on Micro-social Change와 UK Longitudinal Studies Centre에서 주관한다.주8)주9) ISER는 조사의 기술적 측면 즉, 조사 설계, 질문지 발전, data 유효화 및 가중치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실사는 민간조사기관인 NOP(National Opinion Poll) Market Research Ltd.가 1991년부터 수행하고 있다.주10) BHPS의 실사는 두 단계로 수행되고 있다. 4월에서 5월까지 1,000명을 표본으로 한 예비조사(pilot survey)가 실시되고, 여기에서 질문 내용들이 검토되었다. 본 조사는 9월에서 12월까지의 4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응답가구는 £ 10에 해당하는 선물증서(gift voucher)를 받는다.

BHPS의 주된 활동들은 전체적으로 UK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에 의해 재정 지원을 받으며, 북아일랜드의 조사는 Eurostat에 의해, 11~15세 조사는 The UK Health Education Authority에 의해 지원 받는다.

BHPS에는 소득, 소비, 노동시장활동, 건강, 훈련, 연금, 주거상태 등 경제 활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문들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BHPS는 광범위한 사회 과학 분야를 위한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학제간 연구를 지지하기 위한 연구 자원으로써 설계되었다.

BHPS는 약 5,000가구 내에서 10,000명 이상 면접하여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띤 표본으로 16세 이상 성인 각각에 대해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 1991년 1차년

주8) 1999년에 만들어진 ULSC(UK Longitudinal Studies Centre)는 1989년 ESRC의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ESRC Research Centre on Micro-Social Change의 연구 자원 요소의 연속선에 있는 것이다.

주9)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ISER) 내에는 ㉠ ESRC Research Centre on Micro-social Change, ㉡ UK Longitudinal Studies Centre, ㉢ European Centre for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ECASS) 등의 Centre들이 있다.

주10) 북아일랜드에서의 현장 조사는 NISRA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도 조사에 면접을 성공한 가구수는 5,130 가구로 가구구성원 중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조사되었다.

나. 표본

BHPS은 5,000가구 이상에서 전체 대략 10,000명의 개인을 면접하는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띤 표본으로 16세 이상 성인에 대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도록 설계되어졌다. 그리고 같은 개인들이 원가구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면 다음 년차 조사에서 다시 면접되어지며, 가구에 새로 들어온 모든 성인 또한 면접되어 진다. BHPS 1차년도 조사의 첫 표본은 우편번호 주소록 파일(Postcode Address File: PAF)로부터 추출한 8,167개로 구성되었다. 면접은 그 주소에서 발견된 모든 개별 가구에 시도되었다.

BHPS에는 1차년도 조사 이후에 추가로 만들어진 3가지 표본 ① ECHP(유럽공동체가구패널) 하위 표본, ②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확대 표본 그리고 ③ 북아일랜드 확장 표본 등이 있다.

첫째, 7차년도 조사부터 BHPS는 UK의 「ECHP(유럽공동체가구패널)」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ECHP 조사는 EU 안에서 수입, 삶의 조건, 주거, 건강, 노동 등에 대한 비교가능한 미시 수준(개인/가구)의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데, BHPS은 ECHP를 도입하였고, 이에 필요한 몇 가지 질문을 변경 및 첨가하였다.

둘째,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확대 표본이다. 스코틀랜드 확장 표본은 9차년도 조사(1999) 때 ESRC에 의해 재정을 지원받아 추가되었다. 스코틀랜드 북쪽 지역을 포함하여 1,500 가구로 확대되었고, 이렇게 확장된 표본에 대해 국가 정체성이나 정부 구조에 대한 태도 등의 새로운 질문들이 추가되었다.

셋째, 북아일랜드 가구 패널조사(NIHPS)로 북아일랜드에 있는 새로운 표본들이 11차년도 조사(2001)부터 첨가되었다. 이 표본 조사를 위해 ESRC와 북아일랜드 정부 부서에서 함께 기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북아일랜드에서의 현장 조사는 NISRA에 의해 수행되었다.

패널 탈락을 최소화하여 지속적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성

원들이 영국 내 어디로 이사 가든 따라 다니고, 원패널구성원(OSMs)에 의해 형성된 가구의 새로운 구성원을 패널 안에 포함시킨다. 또한 효과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면접자들에게 비디오 시청각 훈련을 실시하고, 특별 보고서 및 편지 등을 통하여 패널 구성원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한다.

다. 조사

BHPS 질문지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주제는 가구동학(動學), 노동시장, 소득과 부의 분배, 주거, 건강, 그리고 사회경제적 가치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10〉 BHPS의 주요주제

구분	내용
가구動學	· 가구구조의 변화: 가구형성과 해체의 원인, 결과 · 가구경제 의사결정 · 가구소비양식
노동시장	· 직업이동, 노동시장 구조
소득과 부의 분배	· 생활수준의 변화 추이 · 생활주기 효과 · 소득과 가족구성 · 부의 축적과 저축
주거	· 주거비용 · 주거이동의 원인 및 결과
건강	· 건강과 가구경제와의 관계 · 가구원의 건강상태와 질병 종류 · 의료서비스의 이용실태와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불평등 정도
사회경제적 가치	·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치(행위)와의 관계

BHPS 질문지는 가구용 질문지, 개인용 질문지, 자기기입 질문지, 대리질문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구용질문지는 가구원 중에서 주거상황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구원이 응답하며, 개인용 질문지는 만16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이 응답한다. 자기기입 질문지는 면접조사를 마친 모든 가구구성원이 기입하며, 대리질문지는 선원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있는 가구원이나 고령으로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대신 응답하는 질문지이다. 대리질문지는 응답을 거부한 경우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최소

한 4번이상의 접촉시도가 있어야 허용된다.

BHPS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는 종이질문지(paper and pencil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면접자가 면접타계식 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1994년부터 오디오테이프를 이용한 자기완성 질문지가 11세~15세 아동에게 도입되었다. BHPS는 9차년도 조사 이전에는 지면을 통한 면접이었으나, 9차년도 조사에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BHPS 질문지의 질문항목은 핵심 요소, 순환 요소, 가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매년 동일하게 조사되는 질문항목을 ‘핵심’(core) 질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조사의 심장부이며, 조사 목적인 순수한 변화를 연구하도록 도와주는 부분이다. 주거, 소비, 이웃특성, 가구형성, 가사노동, 교육 및 훈련, 노동시장 행동, 현재직업, 일년간의 직업력, 건강, 활동제한, 건강서비스의 이용, 사회·정치적 가치, 사회참여 및 네트워크, 수입을 다룬다. 둘째, 일부 변수는 격년 혹은 순환주기(2~3년에 한번)에 따라 조사되는 주제인데 이를 ‘순환’(rotating) 질문이라고 한다. 도덕성 및 종교에 대한 태도, 삶의 만족도, 정부의 역할 및 책임, 환경 등을 다룬다. 셋째, 일부 질문군은 패널조사 과정에서 딱 한번 물어보는 ‘비핵심 혹은 가변 구성요소’(non-core or variable components)이다. 통상 일회적으로 질문되어지는 ‘당신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와 같은 질문이다.

〈표 2-11〉 BHPS 개인용 설문지의 내용

영역	내용
이웃과 개인의 인구학적 정보	출생지, 집과 이웃에 대한 주거 만족도, 이사 이유, 인종, 교육 배경과 학력, 최근 교육·훈련, 지지하는 당, 혼인 상태에 있어서 변화
현재 고용	고용 지위(실업 및 구직, 자영업, 민간 부문·공공 부문 등), 사업 특성/업무, 근무지, 직장 규모, 직장까지 걸리는 시간과 교통 수단, 근무년수, 근무 시간/초과근무시간, 노동조합 소속 여부, 전망과 훈련 및 야망, 퇴직금/연금 체계, 일에 대한 태도, 인세티브, 급여, 공제, 보육 시설, 구직 활동, 경력 기회, 보너스, 급여 관련 활동
재정	급여, 수단, 연금, 집세, 저축, 이자, 배당금 소득, 연금 계획, 조축 및 투자, 물질적 풍요, 소비자 신뢰, 내적 이전, 외적 이전, 개인 지출, 배우자 역할, 가구 지출, 육아, 청구서, 일상 소비, 자동차 소유 및 사용, 차의 가치, 면접 특성, 기타
건강과 보살핌	개인 건강 상태, 고용 제약, 의사 방문 빈도, 병원 이용, 건강보험·복지 서비스 이용,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의 진단, 건강 검진, 흡연, 친척이나 가족의 보살핌, 타인 보살핌에 드는 시간, 사적인 건강 보험, 일상생활 활동 가능성

순환	건강과 보살핌	건강 보호를 위한 비용/지불에 대한 태도
	가치와 의견	부의 분배, 사회 정의, 정부의 역할과 책임, 환경, 가구 지출의 관리, 지도자, 종교, 노동조합, 사회적 계층, 사회적 이해집단 활동에의 참여 여부, 레저 활동, 국가 정체성, 영국 정부의 자치와 지방 권한
가변	일생 혼인 지위 변화 (w2)	혼인 횟수, 혼인 날짜, 이혼/ 과부/ 별거 날짜, 혼전 동거
	일생 임신과 입양 경험 (w2) & w8	태생일, 사망일, 입양일
	일생 동거 경력 (w2) & w8	시작과 끝날, 파트너 수
	가치와 의견	자녀에 대한 열망, 중대한 사건, 삶의 질
	일생 고용의 변화 (w3)	직장 첫날과 끝날, 노동 지위, 분야, 직무의 특성
	부와 부채 (w5, w10)	투자와 저축, 채무
	건강과 보살핌	아동 건강, 다른 건강척도 : SF36(w9)
	이웃 특성 (w8)	지역사회와 이웃, 지방 복지서비스의 질
	범죄 (w7, w12)	지역에서의 범법적 활동, 범죄 인지 정도
	컴퓨터와 전산 처리 (w6,7,12)	소유 및 이용
	고용 (w9)	국가최저임금, 노동 억제 요인, 노동 정향
	노화와 은퇴 (w11)	은퇴 결정, 삶의 질, 가족 지지망
	평생 고용지위 변화 (w2)	시작과 끝나는 날짜, 고용 지위
	자녀와 양육 (w12)	학교 선택, 교육적 열망, 양육 스타일

라. 관리체계

Centre는 현장조사(Field Work)를 수행하도록 의뢰된 「NOP 사회·정치부(MAI의 일부)」와 함께 자료수집의 모든 측면을 긴밀하게 협업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결과 적절한 반응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되고 동의된 일련의 조사 절차를 수행한다.

NOP는 현장조사, 에디팅, 코딩, 데이터입력 뿐만 아니라 모든 조사도구의 설계에 대해 조언을 한다. 작업 설계, 면접자 지표의 산출물과 부가적인 브리핑 내용들의 설계 및 산출물 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Centre에 있지만 NOP는 스태프들에게 에디팅과 코딩 결정에 대해 조언해 주어야 한다. Centre는 현장조사

실무의 특수화 및 에디팅, 코딩 등을 통하여 데이터 품질 통제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가구패널조사에서 응답자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절차는 매년 계속되는 중요하고 복잡한 업무이다. Centre는 매년 조사를 위해 응답자의 주소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야 하며, 최신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응답자와 적어도 2가지 유형의 의사소통이 조사년도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9월 현장조사 전에 정확한 주거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과 응답자들에게 조사에 관한 중요성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면접 이후에 Centre는 「감사 편지 thank-you letter」를 모든 피면접자에게 보내는데 이때 ‘선물 바우처’와 ‘주소변경 카드’(이사할 의도가 있을 때 공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다음 년차 조사 전에, 「주소확인 카드」와 함께 결과물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모든 성인(거부자 제외)에게 보낸다. 면접자는 모든 주소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현장조사 기간에 앞서 점검이 필요한 주소를 확인한다. 반송용 봉투를 동봉한 주소확인 카드를 통해 응답자가 자신의 주소를 확인하고 이사 나간 가구 구성원의 주소를 카드에 기록하여 통지하도록 요청한다. 이는 현장조사 동안 면접자가 해야 하는 추적 업무의 양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각각의 주소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독일: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GSOEP)

가. 개요

1984년 처음 실시된 GSOEP(Sozio-oekonomische Panel)은 독일의 대표적인 가구패널조사이다. 옛 서독지역에서 먼저 시작된 GSOEP은 같은 개별가구, 개인, 가족들을 매년 조사하였고, 1990년부터는 옛 동독지역의 가구들을 포함하였다. 1994/95년에는 이민가구 역시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었다. 2003년에는 12,000가구의 약 24,000명 이상의 개인이 포함되었다.

GSOEP에는 개인과 가구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객관적인 생활조건 및 주관적인 삶의 질, 다양한 생활영역의 변화 등, 이를 기초로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매년 개인 및 가구

의 소득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GSOEP 자료는 이를 토대로 개인 및 가구의 생활조건상의 안정성과 변화 역시 분석할 수 있다.

GSOEP은 국립 경제연구기관인 DIW(Deutsch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에서 전체를 관할하고, 설문지 작성 및 기타 실무는 민간학술조사 전문기관인 「Infratest」에서 수행하고 있다.^{주11)} 전체 연구 및 조사비용은 독일 국립과학재단인 DFG(Deutsche Forschungs- gemeinschaft)에서 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DIW로부터는 연구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필요연구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GSOEP의 강점은 데이터 자체가 가지는 패널디자인, 모든 성인가구원을 조사하는 가구의 맥락, 독일 내부 지역간의 비교, 현 독일 내에서 외국인에 대한 가장 규모가 큰 외국인 패널데이터^{주12)}, 이민자에 대한 정보 등 이를 통한 연구의 가능성에 있다. 이를 기초로 GSOEP은 가구 구성, 직업 및 가족 일대기와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하며, 조사 주제별 양식에서는 사회 보장, 교육 및 훈련, 시간 할당, 가족 및 사회 서비스 등의 주제를 포괄한다. 이러한 GSOEP은 세계 최초의 가구패널조사인 미국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를 모체로 하여 출발하였지만, 설문지 형식이나 조사 기법상 PSID의 문제점을 보완한 데이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후 유럽 각국에서 실시한 가구패널조사의 모태가 되었다.^{주13)}

나. 표본

1984년초 조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GSOEP 원 표본(original sample)은 1983년에 구 서독지역에서 선정되었고, 이후 1990년 6월부터 구 동독지역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GSOEP에 의해 대표되는 모집단은 처음에는 서베를린을 포함한

주11) 독일의 경우 조사 주관기관과 실사 수행기관의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고 조사의 정도(精度)를 높이기 위하여 조사기록파일을 사용한다. 이 파일은 조사 기간 중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나 문제점을 기록한 파일로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토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며 부수적으로 조사방법을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다.

주12) 현재는 가구주가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혹은 구 유고슬라비아출신일 경우에 한해서 조사되고 있음

주13) 강석훈(1997)

서독지역의 거주 인구로 한정되었다가, 1990년 6월 이후 동베를린을 포함한 동독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독일 전체인구를 모집단으로 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패널데이터로 자리잡게 되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GSOEP은 조사 지역과 모집단을 확장해 나갔는데, 다음과 같은 7개의 하위 표본을 가지며 각각은 단계 무작위로 표집되었다.

〈표 2-12〉 GSOEP 하위표본

하위	특징	시작년도	N (가구)	내용
A	West-German	1984	4,528	가구주 국적이 서독 혹은 이하 5개국 제외한 외국
B	Foreigners	1984	1,393 (과잉표본)	가구주 국적이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C	East-Germans	1990	2,179	가구주가 국적이 동독 (조사 영역 확장)
D	Immigrants	1994/95	522	가구원 중 최소 한 사람이 1984년 이후 독일로 전입 (조사 모집단의 확장)
E	Refreshment sample	1998	1,067	모든 현존 하위표본을 커버하는 무작위 표본 (전체 모집단)
F	Innovation sample	2000	6,052	모든 현존 하위표본을 커버하는 무작위 표본 (전체 모집단)
G	High Income sample	2002	1,224	월 순가구수입 7,500 DM 이상

다. 조사

GSOEP 조사의 원칙은 표준화된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직접 면접타계식 (face-to-face) 개인 면접을 가구내 모든 16세 이상 개인에게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리 면접과 전화면접은 하지 않으며 조사원에 의한 설문지 작성(paper-and-pencil)을 원칙으로 하며 가구 면접은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다. GSOEP은 1984년부터 개인 및 직업 일대기, 혼인과 청년 일대기, 노동시장 진입, 개인의 사회적 배경, 이민 정보 등 대표적인 일대기 정보가 수집되었다. 이 자료의 목적은 여성노동 공급측정시의 출산정보 등과 같은 많은 다양한 분석을 위해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는 것과 직업력 또는 세대간 교육정도 등과 같은 독립분석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주요질문 주

제로는 인구학적 변수, 노동시장과 실업, 소득, 조세, 사회보장, 주거, 건강,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이 있다. GSOEP의 설문지는 가구용 설문지와 개인용 설문지, 비독일인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14)}

① 가구 설문지 (Household Questionnaire)

가구 설문지는 가구주(Head of household)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여기서 가구주라 함은 가구의 조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매년 조사 대상이 된다. 내용은 주거비용 질문과 17세 이하 자녀에 대한 부분,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 등이다.

② 개인 설문지 (Individual Questionnaire)

개인 설문지는 조사대상 가구 내에 있는 16세 이상 개인에게 행해지는 설문지로 내용은 최근 생활상황, 현재 고용상태, 작년의 활동, 작년의 수입, 건강 및 질병, 태도 및 의견, 시민권과 국적 등이다.

③ 청소년 설문지 (Youth Questionnaire)

청소년 설문지는 가구내 개인 가운데 17~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개인용 설문지를 보완하는 성격을 띤다. 청소년에 대한 자료들은 아동기에 대한 회고적 정보가 부모의 인생 역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다수의 분석을 가능하게 해 주고 세대간 분석 또한 가능해 진다.

④ 보충적 일대기 설문지 (Supplementary Biography Questionnaire)

보충적 일대기 설문지(Lebenslauf)는 18세 이상인 가구 구성원에게 청년기와 초

주14) 면접자는 각 설문지를 완성한 뒤에는 면접 방법(구두, 직접 기록 등)과 면접 시간, 기타 코멘트, 일련 번호, 면접 수행 일자, 면접자 번호를 기록하고 사인을 하는 등 ‘면접자 평가’를 작성한다.

기 성인기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개인 설문지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다. 시민권(citizenship)과 국적(origin), 아동기와 부모 가정, 15세 이후 학교, 직업 훈련, 임대, 취업, 실업 등을 한 연령, 교육, 직업과 경력 등에 대한 것이다.

⑤ 모자 설문지 Mother and Child Questionnaire

2003년에는 지난해에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한 설문지를 그들 엄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는 인생의 시작 시기에 있는 아동의 발달을 조사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 전년도 혹은 해당연도에 출생한 아이에 대한 간단한 설문지로 개인적인 경험과 자녀 발달을 다룬다. 그렇기에 임신 상태도 포함하여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다. 중심 주제는 아동 건강, 치료, 아동 발달, 부모 및 아동의 활동, 아버지 및 제3자의 아동 양육 및 지지 여부 등이다.

라. 관리체계

전체 가구구성원을 포함하는 패널 조사가 매년 대상자를 추적하는 기준은 선정된 목표 모집단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패널 조사는 이민을 제외하고 표적 모집단의 자연적인 인구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응답자가 면접에 대한 동기를 갖는 것은 조사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패널 응답자가 조사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에 알기 쉬운 이름을 붙인다. 모든 표본 응답자들은 GSOEP의 주 내용을 ‘독일에서의 삶’(Life in Germany)으로 알고 있다. 둘째, 응답자는 GSOEP 연구의 목적에 대한 삽화가 그려진 「정보 안내서」를 제공 받는다(표본 B 경우엔 안내서가 응답자 각자의 모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셋째, 응답자는 데이터 비밀보장에 대한 정보 용지(information sheet on data privacy)를 제공받는다. 넷째, 각 조사마다 현장 조사 완수 시에는 「감사 편지(a letter of thanks)」를 보낸다. 다섯째, 각 응답자에게 잘 알려진 TV 「복권(lottery)」 티켓을 제공한다. 여섯째, 1987년부터(4th West-Wave) 모든 패널 가구에 5~10 DM 상당의 「작은 선물(loyalty bonus)」을 제공한다.

조사 기관인 Infratest에서 만드는 ‘패널 기록철’(master file)은 현장 조사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파일에는 주소, 전화 번호, 면접 방법, 각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 있다. 조사 기관은 한 해 동안 면접 가구 및 개인의 주소가 변경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조사 기관의 주소 확인 작업은 조사 성공률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GSOEP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직접 대면 면접」이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조사를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지므로 시간경과에 따른 면접자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5. 캐나다: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SLID)

가. 개요

Labor Market Activity Survey(LMAS)는 캐나다 노동패널 조사의 기원으로 LMAS는 1986년~87년의 제1패널과 1988~90년의 제2패널로 구성되어있다. 이 조사의 주관기관은 Statistics Canada이다. 1993년 1월에 SLID 1차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1차조사는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고 면접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구학적, 개인적 배경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SLID는 개인 및 가족들의 노동시장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용을 질문하며 소득과 자산에 관한 질문도 하고 있다. 패널대상가구에 속한 16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조사하는 가구조사로 미국의 NLSY와 함께 대표적인 노동패널조사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6년마다 표본이 교체되는 medium life panel이다.

SLID의 목적은 첫째, 소득의 동태적 분석으로 개인 및 가족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의 분석, 빈곤의 동태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동태를 분석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이, 노동시장에서의 라이프 사이클 등의 움직임 분석한다. 셋째, 가족에 대한 동태적 분석으로 경제적 풍요로움에 대한 분석을 한다.

SLID의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6년 동안만 패널에 머무르며, 매 패널의 교체시기는 6년이고 3년마다 패널구성이 변동된다. 1차패널은 노동력조사(LFS: Labor Force Survey)의 표본에서 추출한 15,000가구로 구성되었으며, 3년 후 2차

패널이 1차패널에 추가되면서 3년 동안 1차패널과 2차패널이 동시에 유지되었다. 1차패널이 종료되면서 3차패널이 새로이 참가하여 2차패널과 3차패널이 동시에 유지되었다. 이러한 로테이션 표본을 설계한 이유는 표본의 대표성을 보장하면서 조사내용의 유연성을 도모하고 응답가구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표 2-13〉 SLID 패널설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제1차 패널											
			제2차 패널								
						제3차 패널					
									제4차 패널		

자료: 김재호, 『캐나다의 노동패널조사』 p.5 재인용.

나. 표본

표본은 매달 실시되는 노동력조사(Labor Force Survey: LFS)의 모집단과 거의 일치한다. LFS표본은 지역을 기준으로 추출하였으며, 확률에 기초한 층화표본이다. SLID가 추출된 LFS는 순환그룹으로 불리는 6개의 표본그룹으로 구성되며, 매달 조사되는 LFS의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6개월 동안 표본에 머무른다. 매달 전체 표본의 1/6이 새로운 표본으로 대체된다. SLID의 1차 패널은 LFS의 6개의 순환그룹 중 2개의 그룹(20,000가구)을 먼저 선정하고, 이들의 88%인 17,000가구가 SLID의 표본으로 동의하였다. 예산계약으로 이들 중 2,000가구를 제외한 15,000가구(31,000명의 개인)로 1차패널을 구성하였다. 이 표본은 인디안 보호구역, 사회보호시설의 장기수용자, 군부대의 영내 거주자를 제외한 캐나다의 10개 provinces의 전인구를 대표한다.

다. 조사

SLID 패널 조사는 매년 2회에 걸쳐 인터뷰를 하는데, 1월에 전년도 노동시장 활동을 조사하고, 이때 교육과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도 조사한다. 전년도 세

무신고(tax report)가 끝난 5월에 소득조사를 실시한다. 소득조사는 응답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자료 열람을 응답자가 허용하면 이를 대체한다.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를 실시하였다. 16세 이상의 가구원이 조사대상이 된다. 조사는 가구당 한명이 응답자가 되므로 다른 가구원에 대하여는 대리응답이 가능하다. 조사기간 전에 'respondent newsletter'를 보내는데, 이는 조사실시의 통보와 협조요청과 조사시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가 끝난 7월에 감사편지를 발송하고 응답거절자에게도 다음 인터뷰의 참여를 유도하는 편지를 보낸다.

소득조사는 조사 2주전에 소득 인터뷰에 대한 정보를 편지로 보내 소득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검토할 시간을 준다. 소득조사는 실제인터뷰와 국세청의 세금자료 활용의 2가지가 병행된다.

〈표 2-14〉 SLID 응답률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응답률(%)	86.0	84.1	82.8	82.7	79.2

자료: Statistics Canada, Research Paper *User guide for cross-sectional public-use microdata file-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Reference year 2000* p.38 재인용.

조사내용은 개인적 특성(인구학적 특성, 인종·문화적 특성, 주거이동, 자녀에 대한 정보, 장애, 가족 및 가구특성), 교육, 소득과 자산, 노동시장활동에 대한 것이다.

라. 관리체계

표본추적원칙은 패널이 유지되는 6년 동안 별거, 분가, 이혼, 이사 등에 상관 없이 추적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본선정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주하여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적조사하며, 미국이 아닌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사회보호 시설로 이주한 경우는 추적만 하고 조사는 하지 않는다. 사망 외에는 모든 패널대상자를 추적하고 범위 밖으로 나가더라도 표본에서 탈락시키지는 않으며, 이들이

다시 조사대상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조사를 실시한다.

응답자관리에 있어서 캐나다 통계청은 응답자에게 기본적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가의 지불이 응답률을 높인다는 근거가 없고, 대가의 지불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신 응답률을 유지하기 위해, 대가 대신 응답자와 역동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면접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의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흥미롭고 재미있으며 정보를 주는 동기유발 자료의 제공과 응답자와 면접원 사이의 인간적 관계를 중요시한다.

6. 호주: the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HILDA)

가. 개요

HILDA(the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Survey는 2001년부터 시작된 가구단위의 패널 조사이다. 1차년도 조사대상가구에 대한 반복조사로 원가구에 출생 혹은 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라 진입하는 신규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조사의 목적은 소득과 노동시장, 가족의 역동성 파악 등으로, 소득 역동성은 financial incentives 향상에 목적을 둔 정책 변화에 가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가족상황(family status)과 빈곤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노동시장 역동성은 저소득층에서 중간소득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노동에서 퇴직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는 것이다. 가족 역동성은 가족형성, 복지(well-being), 가족해체 및 이에 따른 아동의 상황 변화, 소득보조(income support)와 가족형성 혹은 해체와의 관계를 보는 것이다. 이외에도 삶의 만족도, 건강, 이웃, 여가생활, 일-가족 간의 균형 등도 포함하고 있다. 1차년도의 경우 응답자의 가족과 고용 히스토리에 대한 상세정보 수집에 역점을 두었다. HILDA는 경제적 그리고 주관적 복지(well-being), 노동시장 역동성, 가족(family) 역동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각 연도 조사마다 특정 부가설문을 포함하였다.

HILDA는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의 Commonwealth Government에서 주도하고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조사 설계와 관리는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멜버른 대학),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에서 담당하였다. 자료 수집은 민간 리서치 회사인 ACNielsen과 계약하여 수행하게 하였다.

나. 표본

1차년도 대상은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타국 외교관, 외국인(1년 이하 체류자), 외국인 주둔군인, 인구밀도가 희박한 지역주민은 제외하였다. 대상 인구 내에서 추출된 확률은 동일하며, 원거주지가 아닌 곳에 머무는 사람의 경우는 제외된다. 표본추출방법을 보면 조사가구는 여러 단계를 거쳐 추출되는데, 먼저 전국에서 488개 Census Collection Districts(CDs)가 표본으로 추출된다. 그리고 각각의 CDs에서 그 지역의 기대 응답율과 부재율을 고려하여 22~34거처(dwelling)가 추출되고, 각 거처에서 3가구까지 표본에 포함되는데, 추출된 거처 중 조정된 후의 총 표본은 11,693가구이다.

다. 조사

HILDA Survey는 4개의 질문지로 이루어진다. Household Form과 Household Questionnaire는 가구 내 최소 1명의 성인과 개인면접(평균 10분 소요)을 하며, A Person Questionnaire(PQ)은 가구내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개인면접(평균 34분)을 하는 것이다. a Self-Completion Questionnaire(SCQ)은 PQ를 완료한 모든 가구원과 사후적으로 조사원이 판단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2차년도 부터는 PQ가 CPQ(Continuing Person Questionnaire)와 NPQ(New Person Questionnaire)로 분리되었다.

HF(Household Form)는 접촉 직후에 작성되는 것으로 가구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다. HQ(Household Questionnaire)는 가구공통사항을 묻는 질문지로, 가구원 한명을 면접하여 작성하고, 아동양육관련사항은 주보육

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좋다. HQ는 양육, 주거, 가구 지출, 2차년도의 경우 부(순자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CPQ는 15세 이상이면서 이전년도에 PQ응답을 완료한 사람에게, NPQ는 15세 이상이면서 이전년도 PQ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다. 18세 이하 가구원 면접시에는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SCQ(Self-Completion Questionnaire)는 PQ 응답완료한 사람이 작성하고 나중에 조사원이 수거해간다. 미수거한 경우 우편으로 반송한다. 주로 개인적인 태도에 관한 질문으로 조사원을 대면하고 응답하기 불편하므로 자기기입식으로 한다.

질문 내용을 보면, 인구학적 내용, 가족배경, 교육, 혼인, 자녀, 고용, 거주지역, 주거환경, 소득과 재산에 대한 것이다. 주요한 life events에 대한 자기기입식 질문지(SCQ)를 포함하였다. 조사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에 앞서 편지를 발송하고 면접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재방문을 하고, 사후 편지를 발송한다. 신규진입 대상자에게는 신규용 브로셔를 방문 1주일전에 보낸다. PQ 응답 대상자가 모두 완료한 가구에 대해서 \$50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고 최소한 1명 이상이 응답해준 경우 \$20을 지급한다.

라. 관리체계

추적조사에 있어서 매년 1/5 가량의 호주 인구가 이사를 하므로, 이들을 추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다. 추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병행되는데, 주소와 Australia Post records와 맞춰보기, 잔류 가구원에게 물어보기, 주소지에 이사온 사람에게 물어보기, 1차년도 면접시 얻은 모든 접촉가능한 전화번호를 활용하기, 주소지의 이웃에게 질문하기, Electronic White Pages (telephone directory)를 검색해 표본 가구원의 신규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1차년도 조사에서 이메일 주소를 받아놓은 경우 이메일 보내기, 이전 면접에서 정보를 받은 친척이나 친구 접촉하기 등이다.

제3절 국내·외 패널조사의 시사점

1. 국내 패널조사의 시사점

빈곤패널조사는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양태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빈곤관련 정책의 수립과 그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빈곤관련 정책의 마련 및 그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개인 및 가구를 관찰한 연속적인 자료의 확보가 중요한 것이다. 즉, 빈곤 및 차상위 계층의 가족구조 및 연령별 노동시장에서의 활동, 소득과 지출 행태와 같은 경제활동, 건강수준 및 삶의 질 같은 사회복지욕구 및 사회보장참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패널조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빈곤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빈곤패널의 구축이 중요하다. 특히 패널조사 자료는 횡단면자료가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석상의 이점이 있긴 하지만, 표본의 설계에서부터 조사패널의 관리 등 패널자료의 질적 수준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는 횡단면조사 자료보다도 못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질적 수준이 높은 패널자료의 구축이 중요하다.

대우 패널(한국가구패널)은 1993~1996년 총 4차에 걸친 패널조사로 개인과 가구의 경제활동을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전국의 일반가구 4,547가구, 10,460명의 개인에 대하여 1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대우패널은 현재 조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높은 패널 유실률, 예산부족으로 면접비, 표본관리비용, 분리된 가구의 추적 비용 등을 충당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응답자 관리의 불충분, 면접원 관리의 부실, 설문지의 문제점(양이 너무 많아 응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데이터 관리의 미비 등의 한계가 있었다.

노동패널은 1998~2003년까지의 6차에 걸친 조사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며, 조사는 매년 계속 진행 중이다. 노동패널은 노동시장내의 개인 및 가구의 경제활동을 관찰하고자 하며, 1차조사에서 5,000가구, 13,317명의 개인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노동패널을 통해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열어 노동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노동패널은 패널대상자들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변화의 요인을 찾아내는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지역이 도시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서 전국적 대표성이 있는 자료라고 보기 힘들어, 전인구에 대한 총체적인 면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가구가 근로자가구여서 근로계층이 아닌 층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자활패널은 2002년~2004년 3차조사까지 진행되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통계자료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국의 중위소득 60%미만의 저소득근로능력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활패널의 1차년도 조사가 기본적으로 한시점에서 일회에 걸쳐 횡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성격이 강하여 대상자의 역동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이 조사당시의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표본내의 빈곤층의 변화는 파악될 수 있으나 새로이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으며, 전인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청년패널은 2001~2003년까지 3차에 걸친 조사의 자료가 공개되었다. 청년패널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초기진입상태와 이동을 관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며, 전국 일반가구의 15~29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1차조사에서 6,487가구, 8,296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청년패널도 청년계층의 변화는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특정연령층에 국한되어 전인구의 총체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령자 패널과 국민노후보장패널(국민연금패널)은 시작된 지 고령자의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인 삶의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자료를 구축하여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연금이 저축과 근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국민연금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 두 패널조사는 노인연령층에 국한된 패널조사로 노인층의 복지욕구나 동태파악에는 유용하지만 전인구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빈곤패널은 첫째, 빈곤의 역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인구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표본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표본은 고령자 패널, 국민노후보장 패널, 청년패널, 교육고용패널처럼 특정계층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지역적으로도 노동패널처럼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적인 표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빈곤패널 이용과 빈곤관련 연구의 활성화, 그리고 빈곤관련 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처럼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통해 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외 패널조사의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국내의 대표적인 패널조사들은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하면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지지는 못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구패널조사였던 대우패널은 민간자본으로 구축, 유지되었으나 5차년도 이후 주관연구기관의 해산으로 중단되었고, 그나마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이 2004년 7차년도까지 완료된 대표적인 패널조사이다. 반면 미국의 NLSY는 1966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 노동패널조사로써 미국의 패널조사는 우리나라보다 약 26년정도 앞서 시작되었다. 각 나라의 대표적인 패널조사의 시작연도는 미국은 PSID가 1968년, NLS(Old Men)가 1966년에 시작하였으며, 독일의 경우 1984년부터 가구패널조사인 GSOEP가 시작되었고, 영국 1991년 가구패널조사인 BHPS, 캐나다 1986년 노동패널조사인 SLID, 호주의 경우 가구패널조사인 HILDA가 200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패널조사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목적에 따라 조사항목이 결정되고, 그에 따른 핵심질문과 부가질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표 2-5>의 예와 같이 그 나라의 정책적 이슈나 사회적 동태변화에 따라 원년도 조사항목에 추가되는 주제(항목)가 매년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패널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종단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하여 목적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및 결과에 관한 요인들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과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장기적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데 있다. 또한, 장기적인 변화추이를 관찰하는 종단적 데이터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현 상황에 관한 요인분석에서

필요로 하는 횡단적 데이터를 동시에 구축함으로써 단기적 정책수립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매년 조사가 수행되면서 부가적으로 주제가 첨가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성질의 패널조사라 하더라도 각 나라마다 패널구축의 목적과 필요성, 조사성격,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라 표본의 규모나 패널의 성격, 조사항목 등이 다소 상이하게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표본의 규모는 모집단에 가까울수록 가장 이상적인 표본이 될 수 있으나 예산범위나 패널관리 및 유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나라는 그 나라의 가구나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확률표본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표본의 규모는 조사 원년도(1차년도)의 표본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패널조사의 성격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대표표본을 추가시키는 경우의 패널조사도 있고, 정기적으로 표본을 교체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문헌에 나와 있다. 예를 들어 PSID의 경우 초기 표본은 저소득 계층을 대표하는 2,000가구였으나 이후 중산층 및 부유층까지 포함하는 전체 미국인들을 대표하는 연구로 확대키 위해 새로운 대표표본을 추출하여 기존의 SEO 표본에 추가시킨 것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알 수 있다. 캐나다의 SLID는 6년마다 표본이 교체되는 로테이션 표본을 설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원표본의 탈락에 따른 표본의 대표성 상실을 막고, 조사내용의 유연성 도모와 응답가구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패널조사에서 표본을 유지하는 것은 패널조사의 성공유무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나라마다 원표본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NLSY 패널조사에서 라운드별 원표본 유지율을 보면 다음 라운드로 진행될수록 유지율이 낮아져 5라운드에는 원표본의 87.7%만 유지된 것으로 밝혀졌고, 캐나다의 SLID도 2000년 응답률이 79.2%까지 낮아진 것으로 문헌에서 밝혀지고 있다. 사실상, 패널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패널가구나 가구원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추적실패와 다음 조사에서의 응답거부가 패널관리의 걸림돌이다. 주소지 변경에 따른 추적은 사전에 패널과 지속적으로 이사계획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통보체계를 갖추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응답거부에 대한 패널유지 관리체계는 각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패널가구나 가구원에게 조사에 응한 대가로 사례비를 지불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또한 조사전에 조사 및 데이터의 비밀보장에 관한 안내서 발송이나, 사후에는 감사의 편지 및 답례품, 요약보고서 등을 발송하는 것도 유지관리의 한 예로 들고 있다.

일회성에 거치는 일반적인 조사와는 달리 패널조사는 패널가구나 가구원과의 원만한 유대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고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직접대면 면접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는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조사를 거절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시간경과에 따른 면접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즉, 전년도에 방문했던 동일 면접자가 이후 연도에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패널가구와의 긴밀한 인간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도 패널탈락률을 낮추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응답가구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년 면접타계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변화에 민감한 부분에 한하여 CATI를 활용한 조사방식의 활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부터 조사에 사용되는 질문지는 종이가 보편적이었으나 패널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각 나라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컴퓨터를 이용하는 CAPI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패널데이터의 특성상 과거에 응답한 결과를 면접자가 미리 파악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조적인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예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조사자료의 품질향상과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 및 면접원들의 질관리를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점차 도입이 확산될 것이며, 이미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은 CAPI시스템을 도입, 조사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국내외 패널조사 동향을 살펴본 결과, 본조사(패널조사)를 위한 원표본의 규모는 패널탈락률을 고려하여 과대표본추출이 되어야 할 것이며, 원표본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전담관리팀의 신설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패널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패널탈락률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면접자의 연속성 유지 및 품질관리와 조사의 질 및 데이터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선된 조사도구으로써 CAPI시스템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3장 조사 및 표본 설계

제1절 조사 설계

1. 조사개요

2005년 가구경제기초조사는 빈곤패널 본조사의 표본추출과 표본의 기초사항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빈곤패널 조사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실태 및 욕구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집단간·영역간 정책우선순위 결정을 지원하고, 조사결과를 통해 중장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는 빈곤패널의 본조사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판별조사이다.

조사는 표본으로 추출한 200개 지역 400개 조사구 내의 일반가구로, 20,000 가구 (조사구당 5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대상이 되는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및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의 모임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가구를 제외한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음식점, 여관, 하숙업을 경영하면서 주거를 겸하는 겸용주택 내의 가구, 영업을 위해 고용한 종업원이 2명 이상 같이 사는 가구, 외국인 가구^{주15)}, 직장 동료, 친구, 선후배 등이 같이 사는 비혈연 집단 가구가 제외 대상이다. 1인 가구의 경우 2인 이상 가구의 제외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1인 가구와 15세 미만인 사람, 사회복지시설 등에 있는 사람,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학생 1인가구-소득활동 없는 전업학생-, 주거를 달리하는 주소득원 1인가구인 경우가 제외대상이다.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원은 2005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다^{주16)}.

주15) 가구주의 국적이 외국인이 경우

주16) 단, 생계를 같이 하는 주소득원이 주거를 달리할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

2005 가구경제 기초조사는 2005년 10월 11일~11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조사는 연구진에 의해 교육을 거친 훈련된 전문 조사팀에 의해 실시되었다. 조사팀은 조사지도원 1인, 조사원 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3개팀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팀에 대한 교육은 연구진에 의해 조사목적, 표본, 현지조사방법, 조사표 작성 지침 등의 내용으로 2005년 10월 7일에 실시되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표본과 조사표 관련하여 연구진이 관여하여 조사지도원 중간 에디팅회의, 현지 방문, 전화통화, 팩스를 통해 추가지침을 전달하였다.

2. 조사표 설계

가. 조사표의 목적과 구조

2005년의 빈곤패널조사는 2006년의 1차 본조사를 위한 기초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2005년의 기초조사는 본조사의 표본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조사의 표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구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고, 둘째, 그 가구가 지속적인 패널조사를 위한 표본으로서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표는 이러한 패널조사의 기초조사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음 몇 가지 점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첫째, 조사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빈곤패널을 위한 예비조사』라는 표제 대신 『2005년 가구경제 기초조사』라는 다소 중립적인 표제를 사용하였다. 이는 패널이라는 지속적인 조사표본으로 선정되는 것을 꺼려서 사전에 거부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한편, ‘빈곤’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오는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주어진 예산과 일정의 제약 속에서 18,000가구를 조사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이번 조사가 기초조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문항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조사표에서 의례적으로 포함되었던 학력, 상병유무,

어, 주소득원인 아버지가 지방근무를 하는 경우에 아버지는 가구원에 포함한다.

장애종류, 세부적인 자산 등은 이번 조사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셋째, 주지한 바와 같이 이번 조사의 일차적 목적인 소득과약을 통한 본조사 표본의 확정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소득과약에 초점을 두고 조사표가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경제활동 참여상태의 변화, 각 경제활동상태별 소득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소득의 과소보고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비와 자산 및 부채변동을 아울러 조사하였다.

넷째, 보통 기초조사 시에 패널조사 표본가구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대신 6개월 이내에 이사 계획과 정확한 연락처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는 패널조사라는 것을 미리 알림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부효과와 승인 후 패널표본으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의 실망효과를 동시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따라서 패널조사 표본이 확정된 후 본조사시에는 사전 통보와 설득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조사문항의 구성

구체적으로 조사표는 표지를 제외하고 크게 다섯 개 부문 - 가구일반사항, 생활비, 자산 및 부채 변동, 주거환경 및 이사계획, 소득 - 으로 구성되어 있다^{주17)}.

먼저, 표지에서는 『2005년 가구경제 기초조사』라는 표제 하에 조사표 ID, 주소, 방문일시, 가구주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조사표 완료 소요시간과 총방문횟수를 기재토록 하여 가구특성별 응답순응율과 응답시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패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는 대신 연락처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자택 전화번호와 가구원의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표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조사표의 구체적인 내용 중 첫째, 가구일반사항에서는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동거여부, 결혼여부, 장애등급, 경제활동상태, 주거점유형태, 그리고 기초보장수급여부 등을 묻고 있다. 이 때, 무엇보다도 가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조사에서 가구는 “2005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17) 조사표는 부록에 첨부하였음.

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구성원”으로 정의되며, 단 주거를 같이하지 않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주소득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구원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통계청의 가구 개념을 준용하되 다소 완화한 것이다.

둘째, 생활비와 관련된 항목으로 총생활비, 장보는 비용,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지출과 세금이 여기에 포함된다. 생활비는 만원 단위로 조사되며, 지난 3개월(2005년 7월~9월)의 월평균 지출을 적도록 하였다. 또한, 과대계산을 막고 일상적인 비용을 중심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사업용도의 지출 및 일회성지출(주택구입자금, 애경사비 등)은 생활비에서 제외하였다. 총생활비와 세부항목의 합산액은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농림어업의 자가소비액 또한 지출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번 기초조사에서 지출항목은 통계청의 대분류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대신 상기하기가 편하고 알기 쉬운 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는 점이다^{주18)}. 예컨대,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등은 가계부를 기장하지 않는 이상 개별가구가 회상해내기 어려운 항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묶어서 ‘장보는 비용’으로 하였다. 또한 가구원 용돈과 이가지출, 보장성보험 등의 비소비지출을 ‘기타지출’ 항목으로 묶었다. 세금의 경우 1년 동안의 소득세를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2개월로 나눈 월평균액수를 산정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소득세를 생활비에서 제외한 것은 뒤의 소득항목에서 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조사항목을 두어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다.

셋째, 자산 및 부채 변동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의 자산과 부채 변동액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득과 지출 간의 관계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일정 기간동안의 소득은 그 기간 동안의 지출과 저축액의 합산액과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 - 부채증가(감소) = 지출 + 자산증가(감소)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자산 증가(감소)는 부동산, 저축, 개인연금, 교육보험 등의 취득(상실)만을 의미할 뿐, 시세변

주18) 통계청의 소비지출조사 대분류 항목은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집기, 피복 및 신발비, 보건 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동으로 인한 증감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가계자산(부채)만을 포함하며 사업상의 자산(부채) 증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주거환경 및 이사계획과 관련된 문항의 주요 목적은 패널표본 확정과 관련하여 이사계획과 시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2006년 본조사를 3월경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2005년 9월 30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이사계획을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이사지역이 조사구와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인지도 조사항목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조사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는 소득과 관련된 항목은 세부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이미 앞에서 조사된 현재의 경제활동참여상태를 바탕으로 하되 조사대상 기간 동안의 참여상태 변화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먼저, 상용직 및 임시직 임금근로자 소득, 사회보험급여, 개인연금급여, 기초보장급여, 기타 정부보조금, 민간보조금 등 월단위로 변화가 비교적 적은 소득의 경우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금액으로 조사하였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액의 포함여부가 조사자에 따라 달라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액을 별도로 물었다. 민간보조금의 경우, 생활비 명목의 정규적인 현금 월평균액만을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일용직임금근로자 소득, 자영자 및 사업소득, 농림어업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일회성소득 등 계절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소득의 경우 지난 1년간의 월평균금액을 조사하였다. 일용직임금근로자는 특히 계절변동이 심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 1년간 일한 총개월수와 일한 달의 월평균소득을 별도로 물어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자영자의 경우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가계에 갖다준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농림어업소득은 판매액에 자가소비액을 더하고 비용한 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았다. 특히, 농림어업소득의 경우 소득산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별도의 보조기입지를 설문지 마지막에 첨부하여 참고토록 하였다. 또한, 일용직과 자영자 모두에 대해 소득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을 별도로 조사하였다.

다. 조사항항의 활용과 본조사시의 유의사항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기초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본조

사를 위한 표본을 확정하는 것이다. 표본확정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본조사의 표본을 몇 개로 할 것이며 완전비례표집할 것인지 소득계층에 따라 층화표집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사결과의 소득의 정의와 범주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기초조사에서는 특히, 소득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소득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어떠한 소득 개념이 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선정된 표본의 수는 최종적으로 본조사 대상이 될 표본의 약 150%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는 패널조사에 대한 불응가구,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이 기간 동안 조사구를 크게 이탈한 가구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일차적으로 150~200%의 표본이 선정되며,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패널조사 순응여부와 협조요청 등 별도의 선별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본조사에서는 소득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득조사의 대상기간을 동일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조사에서는 조사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계절변동이 심하지 않은 경우 3개월, 계절변동이 심할 경우 1년을 단위로 소득을 조사하였으나, 이렇게 한 결과 조사의 혼란이 다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모든 소득을 1년 단위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표본설계

1. 기획단계 결정 사항

가. 조사규모

여러 계층에 속한 가구의 경제 실태를 파악하고 빈곤층에 대한 패널 구축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큰 조사규모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과 조사기

간을 감안하여 표본조사구수를 400개로 하고 조사구당 평균 45가구를 조사완료 하여 총 18,000 조사완료 가구를 목표하였다.

나. 조사대상지역

전국을 조사대상지역으로 하였다. 그러나 교통이 불편한 시·도의 섬지역이 표본조사구로 추출될 경우 실제로 현지조사가 곤란하게 되어 각 시·도의 섬지역은 조사대상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섬지역 가구는 전국가구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표본추출 과정에서 섬지역이 추출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대체하였다.

다. 표본조사구 추출 기초자료

표본조사구 추출을 위한 기초 자료는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활용 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에서 본 조사의 조사구로 적합하지 않은 기숙사, 육아원, 양로원, 수녀원 등과 같은 시설단위 조사구는 표본추출 모집단에서 제외하여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을 만들었다.

라. 신축아파트에 대한 조치

현지 조사에서 표본조사구 내에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에 주택이 신축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경계선 안의 모든 가구를 전부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가 신축되었을 경우는 가구 수가 너무 많이 증가하여 주어진 조사기간에 조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조사기간의 연장이다. 그러나 조사기간 연장은 비용의 추가와 조사일정에 지연을 가져오고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하여 해당 동·읍·면에 조사 협조 등, 업무절차가 복잡하게 된다. 조사기간의 연장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일부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토록 하고 추정단계에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지에서 지도원이 연구진의 지시를 받아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에

택지 개발로 아파트가 신축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표본조사구 내의 신축아파트는 조사에서 제외시키고 그 대신에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신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본조사구를 정하여 조사하였다.

2. 표본조사구 추출

가. 기초자료의 정리 및 총화

시설조사구를 제외한 249,476개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행정구역에 의하여 3개(7대 시, 기타 시의 동, 읍·면)의 지역으로 분류하고 조사구의 주된 주택형태에 의하여 일반주택(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기타 주택)과 아파트 지역으로 분류하여 총 6개의 층으로 총화하였다. 이 때,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거나 군에서 시로 편입된 읍·면의 조사구는 신 행정구역에 따라 층번호를 수정하였다(표 3-1 참조).

제1층: 7대 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일반

제2층: 기타 시의 동 일반

제3층: 읍·면 일반

제4층: 7대 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아파트

제5층: 기타 시의 동 아파트

제6층: 읍·면 아파트

〈표 3-1〉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 총화 결과

층	조사구수	가구수
(1) 7대 시 일반	76,426 (48.3)	4,274,056 (29.9)
(2) 기타 시의 동 일반	41,990 (31.1)	2,427,123 (17.0)
(3) 읍·면의 일반	42,562 (20.6)	2,447,252 (17.1)
(4) 7대 시의 아파트	44,093 (48.3)	2,567,520 (17.9)
(5) 기타 시의 동 아파트	35,658 (31.1)	2,099,986 (14.7)
(6) 읍·면의 아파트	8,747 (20.6)	495,462 (3.5)
계	249,476(100.0)	14,331,807(100.0)

나. 층별 가구수에 대한 크기의 측도 부여

각 조사구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조사구 가구수를 5로 나누어 반올림한 결과를 조사구에 대한 크기의 측도(MOS: Measure of size)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249,476개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의 총 가구수(14,311,807가구)에 대하여 크기의 측도를 부여한 결과 크기의 측도 합은 2,864,976이었다.

다. 표본조사구 추출

건설교통부 통계연보 및 내부 자료에서 집계한 2001년 1월 부터 2003년 10월까지의 신축아파트는 993,075가구 이었다. 표본조사구 추출에서 주된 표본추출 모집단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이며 신축아파트는 조사구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보조적인 정보이다. 그러므로 총 400개의 표본조사구 중에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에서 380개 조사구를 추출하고 신축아파트에서 20개 조사구가 추출되도록 하였다.

신축아파트 조사구를 제외한 380개 일반 표본조사구의 층별 배분은 가구수 크기의 측도 합에 비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반가구 지역은 가구소득의 적은 지역으로 향후 패널조사에서 표본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아서 아파트지역 추출가중치를 크게 하였다. 7대 도시와 기타 시의 동 일반가구 추출가중치는 1.2로 하였고 읍·면의 일반가구 지역의 추출가중치는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아파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가 추출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7대 시 일반가구에서 114개, 기타 시의 동 일반가구에서 66개, 읍·면의 일반가구에서 82개의 조사구가 결정되었고 아파트 조사구에서는 7대 시에서 58개 기타 시의 동에서 46개, 읍·면 지역 아파트에서 14개의 조사구가 선정되었다. 표본조사구 추출은 각 층별로 행정구역 순으로 정렬한 후 조사구의 크기의 측도에 확률 비례하여 계통추출하였다(표 3-2 참조).

〈표 3-2〉 층별 표본조사구수 배분 내역

층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구수 배분	
	가구수 크기의 측도	추출가중치	표본조사구수	
(1) 7대 시 일반	854,831 (29.8)	1.2	114	
(2) 기타 시의 동 일반	485,357 (16.9)	1.2	66	
(3) 읍·면의 일반	489,412 (17.1)	1.5	82	
(4) 7대 시의 아파트	514,899 (18.0)	1.0	58	
(5) 기타 시의 동 아파트	421,233 (14.7)	1.0	46	
(6) 읍·면의 아파트	99,244 (3.5)	1.0	14	
계	2,864,976 (100.0)	-	380	

3. 신축아파트 표본조사구 추출

993,075가구분의 신축아파트를 7대 시, 기타 시의 동, 읍·면으로 층화하고 각 층의 가구수를 60가구로 나누어 반올림한 결과를 신축아파트 추정조사구수로 하였다. 신축아파트의 표본조사구수는 추정조사구수에 비례하여 7대 시에서 10개, 기타 시에서 6개, 읍·면에서 4개를 추출하였다(표 3-3 참조).

〈표 3-3〉 층별 신축아파트의 표본조사구수 배분 내역

층	가구수 ¹⁾	추정조사구수	표본조사구수
(7) 7대 시	472,822	7,880	10
(8) 기타 시의 동	359,375	5,990	6
(9) 읍·면	160,878	2,681	4
계	993,075	16,551	20

주: 1) 2001.1 - 2003.10.31 까지의 신축아파트 가구수

4. 표본조사구 추출결과 및 조사규모

이와 같이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결과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에서 21,987가구, 신축아파트 조사구에서 1,200가구를 추출하여 표본조사구에 있는 총가구수는 23,187가구가 되었다(표 3-4 참조). 표본조사구 안에서의 조사대상 가구 선정은 거처번호 순으로 하였으며 서로 인접한 조사구의 가구수 합이 110

가구 이상 도달하는 거처 까지를 조사대상가구로 하여 총 21,703가구를 조사대상가구로 하였다.

〈표 3-4〉 표본조사구 추출결과 층별 내용

층	모집단 조사구수	표본 조사구		표본조사구 추출확률
		조사구수	가구수	
인구주택총조사		380	21,987	
(1) 7대 시 일반	76,426	114	6,570	1/670
(2) 기타 시의 동 일반	41,990	66	3,878	1/636
(3) 읍·면의 일반	42,562	82	4,740	1/519
(4) 7대 시의 아파트	44,093	58	3,124	1/760
(5) 기타 시의 동 아파트	35,658	46	2,860	1/775
(6) 읍·면의 아파트	8,747	14	815	1/625
신축아파트		20	1,200	
(7) 7대 시	7,880	10	600	1/788
(8) 기타 시의 동	5,990	6	360	1/998
(9) 읍·면	2,681	4	240	1/670
계	266,027	400	23,187	1/665

제3절 조사결과 및 자료처리

1. 조사결과

400개 표본조사구에서 조사원이 방문한 21,703가구 중에서 17,769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조사완료율은 81.9%이었다(표 3-5 참조). 조사지역별 조사완료율은 읍·면지역 일반가구 조사완료율이 84.2%로 비교적 높은 반면에 7대 도시와 기타 시 지역의 일반가구 조사완료율은 비교적 낮아 각각 80.8%와 80.9%를 보였다.

〈표 3-5〉 가구조사결과 가구수

층	조사구 수	방문가구수			
		계	조사 완료	조사 미완	조사 완료율(%)
인구주택총조사	114				
(1) 7대 시 일반	66	6,167	4,982	1,185	80.8
(2) 기타 시의 동 일반	82	3,622	2,931	691	80.9
(3) 읍·면의 일반	58	4,358	3,668	690	84.2
(4) 7대 시의 아파트	46	3,059	2,515	544	82.2
(5) 기타 시의 동 아파트	46	2,632	2,141	491	81.3
(6) 읍·면의 아파트	14	766	630	136	82.2
신축아파트					
(7) 7대 시	10	659	542	117	82.2
(8) 기타 시의 동	6	330	274	56	83.0
(9) 읍·면	4	110	86	24	78.2
계	400	21,703	17,769	1,606	81.9

2. 추정방법

이 조사결과에 의한 각종 통계치는 가중표본합계치(가중표본합계치, weighted sample total)와 이에 의한 평균 및 구성비이다.

여기서 조사결과를 그대로 합산한 단순표본합계치(단순표본합계치, simple sample total)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각 조사구역이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이 동일하지 않고 미방문가구율 및 조사미완율이 조사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가구조사 결과의 가구수의 가중표본합계치는 전체 조사완료가구수와 일치되도록 하였다.

가. 가구조사 결과의 가중표본합계치

가구조사 결과에서 어떤 특성 X 를 갖는 가구수 및 인구수에 대한 가중표본합계치는 조사완료된 가구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① 가구 총수 추정용 승수 산출

$$\begin{aligned}
 M_{hi} &= \frac{G_h}{n_h G_{hi}} \frac{A_{hi}}{A_{hi}'} \frac{A_{hi}'}{B_{hi}} \\
 &= \frac{G_h}{n_h G_{hi}} \frac{A_{hi}}{B_{hi}} \qquad (1)
 \end{aligned}$$

이 공식에서

- M_{hi} = 가구 총수 추정용 승수
-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 $h = 1, 2, \dots, 9$
- i =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 n = 표본조사구수
- G = 가구수 크기의 측도
- A = 조사결과 조사구내 총가구수(미방문가구수 포함)
- A' = 방문가구수
- B = 조사완료 가구수

② 공식 (1)의 승수를 조사구별 조사완료 가구수에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조사모집단의 총가구수를 추정

$$\widehat{B} = \sum_h \sum_i M_{hi} B_{hi} \qquad (2)$$

③ 조사완료가구수를 집계

$$B = \sum_h \sum_i B_{hi} \qquad (3)$$

④ 공식 (2)의 총가구수 추정치를 (3)의 조사완료 가구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식 (1)의 총수 추정용 승수를 가중표본합계치 산출용 승수로 변환

$$W_{hi} = M_{hi} \left(\frac{B_{hi}}{\widehat{B}_{hi}} \right) \quad (4)$$

- ⑤ 공식 (4)의 승수를 조사완료 가구수에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가중표본합계치 산출

$$\widehat{X} = \sum_h \sum_i W_{hi} X_{hi} \quad (5)$$

이 공식에서

\widehat{X} = 어떤 특성 X 를 갖는 가구수(인구수)의 가중표본합계
 X = 어떤 특성 X 를 갖는 것으로 조사된 가구수(인구수)

나. 표본오차

조사결과에서 어떤 특성 X 를 갖는 가구수 및 인구수에 대한 표본오차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층 h 에서의 추정치 \widehat{X}_h 의 분산은

$$\textcircled{6} \quad Var(\widehat{X}_h) = \sum_i^{n_{hi}} N_{hi}^2 \left(\frac{N_{hi} - n_{hi}}{N_{hi}} \right) \frac{s_{hi}^2}{n_{hi}} \quad (6)$$

$$\text{여기서 } s_{hi}^2 = \frac{1}{n_{hi} - 1} \left(\sum_j^{n_{hi}} x_{hij}^2 - \frac{(\sum_j^{n_{hi}} x_{hij})^2}{n_{hi}} \right)$$

$$\textcircled{7} \quad \text{표본오차 } SE(\widehat{X}_h) = [Var(\widehat{X}_h)]^{1/2} \quad (7)$$

$$\textcircled{8} \quad \text{상대표본오차 } RSE(\widehat{X}_h) = \frac{SE(\widehat{X}_h)}{\widehat{X}_h} \cdot 100 \quad (8)$$

제4장 조사결과 분석

제1절 가구의 일반특성

1. 가구 일반특성

조사된 가구의 지역별 특성을 보면 대도시 49.2%, 중소도시 32.3%, 농어촌 18.5%이다.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와 비교해 보았을 때, 대도시 비율이 약간 높고, 농어촌 비율이 약간 낮은 양상을 보인다.

〈표 4-1〉 지역별 특성

(단위: %)

구분	가구경제기초조사	국민생활실태조사(2003) ¹⁾
대도시	49.2	46.8
중소도시	32.3	31.6
농어촌	18.5	21.5
합계	100.0	100.0

주: 1) 통계청 조사는 지역 구분의 방식이 달라 비교가 어려워 본 연구원의 다른 조사와 비교하였음.

조사된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0명이며, 최소가구원은 1명, 최대 가구원은 12명이었다. 가구규모는 4인가구가 3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통계청(2005년 추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4인가구 비율은 동일하게 나왔으며, 2·3인 가구는 약간 높게, 1인 단독 가구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표 4-2〉 가구규모별 특성

(단위: %)

구분	가구경제기초조사	통계청(2005년 가구 추계)
1인 가구	14.4	17.0
2인 가구	22.8	20.8
3인 가구	22.0	21.0
4인 가구	30.6	30.6
5인 가구	7.8	8.4
6인 가구	1.9	1.6
7인 이상 가구	.5	.6
합계	100.0	100.0

조사된 가구의 주거점유형태를 보면 자가가 57.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전세 22.4%, 보증부 월세 10.6%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가계조사(2005)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자가의 비율은 더 낮게, 전세의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보증부 월세의 경우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표 4-3〉 주거점유 형태별 특성

(단위: %)

구분	가구경제기초조사	통계청 가계조사(2005)
자가	57.8	62.7
전세	22.4	19.4
보증부 월세	10.6	10.9
월세	4.3	2.6
무상거주	4.8	3.0
기타	.1	1.4 ¹⁾
합계	100.0	100.0

주: 1) 가계조사(2005)에서 관공사택은 기타로 처리함.

기초보장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본 조사에서는 기초보장수급자의 비율이 3.7% 조사되었는데, 실제 기초보장 수급가구 비율은 5.1%로 실제보다 약간 적은 비율로 수급자 가구가 조사되었다.

〈표 4-4〉 기초보장수급여부별 특성

(단위: %)

구분	가구경제 기초조사	기초보장수급현황(2005) ¹⁾
기초보장 수급	3.7	5.1
기초보장 비수급	96.3	94.9
합계	100.0	100.0

주 1) 통계청 가구추계(2005)대비 기초보장수급가구 비율(보건복지부 2005.12.31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를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4인가구의 비율이 각각 32.7%와 32.8%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의 경우 2인가구의 비율이 32.3%로 가장 높았다. 특히 농어촌은 1인가구의 비율이 19.0%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농어촌의 고령화 경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지역별 평균 가구원수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3.1명이었고, 농어촌의 경우 2.8명으로 농어촌의 평균 가구원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지역별 가구규모

(단위: %, 명)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합계
지역별 가구규모	1인 가구	14.0	12.3	19.0	14.4
	2인 가구	20.0	21.5	32.3	22.8
	3인 가구	22.9	22.9	18.0	22.0
	4인 가구	32.7	32.8	20.9	30.6
	5인 가구	8.2	8.0	6.6	7.8
	6인 가구	1.7	1.9	2.3	1.9
	7인 이상 가구	.5	.6	.9	.5
	합계	100.0	100.0	100.0	100.0
지역별 평균 가구원수		3.1	3.1	2.8	3.0

가구규모를 기초보장 수급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비수급가구의 경우 4인가구의 비율이 3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수급가구의 경우 1인 단독가구가 38.4%로 가장 많고, 이어서 2인가구 24.2%, 3인 가구 19.3% 순으로 단독가구와 2인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기초보장 수급여부별 가구규모

(단위: %)

	기초보장수급	기초보장 비수급	합계
1인가구	38.4	13.5	14.4
2인가구	24.2	22.7	22.8
3인가구	19.3	22.1	22.0
4인가구	11.0	31.3	30.6
5인가구	4.5	8.0	7.8
6인가구	1.4	1.9	1.9
7인 이상 가구	1.2	.5	.5
합계	100.0	100.0	100.0

다음으로 지역별 주거점유형태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자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농어촌은 자가가 69.5%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는 전세가 26.2%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도시는 보증부 월세 비율이 14.1%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7〉 지역별 주거점유형태

(단위: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합계
자가	55.6	54.6	69.5	57.8
전세	26.2	22.8	11.6	22.4
보증부월세	10.4	14.1	4.9	10.6
월세	4.3	4.2	4.3	4.3
무상거주	3.4	4.2	9.2	4.8
기타	.1	.1	.5	.1
합계	100.0	100.0	100.0	100.0

기초보장 수급여부별로 주거점유형태를 비교해 보면,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자가 비율은 28.4%로 비수급 가구의 59.0%에 비해 1/2 수준에 머물렀으며, 보증부 월세비율은 20.3%로 비수급자의 10.2%에 비해 2배 정도 높았고, 월세 비율의 경우 19.2%로 비수급가구의 3.7%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기초보장수급여부별 주거점유형태

(단위: %)

	기초보장 수급	기초보장 비수급	합계
자가	28.4	59.0	57.8
전세	17.1	22.6	22.4
보증부월세	20.3	10.2	10.6
월세	19.2	3.7	4.3
무상거주	14.9	4.4	4.8
기타	.1	.1	.1
합계	100.0	100.0	100.0

2. 가구 구성원 특성

가. 가구주 특성

가구주의 일반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이 82.9%, 여성은 17.1%로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 특성을 보면 평균 연령은 48.3세이며, 최소연령은 18세, 최대연령은 103세였다. 연령대별로 가구주 특성을 보면, 40대가 28.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0대 24.9%, 50대 17.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가구주도 22.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혼인상태의 경우, 혼인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가구주의 비율이 75.9%였으며, 다음으로 사별 10.5%, 미혼 8.7%, 이혼 4.9%의 순이었다.

〈표 4-9〉 가구주 일반특성

(단위: %)

구분		구성비
성별	남성	82.9
	여성	17.1
	합계	100.0
연령대	10대	.1
	20대	5.9
	30대	24.9
	40대	28.5
	50대	17.9
	60대	13.3
	70대 이상	9.4
	합계	100.0
평균연령: 48.3세 최소연령: 18세 / 최대연령: 103세		
결혼상태	유배우(별거포함)	75.9
	사별	10.5
	이혼	4.9
	미혼(미혼모 포함)	8.7
	합계	100.0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주로 구성된 가구는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15.6%를 차지하였다. 노인가구주 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72.1세이고, 최소연령은 65세, 최대 연령은 103세였다. 노인가구주 가구의 가구규모를 보면 2인가구가 46.3%로 가장 많고, 이어서 노인단독가구가 32.9%로 나타났다. 노인단독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5.1%이며, 노인가구주 가구 대비는 32.9%였다.

〈표 4-10〉 노인가구주 가구 특성

(단위: %)

구분		구성비	
노인 가구주 가구	일반 가구주	84.4	
	노인 가구주	15.6	
	합계	100.0	
	노인 가구주 가구 평균연령: 72.1세		
	노인 가구주 가구 최소연령: 65세 / 최대연령: 103세		
	노인 가구주 가구 가구규모	1인 가구	32.9
		2인 가구	46.3
		3인 가구	13.0
		4인 가구	4.7
		5인 가구	1.8
6인 가구		.9	
7인 가구 이상		.5	
합계	100.0		
노인단독가구 비율: 전체 가구 대비 5.1%			
노인가구주 대비 32.9%			

다음으로 가구주의 장애상태를 살펴보면, 장애인 가구주 비율은 5.5%이며, 장애인 가구주 중 장애등급 1, 2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가구주는 22.2%였으며, 경증 장애인 가구주 77.8%였다.

〈표 4-11〉 가구주의 장애상태

(단위: %)

구분		구성비	
장애현황	비장애인	94.5	
		5.5	
	장애정도	중증장애 ²⁾	22.2
		경증장애	77.8
합계		100	

주: 1) 장애인은 등록 장애인 기준

2) 중증장애는 1~2급, 경증장애는 3~6급을 기준으로 하며, 중복장애의 경우 중복장애가 복지카드에 합산되어 표시된 등급 기준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보면, 취업가구주는 78.5%, 비취업가구주는 21.5%로, 비취업 가구주의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취업 가구주의 고용상태를 보면 임금근로자가 67.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자영업자가 28.0%였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전체 가구주의 4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11.9%,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9.8%였다.

〈표 4-12〉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단위:%)

구분	구성비		
	비취업 취업 ¹⁾	21.5 78.5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취업 가구주의 고용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5.7
		임시직 임금근로자	9.8
		일용직 임금근로자	11.9
		자활 및 공공근로 고용주	0.3 4.2
		자영업자	28.0
		무급가족종사자	0.2
		합계	100.0

주: 1) 취업은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 자활 및 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취업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가구주의 취업은 83.2%이며, 여성가구주의 취업은 56.2%로 여성 가구주의 취업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가구주의 고용상태를 보면 여성 가구주는 상용직 임금근로자 28.6%로 남성가구주 48.1%에 비해 약 1/2수준인 반면,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여성가구주가 23.2%로 남성 가구주의 7.9%에 비해 3배 높고,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여성가구주가 21.4%로 남성가구주의 10.5%에 비해 2배 높다. 이처럼 여성 가구주의 고용상태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상당히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표 4-13〉 가구주 성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가구주의 성별 취업여부	구분	취업			비취업				합계
		남성	83.2			16.8			
여성		56.2			43.8				100.0
취업가구주의 성별 고용상태	구분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활 및 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합계
		남성	48.1	7.9	10.5	0.1	4.6	28.6	
	여성	28.6	23.2	21.4	1.6	1.1	23.9	0.2	100.0

가구주의 장애여부별 취업여부를 보면, 비장애인 가구주의 취업 비율은 80.1%인 반면, 장애인 가구주의 취업 비율은 52.6%로 장애인 가구주의 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14〉 장애상태별 경제활동 참여상태

(단위: %)

장애여부	구분		취업	비취업	합계
		비장애인		80.1	19.9
	장애인		52.6	47.4	100.0
취업 장애인 가구주의 고용상태	장애등급	1급	36.6	63.4	100.0
		2급	34.6	65.4	100.0
		3급	46.8	53.2	100.0
		4급	51.7	48.3	100.0
		5급	51.2	48.8	100.0
		6급	72.7	27.3	100.0
	장애정도	중증	35.5	64.5	100.0
		경증	57.5	42.5	100.0
		상용직 임금근로자	27.8	/	/
		임시직 임금근로자	10.9		
		일용직 임금근로자	15.1		
		자활 및 공공근로	2.1		
		고용주	4.5		
	자영업자	38.6			
	무급가족종사자	1.0			
	합계	100.0			

장애인 가구주의 장애 등급에 따른 취업여부를 보면 급수가 높아질수록 - 즉, 경증장애일수록 - 취업이 높아져 6급의 경우 취업자가 72.7%로 일반인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다. 중/경증 장애정도에 따른 취업여부를 보면 중증장애인 가구주의 35.5%가 취업상태이고, 경증장애인 가구주의 57.5%가 취업상태였다.

취업한 장애인 가구주의 고용상태를 보면 임금근로자가 53.8%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임시직(10.9%)과 일용직(15.1%)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서 고용상태가 안정적이지는 않았다. 이어서 자영업자가 38.6%로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 가구원주¹⁹⁾ 특성

가구주 특성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만65세 이상의 노인 가구원이 속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먼저 노인이 없는 가구는 전체의 75.8%, 노인이 한 명 이상 있는 가구는 전체의 24.2%로 네 가구 중 한 가구에는 노인이 한 명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한 명 있는 경우는 전체의 17.7%로 나타났다으며, 노인이 2명 있는 가구는 6.4%, 그리고 3명 이상이 있는 가구는 0.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15〉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비율

(단위: %)

구분	비율
노인이 없는 가구	75.8
노인이 있는 가구	24.2
노인 1명 있는 가구	17.7
노인 2명 있는 가구	6.4
노인 3명 이상 있는 가구	0.1
전체	100.00

주19) 가구주 포함

가구원 중 등록장애인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를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이 없는 가구는 전체의 90.7%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가구는 전체의 9.3%로 나타났다. 가구원 중 장애인이 1명만 있는 가구가 8.6%로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장애인이 2명인 경우가 0.7%, 3명 이상인 경우도 0.1%인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표 4-16〉 장애인이 있는 가구비율

(단위: %)

구분	비율
장애인이 없는 가구	90.7
장애인이 있는 가구	9.3
장애인 1명 있는 가구	8.6
장애인 2명 있는 가구	0.7
장애인 3명 이상 있는 가구	0.1
전체	100.00

한편, 중증장애인(1급, 2급) 가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구를 비교해보면, 중증장애인이 없는 가구, 즉, 비장애인가구와 경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는 전체의 97.2%이고, 중증장애인이 속해 있는 가구는 전체의 2.8%로 나타났으며, 중증장애인이 1명인 경우가 2.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중증장애인이 2명 이상이 있는 경우도 전체의 0.2%로 조사되었다.

〈표 4-17〉 중증장애인(1, 2급)이 있는 가구비율

(단위: %)

구분	비율
중증장애인이 없는 가구	97.2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	2.8
중증장애인이 1명 있는 가구	2.6
중증장애인이 2명 이상 있는 가구	0.2
전체	100.00

다음으로 아동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만18세 미만의 아동가구원의 유무와 가구원수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들 대부분이 학비가 들어가는 학생이거나,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계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유무와 수에 따라 가구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먼저,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아동가구원이 없는 가구는 전체의 53.8%, 아동가구원이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46.2%로 나타났다. 이 중 아동가구원이 1명 있는 경우는 전체의 16.7%, 2명 있는 경우는 전체의 25.4%, 그리고 3명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4.1%로 나타나 2명의 아동을 둔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아동가구원이 있는 가구비율

(단위: %)

구분	비율
아동가구원이 없는 가구	53.8
아동가구원이 있는 가구	46.2
아동가구원이 1명 있는 가구	16.7
아동가구원이 2명 있는 가구	25.4
아동가구원이 3명 이상 있는 가구	4.1
전체	100.00

주: 아동가구원은 만 18세 미만의 가구원임.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가구원 즉, 취업한 가구원의 유무와 취업한 가구원의 수에 따른 가구비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취업한 가구원이란 경제활동참여상태 조사결과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자활 및 공공근로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로 응답한 가구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거나, 가족소득에 기여하고 있는 가구원을 뜻한다. 결과는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취업한 가구원이 없는 가구가 전체의 14.7%이고 취업한 가구원이 1명이라도 속한 가구는 전체의 8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취업한 가구원이 1명인 경우가 49.6%, 2명인 경우가 30.4%, 그리고 3명 이상인 경우는 5.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19〉 취업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비율

(단위: %)

구분	비율
취업한 가구원이 없는 가구	14.7
취업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	85.3
취업한 가구원이 1명 있는 가구	49.6
취업한 가구원이 2명 있는 가구	30.4
취업한 가구원이 3명 이상 있는 가구	5.3
전체	100.00

노인, 아동, 중증장애인으로만 가구가 구성된 근로무능력가구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근로무능력가구는 전체의 10.3%로 나타나 10% 이상의 가구가 연령 및 장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하여 공공부조를 비롯한 사회복지제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0〉 근로무능력가구비율

(단위: %)

구분	비율
근로능력가구	89.7
근로무능력가구	10.3
전체	100.00

주: 근로무능력가구는 노인, 아동, 중증장애인으로만 이루어진 가구임.

제2절 소득 및 지출

1. 소득

가. 소득일반

조사가구의 평균소득을 살펴보면, 경상소득은 236.4만원이었으며, 시장소득은 230.3만원, 가처분 소득은 218.5만원, 공공부조전 소득은 234.8만원으로 나타났다. 각 소득구분의 특성은 [그림 4-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본 보고서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득은 경상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4-21> 조사가구의 평균소득

(단위: 만원)

	경상소득 ¹⁾	시장소득 ²⁾	가처분소득 ³⁾	공공부조전 소득 ⁴⁾
소득액	236.4	230.3	218.5	234.8

- 주: 1) 경상소득: 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 2) 시장소득: 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 3) 가처분 소득: (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 (사회보장부담금+소득세)
- 4) 공공부조전 소득: 경상소득-공공부조성 급여

<표 4-22>에서 지역별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중위소득의 경우 대도시 220만원, 중소도시, 214.1만원 농어촌 138만원이고, 평균소득의 경우 대도시 253만원, 중소도시 244.6만원, 농어촌 178.3만원으로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규모별 소득을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3만원, 평균소득 97.4만원이며, 최빈가구인 4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280만원, 평균소득 310.4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소득구분

소득	비경상 소득: 경조소득, 폐품매각대금, 기타		경상 소득	시 장 소 득	가 처 분 소 득	공 공 부 조 전 소 득	
	이전 소득	사적: 기업연금, 기타 사적 현금소득					
지출	비 소 비 지 출	근로소득 (Wage and Salary Income)	경 상 소 득	시 장 소 득	가 처 분 소 득	공 공 부 조 전 소 득	
		사업 및 부업소득 (Gross Self-Employment Income)					
		재산소득 (Realised Property Income)					
		공적					사회보험
		공공부조성 급여					
공적연금	사회보장분담금						
사회보험							
조세	소득세						
기타 비소비 지출	재산세, 토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소비 지출							

자료: 박찬용·강석훈·김태완, 『소득분배와 빈곤동향 및 변화요인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수급여부에 따른 소득을 보면, 기초보장 수급자의 중위소득은 51만원, 평균소득 66.1만원이며, 기초보장 비수급자들은 중위소득 213만원, 평균소득 242.6만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수급자는 기초보장 비수급자에 비해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모두 1/4수준이었다.

주거점유 형태에 따른 소득을 보면 자가와 전세인 경우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나타내었고 보증부 월세, 월세, 무상거주가 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나타내었다. 특히 월세의 경우가 중위소득 109만원, 평균소득 134만원으로 가장 소득이 낮았다.

〈표 4-22〉 지역별, 가구규모별, 수급여부별, 주거점유형태별 소득 (단위:만원)

구분		중위소득	평균소득
지역별 소득	대도시	220.0	253.0
	중소도시	214.1	244.6
	농어촌	138.0	178.3
가구규모별 소득	1인 가구	63.0	97.4
	2인 가구	121.0	168.0
	3인 가구	220.0	251.3
	4인 가구	280.0	310.4
	5인 가구	300.0	329.2
	6인 가구	307.0	334.5
	7인 이상 가구	312.0	351.5
수급여부에 따른 소득	기초보장 수급	51.0	66.1
	기초보장 비수급	213.0	242.6
주거점유 형태에 따른 소득	자가	226.0	256.3
	전세	213.1	239.2
	보증부 월세	160.0	186.1
	월세	109.0	134.0
	무상거주	139.9	178.6
	기타	159.3	216.0

가구주의 성(性)에 따른 소득을 살펴보면, 가구주가 남성일 때 평균소득은 260.8만원, 여성일 때는 117.9만원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남성가구주가 구 소득의 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소득을 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40대일 때 283.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30대 274.8만원, 50대 263.7만원 순으로 소득이 높았다. 가구주의 연령이 10대, 70대 이상일 때 소

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즉, 연령에 따른 소득분포는 40대를 정점으로 역U자형의 소득분포를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장애에 따른 소득을 보면, 가구주가 비장애인인 경우 소득은 240.3만원, 장애인일 때 171만원으로 장애인 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비장애인 가구주 소득의 7/1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주의 장애정도별 소득을 보면 중증장애 159만원 경증장애 174.4만원으로 경증 장애인 가구주가 중증 장애인 가구주 보다 15.4만원 정도 더 높았다.

〈표 4-23〉 가구주 특성별 소득

(단위:만원)

구분		평균소득	
가구주의 성별	남	260.8	
	여	117.9	
가구주의 연령대별	10대	89.1	
	20대	212.1	
	30대	274.8	
	40대	283.7	
	50대	263.7	
	60대	152.6	
	70대 이상	74.6	
가구주의 장애	장애여부	비장애인	240.3
		장애인	171.0
	장애정도	중증	159.0
		경증	174.4
가구주의 취업여부	취업여부	취업	271.3
		비취업	108.2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28.3
		임시직 임금근로자	192.4
		일용직 임금근로자	146.8
		자활 및 공공근로	74.8
		고용주	405.9
		자영업자	241.0
		무급가족종사자	249.5
		실업자	117.8
		비경제활동인구	106.5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소득을 보면, 가구주의 취업 여부에 따라 가구가 취업상태일 때는 271.3만원, 비취업상태일 때는 108.2만원으로 취업 여부에 따른 소득의 격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고용상태에 따른 소득을 보면 취업 가구주 중에서도 고용주 405.9만원, 상용직 임금근로자 328.3만원으로 높은 소득을 나타냈고, 자활 및 공공근로(74.8만원)와, 일용직 임금근로자(146.8만원)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가구원 특성에 따른 평균소득을 살펴보았다. 근로능력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소득을 보면 가구에 근로능력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평균소득이 256.4만원이나, 근로능력 가구원이 한명도 없는 경우는 평균소득이 63.8만원으로 근로능력 가구원의 유무에 따라 소득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노인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소득을 보면 노인가구원이 없는 가구는 소득이 261.2만원인 반면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159만원으로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원의 수에 따른 차이를 보면, 노인가구원이 1명일 때는 170.6만원이고, 2명일 때는 125.6만원으로 노인가구원의 수가 1명에서 2명으로 늘 때 소득은 45만원 감소하였다.

장애인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소득을 보면 장애인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240.7만원이고, 장애인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195.1만원으로 장애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평균 소득이 더 낮았다. 장애인 가구원의 수에 따른 소득을 보면 장애인 가구원이 1명일 때는 196.2만원이고, 2명일 때는 169.3만원으로 장애인 가구원이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할 때 소득이 26.9만원 감소하였다.

아동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소득을 보면 아동가구원이 없는 가구는 192.4만원이고, 아동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291.1만원으로 아동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소득이 98.7만원 더 높았다. 아동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을 보면 아동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소득은 더욱 증가하였다.

취업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소득을 보면 취업가구원이 없는 가구는 68.2만원이고, 취업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265.4만원이었다. 취업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을 보면 취업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소득은 증가하였다.

〈표 4-24〉 가구원 특성별 소득

(단위: 만원)

구분		평균소득
근로능력가구원의 유무	근로능력가구원이 있는 가구	256.4
	근로능력가구원이 없는 가구 (근로무능력가구원 ¹⁾ 만으로 이루어진 가구	63.8
노인 ²⁾ 가구원의 유무	노인이 없는 가구	261.2
	노인이 있는 가구	159.0
	노인가구원 1명	170.6
	노인가구원 2명	125.6
	노인가구원 3명 이상	210.6
장애인 ³⁾ 가구원의 유무	장애인이 없는 가구	240.7
	장애인이 있는 가구	195.1
	장애인 가구원 1명	196.2
	장애인 가구원 2명	169.3
	장애인 가구원 3명 이상	269.9
아동 ⁴⁾ 가구원의 유무	아동이 없는 가구	192.4
	아동이 있는 가구	291.1
	아동 가구원 1명	272.9
	아동 가구원 2명	301.4
	아동 가구원 3명 이상	305.4
취업 ⁵⁾ 가구원의 유무	취업 가구원이 없는 가구	68.2
	취업 가구원이 있는 가구	265.4
	취업가구원 1명	226.0
	취업 가구원 2명	310.4
	취업가구원 3명	345.9
	취업 가구원 4명	504.1
	취업 가구원 5명	492.4
	취업 가구원 6명	511.4

주: 1) 근로무능력가구원 가구: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2) 노인: 65세 이상

3) 장애인: 등록 장애인 기준

4) 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

5) 취업자: 임금근로자, 자활 및 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나. 소득원천별 구성

다음으로 소득원천별 각 소득액의 구성비를 살펴보았다. 총경상소득 중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6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업소득 25.1%으로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이 91.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공적이전소

득은 2.6%, 사적이전소득은 3.1%로 이전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소득원천 구성

(단위: 만원, %)

	소득액	구성비
임금소득	156.3	66.1
사업소득	59.4	25.1
부업소득	1.9	0.8
재산소득	5.4	2.3
공적이전소득	6.2	2.6
사적이전소득	7.3	3.1
경상소득	236.4	100.0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별·소득원천 구성비를 보면, 임금소득의 경우 대도시 67.1%, 중소도시 68.0%로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농어촌의 경우는 임금소득이 57.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사업소득의 경우 농어촌의 비중이 30.6%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적·사적 이전소득 또한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26〉 지역별 소득원천 구성

(단위: 만원,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임금소득	169.7	67.1	166.4	68.0	102.9	57.7
사업소득	62.1	24.5	58.2	23.8	54.5	30.6
부업소득	1.9	0.7	1.6	0.7	2.7	1.5
재산소득	5.9	2.3	6.1	2.5	2.8	1.5
공적이전소득	5.6	2.2	6.3	2.6	7.4	4.2
사적이전소득	7.9	3.1	6.1	2.5	8.1	4.5
경상소득	253.0	100.0	244.6	100.0	178.3	100.0

가구주 성별에 따른 소득원천 구성비를 보면 남성가구주의 경우 근로소득이 66.6%, 사업소득이 26.0%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92.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

다. 반면 여성가구의 경우는 임금소득이 60.4%, 사업소득이 16.0%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76.4%로 남성가구주 보다 적게 나타났다. 대신 사적이전소득이 13.5%로 남성가구의 2.1%에 비해 상당히 높았으며, 공적이전소득 역시 5.7%로 남성가구의 2.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27〉 가구주 성별 소득원천 구성

(단위: 만원, %)

	남		여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임금소득	173.7	66.6	71.2	60.4
사업소득	67.7	26.0	18.9	16.0
부업소득	2.0	0.8	1.6	1.3
재산소득	5.7	2.2	3.6	3.1
공적이전소득	6.1	2.3	6.7	5.7
사적이전소득	5.6	2.1	15.9	13.5
경상소득	260.8	100.0	117.9	100.0

가구주의 연령대별 소득원천 구성비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임금소득의 비중이 82.5%, 7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사업소득은 40대가 30.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50대가 28.9%를 차지하였다. 10대와 70대 이상은 사적이전소득이 39.8%, 32.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28〉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원천 구성

(단위: 만원,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임금소득	48.2	54.1	174.9	82.5	210.0	76.4	184.9	65.2	166.2	63.0	72.5	47.5	15.3	20.5
사업소득	.0	.0	16.1	7.6	57.0	20.7	87.3	30.8	76.1	28.9	35.2	23.0	11.6	15.6
부업소득	5.3	6.0	1.9	0.9	1.0	0.4	2.3	0.8	3.4	1.3	1.7	1.1	.8	1.1
재산소득	.0	.0	8.0	3.8	1.9	0.7	3.1	1.1	8.4	3.2	10.9	7.2	6.2	8.3
공적이전소득	0.1	0.1	1.6	0.8	2.1	0.8	2.5	0.9	5.4	2.0	17.3	11.3	16.9	22.6
사적이전소득	35.4	39.8	9.6	4.5	2.9	1.0	3.6	1.3	4.3	1.7	15.0	9.8	23.9	32.0
경상소득	89.1	100.0	212.1	100.0	274.8	100.0	283.7	100.0	263.7	100.0	152.6	100.0	74.6	100.0

다음으로 가구주의 장애상태별 소득원천의 구성비를 보면, 가구주의 장애여부에 따라 비장애인가구주의 경우 임금소득이 66.6%이고, 장애인가구주는 52.7%로 장애인 가구주의 임금소득 비중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가구주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9.3%로 비장애인가구주 2.3%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장애정도에 따른 구성비를 보면 가구주가 중증장애일 때 임금소득이 42.0%이고 경증장애일 때 55.5%로 경증장애일 때 임금소득이 더 높았다.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중증장애일 때 19.9%, 경증장애일 때 6.5%로 중증장애일 때 공적이전소득이 훨씬 더 높았다.

〈표 4-29〉 가구주 장애여부별 소득원천 구성

(단위: 만원, %)

	장애여부				장애정도			
	비장애인		장애인		중증		경증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임금소득	160.1	66.6	90.1	52.7	66.8	42.0	96.8	55.5
사업소득	60.1	25.0	47.5	27.8	44.0	27.7	48.5	27.8
부업소득	1.9	0.8	2.2	1.3	1.9	1.2	2.3	1.3
재산소득	5.3	2.2	5.7	3.3	5.0	3.2	5.9	3.4
공적이전소득	5.6	2.3	15.9	9.3	31.7	19.9	11.4	6.5
사적이전소득	7.2	3.0	9.6	5.6	9.7	6.1	9.5	5.5
경상소득	240.3	100.0	171.0	100.0	159.0	100.0	174.4	100.0

가구주의 취업유무에 따른 소득원천 구성비를 보면 가구주가 취업한 경우는 임금소득 68.9%, 사업소득 26.8%로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이 95.7%로 대부분을 구성하였다. 반면 가구주가 비취업인 경우 임금소득이 40.1%, 사업소득이 9.4%로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이 49.5%로 소득원천의 1/2 정도만을 구성하여 취업가구에 비하여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 대신 비취업가구주의 경우 사적이전소득 20.6%, 공적이전소득 17.8%로 이전소득이 38.4%를 차지하여 취업가구의 이전소득 2.2%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4-30〉 가구주 취업여부별 소득원천 구성

(단위: 만원, %)

	취업		비취업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임금소득	187.0	68.9	43.4	40.1
사업소득	72.8	26.8	10.2	9.4
부업소득	2.0	0.7	1.6	1.5
재산소득	3.7	1.4	11.4	10.6
공적이전소득	2.6	1.0	19.3	17.8
사적이전소득	3.3	1.2	22.3	20.6
경상소득	271.3	100.0	108.2	100.0

〈표 4-31〉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별 소득원천 구성

(단위: 만원,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고용주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공공근로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임금소득	313.1	95.4	174.0	90.4	125.9	85.8	52.7	70.4	41.4	10.2
사업소득	7.8	2.4	5.5	2.9	5.0	3.4	.5	0.7	354.4	87.3
부업소득	1.3	0.4	2.1	1.8	2.1	1.4	4.1	5.4	2.4	0.6
재산소득	2.9	0.9	2.5	1.3	6.0	4.1	.7	0.9	4.6	1.1
공적이전소득	1.4	0.4	3.2	1.7	3.3	2.3	14.1	18.8	1.4	0.3
사적이전소득	1.8	0.6	5.2	2.7	4.4	3.0	2.8	3.7	1.9	0.5
경상소득	328.3	100.0	192.4	100.0	146.8	100.0	74.8	100.0	405.9	100.0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임금소득	35.6	14.8	46.9	18.8	67.6	57.4	39.1	36.7
사업소득	189.4	78.6	164.0	65.7	14.9	12.7	9.3	8.8
부업소득	3.1	1.3	1.4	0.6	1.6	1.3	1.6	1.5
재산소득	4.4	1.8	12.0	4.8	10.3	8.7	11.7	10.9
공적이전소득	4.0	1.7	7.2	2.9	9.2	7.8	21.1	19.8
사적이전소득	4.6	1.9	17.9	7.2	14.3	12.1	23.8	22.3
경상소득	241.0	100.0	249.5	100.0	117.8	100.0	106.5	100.0

가구주 경제상태별 소득원천 구성비를 보면, 임금근로자, 자활 및 공공근로의 경우 임금소득의 비율이 높았고,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사업소득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이전소득과 재

산소득의 비중이 높았다.

근로능력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소득원천 구성비를 보면, 근로능력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임금소득이 67.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근로능력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이전소득이 62.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32〉 근로능력 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소득원천 구성

(단위: 만원, %)

	근로능력가구원이 있는 가구		근로능력 가구원이 없는 가구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임금소득	173.5	67.6	6.9	10.8
사업소득	65.0	25.4	10.9	17.1
부업소득	2.0	.8	.9	1.4
재산소득	5.4	2.1	5.0	7.8
공적이전소득	5.0	2.0	16.5	25.9
사적이전소득	5.5	2.1	23.6	37.0
경상소득	256.4	100.0	63.8	100.0

노인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소득원천 구성비를 보면 노인가구원이 없는 가구는 임금소득 69.0%, 사업소득 25.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임금소득은 5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노인가구원이 없는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고, 반면 이전소득은 노인가구원이 없는 가구의 3.3%에 비해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18.5%로 높게 나타났다.

〈표 4-33〉 노인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소득원천 구성

(단위: 만원, %)

	노인가구원이 없는 가구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임금소득	180.2	69.0	81.2	51.0
사업소득	66.2	25.4	38.0	23.9
부업소득	2.0	0.8	1.6	1.0
재산소득	4.2	1.6	8.9	5.6
공적이전소득	3.9	1.5	13.4	8.4
사적이전소득	4.6	1.8	16.0	10.1
경상소득	261.2	100.0	159.0	100

장애인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소득원천 구성비를 보면, 장애인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임금소득이 66.9%였으며 장애인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임금소득이 56.9%로 장애인가구원이 있는 경우 임금소득의 비중이 더 낮았다. 반면 장애인가구원이 있는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7.4%로 장애인 가구원이 없는 경우의 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34〉 장애인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소득원천

(단위: 만원, %)

	장애인이 없는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임금소득	160.9	66.9	111.0	56.9
사업소득	60.1	24.9	52.6	27.0
부업소득	1.9	0.8	2.1	1.1
재산소득	5.3	2.2	5.9	3.0
공적이전소득	5.3	2.2	14.5	7.4
사적이전소득	7.2	3.0	8.9	4.6
경상소득	240.7	100.0	195.1	100.0

아동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소득원천 구성비를 보면 아동가구원의 유무에 관계없이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원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아동가구원이 없는 경우 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4-35〉 아동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소득원천

(단위: 만원, %)

	아동이 없는 가구		아동이 있는 가구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임금소득	118.8	61.8	202.7	69.6
사업소득	44.8	23.3	77.5	26.6
부업소득	2.2	1.2	1.6	0.5
재산소득	7.3	3.8	3.0	1.0
공적이전소득	8.8	4.6	2.9	1.0
사적이전소득	10.4	5.4	3.5	1.2
경상소득	192.4	100.0	291.1	100.0

취업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소득원천 구성비를 보면 취업가구원이 없는 경우 이전소득이 73.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재산소득이 17.1%로 높았다. 반면 취업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임금소득 68.8%, 사업소득 26.2%로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의 대부분을 구성하여 취업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소득원천 구성비의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표 4-36〉 취업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소득원천

(단위: 만원, %)

	취업가구원이 없는 가구		취업가구원이 있는 가구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임금소득	3.6	5.2	182.5	68.8
사업소득	1.1	1.5	69.5	26.2
부업소득	1.5	2.3	2.0	0.8
재산소득	11.7	17.1	4.3	1.6
공적이전소득	21.5	31.5	3.4	1.2
사적이전소득	28.8	42.2	3.7	1.4
경상소득	68.2	100.0	265.4	100.0

취업자수에 따른 소득원천 구성비의 차이를 보면 취업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소득원천 구성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지만, 취업자수에 따른 구성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4-37〉 취업자수에 따른 소득원천 구성

(단위: 만원, %)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임금소득	3.6	5.3	158.3	70.1	208.9	67.3	242.2	70.0	324.6	64.4	335.2	68.1	322.4	63.0
사업소득	1.1	1.5	53.1	23.5	90.1	29.0	90.4	26.1	163.8	32.5	149.1	30.3	171.4	33.5
부업소득	1.5	2.3	1.8	0.8	2.3	0.7	2.5	0.7	2.4	0.5	1.7	0.3	7.8	1.5
재산소득	11.7	17.1	4.8	2.1	3.3	1.1	4.8	1.4	6.2	1.2	.9	0.2	.0	.0
공적이전소득	21.5	31.5	3.5	1.6	3.4	1.1	3.6	1.0	5.2	1.0	4.3	0.9	9.9	1.9
사적이전소득	28.8	42.2	4.5	2.0	2.5	0.8	2.5	0.7	2.0	0.4	1.3	0.3	.0	.0
경상소득	68.2	100.0	226.0	100.0	310.4	100.0	346.0	100.0	504.1	100.0	492.5	100.0	511.5	100.0

기초보장급여의 수급여부에 따른 소득원천 구성비의 차이를 보면,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5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임금소득은 26.2% 수준이었다. 반면 비수급가구는 임금소득이 66.6%, 사업소득이 25.3%로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원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4-38〉 수급/비수급 여부에 따른 소득원천 구성

(단위: 만원, %)

	기초보장수급가구		기초보장비수급가구	
	소득액	구성비	소득액	구성비
임금소득	17.3	26.2	161.7	66.6
사업소득	7.2	10.9	61.4	25.3
부업소득	1.3	2.0	1.9	0.8
재산소득	.5	0.7	5.1	2.1
공적이전소득	34.2	51.7	5.1	2.1
사적이전소득	5.6	8.5	7.4	3.1
경상소득	66.1	100.0	242.6	100.0

2. 지출

가. 지출일반

여기에서는 2005년 7월에서 9월까지의 3개월간 생활비로 지출된 총지출의 월평균 금액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총지출은 19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는 212.8만원, 중소도시는 197.5만원, 그리고 농어촌은 148.6만원으로 조사되어 거주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도시와 농어촌의 생활비 지출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지역별 월평균 총지출

(단위: 만원, %)

구분	총지출액	가구비율
대도시	212.8	49.2
중소도시	197.5	32.3
농어촌	148.6	18.5
전체	196.0	100.0

가구규모별 총지출액을 살펴본 결과,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생활비 지출이 커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실제로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지출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총지출액은 81.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인가구는 139.6만원, 3인가구는 206.5만원, 그리고 가구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인가구의 경우는 255.4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4-40〉 가구규모별 월평균 총지출

(단위: 만원, %)

구분	총지출액	가구비율
1인 가구	81.7	14.4
2인 가구	139.6	22.8
3인 가구	206.5	22.0
4인 가구	255.4	30.6
5인 가구	278.5	7.8
6인 가구	286.1	1.9
7인 이상 가구	312.5	0.6
전체	196.0	100.0

이번에는 기초보장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로 구분하여 생활비 총지출액을 살펴 보았다. 먼저 전체가구의 3.8%를 차지하는 수급가구의 경우 68.8만원을, 그리고 96.2%의 비수급가구는 200.9만원을 각각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급가구는 비수급가구 생활비 지출의 약 34%만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1〉 기초보장수급여부별 월평균 총지출

(단위: 만원, %)

구분	총지출액	가구비율
수급	68.8	3.8
비수급	200.9	96.2
전체	196.0	100.0

주거점유형태별로 총지출액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가구의 60%에 달하는 자가소유 가구는 월평균 212.8만원을 지출하여 가장 큰 지출액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전세가구(189.1만원), 보증부 월세가구(169.4만원), 월세가구(132.5만원)의 순으로 지출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주거점유형태가 안정적일수록 생활비 지출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42〉 주거점유형태별 월평균 총지출

(단위: 만원, %)

구분	총지출액	가구비율
자가	212.8	57.8
전세	189.1	22.4
보증부월세	169.4	10.6
월세	132.5	4.3
무상거주	141.4	4.8
기타	163.0	0.1
전체	196.0	100.0

근로능력이구와 근로무능력이구로 구분하여 총지출액을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근로능력이구는 210.8만원을, 근로무능력이구는 61.4만원을 각각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무능력이구는 근로능력이구 지출의 29% 정도만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3〉 근로능력이구와 근로무능력이구별 월평균 총지출

(단위: 만원, %)

구분	총지출액	가구비율
근로능력 가구	210.8	90.0
근로무능력 가구	61.4	10.0
전체	196.0	100.0

노인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총지출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4-44〉에서 보듯이, 노인이 없는 가구의 총지출은 214.4만원으로 전체평균인 196.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이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이보다 훨씬 적은 138.2만원

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4〉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월평균 총지출

(단위: 만원, %)

구분	총지출액	가구비율
노인이 없는 가구	214.4	75.8
노인 가구	138.2	24.2
전체	196.0	100.0

장애인 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총지출액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먼저 장애인이 없는 가구의 총지출액은 198.2만원으로 전체평균인 196.0만원을 상회하였으며,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총지출액은 170.0만원으로 전체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5〉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총지출

(단위: 만원, %)

구분	총지출액	가구비율
비장애인 가구	198.2	90.7
장애인 가구	174.0	9.3
전체	196.0	100.0

나. 지출비목 구성

이번에는 각 지출비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가구의 특성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지출비목 구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각각의 비목은 2005년 7월에서 9월 사이 3개월간 평균지출액을 조사하였으나 세금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의 1년간 지출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였음을 밝혀둔다. 전체적인 지출비목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총지출액 중에서 장보는 비용이 43.0만원으로 전체의 21.9%의 비중으로 기타지출을 제외한 지출비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통통신비 16.3%(31.9만원), 교육비

13.7%(27.0만원),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6.4%(12.5만원) 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6〉 지출비목 구성

(단위: 만원, %)

구분	평균	비중
장보는 비용	43.0	21.9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12.5	6.4
보건의료비	8.1	4.1
교육비	27.0	13.7
교통통신비	31.9	16.3
기타지출	71.4	36.3
세금	2.5	1.3
총계	196.5 ¹⁾	100.0

주: 1) 각 비목별 지출액의 합이 총지출액(196.0)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목별 무응답을 제외함에 따라 계산과정상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지역별로 지출비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장보는 비용은 22% 수준으로 지역별 편차가 거의 없었고,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는 농어촌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7〉 지역별 지출비목 구성

(단위: 만원,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평균	비중	평균	비중	평균	비중
장보는 비용	46.6	21.8	43.6	22.0	32.7	22.1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13.7	6.4	13.1	6.6	8.5	5.7
보건의료비	8.5	4.0	8.4	4.2	6.7	4.5
교육비	32.4	15.2	25.9	13.1	14.7	9.9
교통통신비	33.1	15.5	33.2	16.7	26.6	17.9
기타지출	76.3	35.7	71.9	36.3	57.4	38.7
세금	2.9	1.4	2.4	1.2	1.8	1.2
총계	213.5	100.0	198.2	100.0	148.4	100.0

보건의료비의 경우는 대도시 4.0%, 중소도시 4.2%, 농어촌 4.5%의 순으로 농어촌으로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비는 대도시 15.2%, 중소도시 13.1%, 그리고 농어촌 9.9%의 순으로 나타나 농어촌에서 도시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갈수록 교육비의 지출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통통신비, 기타지출은 농어촌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세금의 경우는 대도시가 1.4%,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 수급여부별로 지출비목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표 4-48>에서 보듯이 수급여부별로 지출비목의 비중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8> 기초보장수급여부별 지출비목 구성

(단위: 만원, %)

구분	수급		비수급	
	평균	비중	평균	비중
장보는 비용	20.5	29.7	43.9	21.8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9.2	13.4	12.7	6.3
보건의료비	3.7	5.4	8.3	4.1
교육비	5.0	7.3	27.9	13.8
교통통신비	9.8	14.2	32.8	16.3
기타지출	20.4	29.7	73.3	36.4
세금	0.2	0.3	2.6	1.3
총계	68.8	100.0	201.5	100.0

먼저 장보는 비용의 경우 수급가구에서의 비중은 29.7%인데 비해 비수급가구에서의 비중은 21.8%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도 수급가구의 경우 13.4%를 차지하는 반면, 비수급가구에서는 6.3%만을 차지함으로써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에 비해 이 항목에 있어서 두 배 이상의 높은 비중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는 수급가구의 경우 4만원 미만의 지출을 하고 있으나 비중에 있어서는 비수급가구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비의 경우는 수급가구에서 7.3%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비수급가구에서는 13.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항목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상대적인 비중이 크지 않은 세금의 경우에서도 수급가구 0.3%, 비수급가구 1.3%로 상대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점유형태별로 지출비목의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주거점유형태에 따라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자가에서 5.1%, 전세에서 4.9%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보증부 월세와 월세의 경우 16.0%와 18.2%를 각각 차지하여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월세가 이 비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비목의 비중에 있어서는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9〉 주거점유형태별 지출비목 구성

(단위: 만원, %)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무상거주		기타	
	평균	비중	평균	비중	평균	비중	평균	비중	평균	비중	평균	비중
장보는 비용	45.7	21.5	42.5	22.5	35.0	20.7	28.9	21.8	44.2	28.9	38.9	23.8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10.8	5.1	9.2	4.9	27.1	16.0	24.1	18.2	7.2	4.7	6.7	4.1
보건의료비	9.5	4.5	7.1	3.8	5.6	3.3	4.1	3.1	5.3	3.5	12.8	7.9
교육비	30.6	14.4	27.5	14.6	16.8	10.0	12.2	9.2	17.8	11.7	17.9	11.0
교통통신비	34.1	16.0	31.9	16.9	28.3	16.7	22.2	16.8	23.3	15.3	21.6	13.2
기타지출	79.0	37.1	68.9	36.5	55.2	32.7	40.3	30.4	53.5	35.1	63.8	39.1
세금	3.4	1.6	1.6	0.9	1.0	0.6	0.6	0.5	1.2	0.8	1.3	0.8
총계	213.0	100.0	188.7	100.0	168.9	100.0	132.5	100.0	152.6	100.0	163.0	100.0

근로능력이구와 근로무능력이구로 나누어 지출비목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이번에도 역시 보건의료비, 교육비에 있어서 두 집단간의 지출비중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보건의료비의 경우 근로능력이구에서의 지출비중이 3.9%에 불과한 반면, 근로무능력이구에서는 11.3%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근로무능력이구가 노인, 중증장애인 등 보건의료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비의 경우는 반대로 근로능력이구에서 14.2%를 차지하는

반면, 근로무능력가구에서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밖에 장보는 비용,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세금에 있어서는 근로무능력가구에서의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교통통신비와 기타지출에 있어서는 근로능력가구에서의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0〉 근로능력가구와 근로무능력가구별 지출비목 구성

(단위: 만원, %)

구분	근로능력가구		근로무능력가구	
	평균	비중	평균	비중
장보는 비용	45.8	21.6	19.4	31.3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13.2	6.2	6.5	10.6
보건의료비	8.2	3.9	7.0	11.3
교육비	30.0	14.2	1.1	1.8
교통통신비	34.8	16.4	7.0	11.3
기타지출	77.3	36.5	19.9	32.1
세금	2.7	1.3	1.1	1.7
총계	212.0	100.0	62.0	100.0

가구내 노인가구원 유무별 지출비목의 비중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 경우도 역시 보건의료비와 교육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보건의료비의 경우 노인이 있는 가구에서의 비중은 6.7%로 노인이 없는 가구에서의 비중인 3.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노인이 있는 가구에서의 비중은 8.7%인데 반해 노인이 없는 가구에서의 비중은 14.8%로 나타났다. 나머지 항목에 있어서는 앞선 두 항목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장보는 비용,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세금의 항목이 노인이 있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1〉 노인가구원수별 지출비목 구성

(단위: 만원, %)

구분	노인이 없는 가구		노인이 있는 가구	
	평균	비중	평균	비중
장보는 비용	46.0	21.4	33.7	24.5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13.5	6.3	9.5	6.9
보건의료비	7.8	3.6	9.2	6.7
교육비	31.8	14.8	11.9	8.7
교통통신비	35.4	16.5	21.1	15.3
기타지출	78.1	36.3	50.2	36.5
세금	2.6	1.2	2.1	1.6
총계	215.2	100.0	137.8	100.0

아동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지출비목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역시 교육비로 나타났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교육비의 비중이 18.7%인데 반해 아동이 없는 가구의 경우는 7.3%로 나타나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2〉 아동가구원수별 지출비목 구성

(단위: 만원, %)

구분	아동이 없는가구		아동이 있는 가구	
	평균	비중	평균	비중
장보는 비용	34.0	21.4	53.6	22.3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11.4	7.2	13.8	5.7
보건의료비	8.5	5.3	7.7	3.2
교육비	11.7	7.3	44.9	18.7
교통통신비	26.9	16.9	37.8	15.7
기타지출	64.2	40.4	79.7	33.2
세금	2.3	1.5	2.7	1.1
총계	158.9	100.0	240.3	100.0

다음으로 큰 격차를 보이는 항목은 기타지출로 아동이 없는 가구에서 40.4%를 차지한 반면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는 33.2%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항목에 있어서는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비 및 광열수

도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세금의 항목에 있어서 아동이 없는 가구에서의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내 취업가구의 유무에 따라 지출비목의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업가구가 있는 가구의 경우 교육비 지출비중이 14.2%로 취업가구가 없는 가구의 7.0%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비중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통신비, 기타지출, 세금에 있어서 취업가구가 없는 가구에 비해 높은 지출비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취업가구가 없는 가구의 경우 보건의료비의 지출비중이 8.0%로 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업가구가 있는 가구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비중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장보는 비용,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지출에 있어서도 취업가구가 있는 가구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3〉 취업가구원수별 지출비목 구성

(단위: 만원, %)

구분	취업가구원이 없는 가구		취업가구원이 있는 가구	
	평균	비중	평균	비중
장보는 비용	24.4	27.0	46.2	21.5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9.2	10.2	13.1	6.1
보건의료비	7.2	8.0	8.3	3.8
교육비	6.3	7.0	30.6	14.2
교통통신비	12.1	13.4	35.4	16.5
기타지출	29.5	32.6	78.6	36.6
세금	1.7	1.8	2.7	1.2
총계	90.4	100.0	214.8	100.0

3. 가계수지^{주20)}

여기에서는 경상소득에서 총생활비 지출을 뺀 가계수지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즉, 가계수지가 흑자인 경우, 균형인 경우, 그리고 적자인 경우로

주20) 경상소득-총생활비

구분하여 가구의 특성별로 가계수지(액)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구의 총생활비 대비 경상소득의 비율을 구하여 이를 가구의 수입-지출 구조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로 삼아 전반적인 가계수지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체적인 가구는 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평균액수는 40.5만원이며, 총생활비 대비 경상소득의 지수는 1.2로 계산되었다. 총생활비 지출보다 경상소득이 더 큰 수지흑자가구는 전체가구의 6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83.3만원의 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흑자 가구의 총생활비 대비 경상소득의 지수는 1.4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소득보다 총생활비 지출이 많은 수지적자 가구의 평균 수지액은 -65.5만원이며, 이들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생활비 대비 경상소득의 지수는 0.7로 나타났다. 한편, 수지균형을 이루는 가구는 전체의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4〉 전체가구 가계수지 현황

(단위: 만원, %)

구분	가구비중	가계수지(액)	경상소득/총생활비
흑자: 경상소득 > 총생활비	68.9	83.3	1.4
균형: 경상소득 = 총생활비	5.2	0	1.0
적자: 경상소득 < 총생활비	25.9	-65.5	0.7
전체	100.0	40.5	1.2

기초보장 수급여부별 가계수지액과 총생활비 대비 경상소득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에 나타나있다. 먼저 전체가구의 3.7%를 차지하는 수급가구의 평균가계수지액은 -2.6만원으로 경미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총생활비 대비 경상소득의 비율은 1.0으로 거의 수지균형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가구의 96.3%에 해당하는 비수급가구의 경우는 수지액이 41.7만원, 총생활비 대비 경상소득의 비율은 1.2로 수지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5〉 기초보장수급여부별 평균가계수지

(단위: 만원, %)

구분		가구비중	가계수지(액)	경상소득/총생활비
전체	수급	3.7	-2.6	1.0
	비수급	96.3	41.7	1.2
	계	100.0	40.1 ¹⁾	1.2

주: 1) 기초보장수급여부별 가계수지가 전체가구의 가계수지와 다른 것은 기초보장수급 여부 문항에서 무응답 가구를 제외함으로써 이들 가구의 가계수지는 전체 가계수지 계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임.

주거점유형태별로 살펴본 가계수지상황은 아래의 표에서 정리되어 있다. 우선 흑자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주거점유형태는 전세(73.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가(70.0%)와 무상거주(68.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지흑자액은 기타에서 11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가, 전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지균형 가구의 비중은 전 점유형태에 걸쳐 4~11% 정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구의 비중은 월세(36.9%)와 보증부 월세(33.6%)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지만, 수지적자액은 자가와 전세가 각각 70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으로 60만원 미만대의 월세와 보증부 월세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6〉 주거점유형태별 평균가계수지

(단위: 만원, %)

구분	가구비중	가계수지(액)	경상소득/총지출	
자가	흑자	70.0	87.9	1.4
	균형	4.1	0.0	1.0
	적자	25.9	-69.9	0.7
	자가전체	100.0	43.5	1.2
전세	흑자	73.8	86.9	1.5
	균형	4.9	0.0	1.0
	적자	21.3	-65.8	0.6
	전세전체	100.0	50.1	1.3
보증부월세	흑자	59.4	61.2	1.4
	균형	7.0	0.0	1.0
	적자	33.6	-58.6	0.6
	보증부월세전체	100.0	16.7	1.1
월세	흑자	53.2	39.0	1.3
	균형	9.9	0.0	1.0
	적자	36.9	-52.2	0.6
	월세전체	100.0	1.5	1.0
무상거주	흑자	68.5	67.7	1.4
	균형	10.7	0.0	1.0
	적자	20.8	-44.1	0.7
	무상거주전체	100.0	37.2	1.2
기타	흑자	58.2	113.5	1.6
	균형	11.9	0.0	1.0
	적자	29.9	-43.9	0.7
	기타전체	99.9	53.0	1.3

4. 자산 및 부채 증감

다음으로 전체가구의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한 분석결과를 지역, 가구의 규모, 기초보장 수급여부, 주거점유형태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자산이 증가한 가구는 전체의 50.3%, 변동이 없는 가구는 전체의 34.5%, 그리고 자산이 감소한 가구는 15.2%로 나타나 자산이 증가한 가구가 감소한 가구보다 세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산의 증감액을 보면 증가한 가구는 평균 257.6만원이 증가한 반면, 감소한 가구는 평균 263.2만

원이 감소하여 감소한 가구의 감소폭이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7〉 자산 증감 현황 및 증감액

(단위: 만원, %)

	증가	무변동	감소	전체
가구비중	50.3	34.5	15.2	100.0
증감액	257.6	0.0	263.2	169.5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자산증감의 상황은 지역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산이 증가한 가구는 중소도시에서 53.1%인 반면, 대도시와 농어촌에서는 각각 49.8%와 46.6%로 중소도시에서 자산증가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증가액 또한 대도시와 농어촌에 비해 중소도시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이 감소한 가구는 중소도시가 13.7%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대도시 15.4%와 농어촌 17.2%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액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8〉 지역별 자산증감 현황 및 증감액

(단위: 만원, %)

구분	구분	가구비중	증감액
대도시	증가	49.8	254.8
	무변동	34.8	0.0
	감소	15.4	321.4
	계	100.0	176.5
중소도시	증가	53.1	264.3
	무변동	33.2	0.0
	감소	13.7	225.8
	계	100.0	171.3
농어촌	증가	46.6	252.4
	무변동	36.2	0.0
	감소	17.2	176.7
	계	100.0	148.0

자산증감 상황을 가구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자산의 증감이 가구규모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가구규모의 크기에 비례하여 자산증감이 발생하는 규칙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인가구를 제외하고는 가구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산증감액은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9〉 가구규모별 자산증감 현황 및 증감액

(단위: 만원, %)

	구분	가구비중	변동액
1인가구	증가	38.3	160.7
	무변동	47.4	0.0
	감소	14.2	177.3
	계	100.0	86.8
2인가구	증가	43.7	231.0
	무변동	39.8	0.0
	감소	16.5	201.6
	계	100.0	134.1
3인가구	증가	53.6	270.5
	무변동	30.8	0.1
	감소	15.5	261.8
	계	100.0	185.8
4인가구	증가	57.7	287.4
	무변동	28.4	0.0
	감소	13.9	357.6
	계	100.0	215.5
5인가구	증가	53.0	278.9
	무변동	30.1	0.0
	감소	16.9	242.8
	계	100.0	188.8
6인가구	증가	51.7	291.2
	무변동	33.1	0.0
	감소	15.3	369.9
	계	100.0	206.9
7인이상가구	증가	50.6	262.2
	무변동	31.7	0.0
	감소	17.7	355.7
	계	100.0	217.1

기초보장 수급여부별로 자산증감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먼저 수급가구 중 자산이 증가한 가구는 23.1%, 감소한 가구는 10.1%, 그리고 변동없는 가구가 66.9%로 나타났으며, 비수급가구 중 자산이 증가한 가구는 51.4%로 수급가구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의 가구에서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이 감소한 가구도 수급가구에 비해 다소 높은 15.4%로 나타났다. 반면 자산변동이 없는 가구가 33.2%로 수급가구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변동액은 수급가구에 비해 비수급가구에서 증가와 감소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0〉 기초보장 수급여부별 자산증감 현황 및 증감액

(단위: 만원, %)

구분		가구비중	변동액
수급	증가	23.1	57.6
	무변동	66.9	0.0
	감소	10.1	135.1
	계	100.0	26.9
비수급	증가	51.4	261.1
	무변동	33.2	0.0
	감소	15.4	266.6
	계	100.0	175.2

주거점유형태별로 자산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자산이 증가한 가구의 비중은 전세와(56.5%), 자가(51.9%)가 가장 높았으며 보증부 월세와 월세는 30% 중반대인 것으로 나타나 주거점유형태가 안정적일수록 자산증가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산 증가액은 전세(306.2만원)와 자가(256.5만원) 가구가 보증부 월세(188.0만원)와 월세(135.5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점유형태가 안정적일수록 자산증가폭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자산이 감소한 가구의 비중은 대부분의 주거점유형태에서 11~17% 사이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지만, 감소폭은 주거점유형태별로 상이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산변동이 없는 가구의 비중은 월세(53.2%)와 보증부 월세(47.9%) 가구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세(32.0%)와 자가(31.2%) 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

증을 나타내고 있다.

〈표 4-61〉 주거점유형태별 자산증감 현황 및 증감액

(단위: 만원, %)

	구분	가구비중	변동액
자가	증가	51.9	256.5
	무변동	31.2	0.0
	감소	16.9	254.2
	계	100.0	176.2
전세	증가	56.5	306.2
	무변동	32.0	0.0
	감소	11.5	331.7
	계	100.0	211.1
보증부월세	증가	36.8	188.0
	무변동	47.9	0.0
	감소	15.3	223.8
	계	100.0	103.4
월세	증가	32.2	135.5
	무변동	53.2	0.4
	감소	14.7	328.7
	계	100.0	91.9
무상거주	증가	48.5	196.5
	무변동	40.3	0.0
	감소	11.2	147.2
	계	100.0	111.8
기타	증가	41.2	303.9
	무변동	41.6	0.0
	감소	17.2	189.1
	계	100.0	157.8

부채가 증가한 가구는 전체의 10.6%, 감소한 가구가 전체의 6.5%이며, 변동이 없는 가구가 전체의 82.9%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가구에서 부채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증감액을 보면 증가한 가구의 경우 평균 379.2만원이 증가한 반면, 감소한 가구는 평균 248.7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2〉 부채증감 현황 및 증감액

(단위: 만원, %)

	증가	무변동	감소	전체
가구비중	10.6	82.9	6.5	100.0
금액	379.2	0.0	248.7	56.4

부채증감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현황과 마찬가지로 변동없는 가구의 비중이 전 지역에 걸쳐 80% 초중반대로 나타나고 있고, 증가가구와 감소가구의 비중은 지역별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지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순으로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변동폭을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는 증가액이 381.9만원, 감소액이 311.8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경우는 부채증가액에 비해 감소액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3〉 지역별 부채증감 현황 및 증감액

(단위: 만원, %)

구분	가구비중	변동액
대도시	증가	381.9
	무변동	0.0
	감소	311.8
	계	65.9
중소도시	증가	367.0
	무변동	0.0
	감소	194.7
	계	50.3
농어촌	증가	395.1
	무변동	0.0
	감소	143.9
	계	41.6

가구규모별로 부채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표 4-64>와 같다.

<표 4-64> 가구규모별 부채증감 현황 및 증감액

(단위: 만원, %)

	구분	가구비중	변동액
1인가구	증가	5.9	213.5
	무변동	91.1	0.0
	감소	3.0	265.7
	계	100.0	20.7
2인가구	증가	8.0	358.2
	무변동	87.3	0.0
	감소	4.7	204.2
	계	100.0	38.2
3인가구	증가	11.3	359.9
	무변동	81.3	0.0
	감소	7.3	230.7
	계	100.0	57.6
4인가구	증가	13.0	453.5
	무변동	78.6	0.0
	감소	8.4	283.2
	계	100.0	82.7
5인가구	증가	14.5	353.0
	무변동	77.9	0.0
	감소	7.6	247.2
	계	100.0	70.0
6인가구	증가	14.1	269.2
	무변동	77.6	0.0
	감소	8.2	133.7
	계	100.0	49.1
7인이상가구	증가	17.1	293.0
	무변동	78.4	0.0
	감소	4.4	188.7
	계	100.0	69.6

부채가 증가한 가구의 비중은 가구규모가 커질수록 조금씩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인가구 5.9%에서 7인가구 17.1%). 그러나 부채 증가액은 가구규모가 커질수록 점점 늘어나 4인가구에서 435.5만원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다시 6인가구까지는 줄어들다가 7인 이상가구에서 다시 조금 상승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부채가 감소한 가구의 비중도 부채가 증가한 가구의 비중과 마찬가지로 7인가구를 제외하고는 가구규모가 커질수록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인가구 3.0%에서 6인가구 8.2%). 감소액의 크기는 가구규모에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 수급여부별로 부채증감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먼저 수급가구 중 부채가 증가한 가구는 11.6%, 감소한 가구는 2.71%, 그리고 변동 없는 가구가 85.6%로 나타났으며, 비수급가구 중 부채가 증가한 가구는 10.6%, 감소한 가구는 6.6%로 나타나, 수급가구에 있어서 부채가 감소한 가구의 비중보다 부채가 증가한 가구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동액을 기준으로 보면 수급가구에 비해 비수급가구에서 증가와 감소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5〉 기초보장 수급여부별 부채증감 현황 및 증감액

(단위: 만원, %)

구분		가구비중	변동액
수급	증가	11.6	127.1
	무변동	85.6	0.0
	감소	2.7	250.3
	계	100.0	21.6
비수급	증가	10.6	390.1
	무변동	82.8	0.0
	감소	6.6	248.7
	계	100.0	57.7

주거점유형태별로 부채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부채가 증가한 가구의 비중은 월세(18.6%)와 보증부 월세(17.7%)가 가장 높았으며 그밖에 자가, 전세, 무상거주, 기타는 약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6〉 주거점유형태별 부채증감 현황 및 증감액

(단위: 만원, %)

구분		가구비중	변동액
자가	증가	9.1	421.3
	무변동	84.2	0.0
	감소	6.7	196.4
	계	100.0	51.3
전세	증가	10.1	528.7
	무변동	84.5	0.0
	감소	5.4	412.3
	계	100.0	75.6
보증부월세	증가	17.7	213.3
	무변동	74.4	0.0
	감소	8.0	196.1
	계	100.0	53.3
월세	증가	18.6	174.7
	무변동	75.5	0.0
	감소	5.8	578.6
	계	100.0	66.3
무상거주	증가	9.3	193.5
	무변동	84.7	0.0
	감소	6.0	137.3
	계	100.0	26.3
기타	증가	13.0	136.0
	무변동	79.9	0.0
	감소	7.0	178.8
	계	99.9	30.2

부채 증가액은 전세(528.7만원)와 자가(421.3만원) 가구가 보증부 월세(213.3만원)와 월세(174.7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점유형태가 안정적일수록 부채의 증가폭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부채가 감소한 가구의 비중은 주거점유형태별로 5~8% 수준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감소폭은 주거점유형태별로 상이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채변동이 없는 가구의 비중은 무상거주(84.7%), 전세(84.5%)와 자가(84.2%) 가구의 순으로 높았으며, 보증부 월세(74.4%)와 월세(75.5%)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제3절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특성 비교

제3절에서는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일반특성, 소득과 지출특성을 비교분석한다. 제3절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그 기준에 의한 규모를 추정한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규모는 각각 전 가구 대비 비율과 전 인구 대비 비율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일반특성을 비교한다. 일반특성은 가구특성, 가구주 특성, 가구원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득과 지출 특성을 비교한다. 여기에는 소득과 지출 뿐 아니라 가계수지, 자산과 부채 특성을 포함한다.

1.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규모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중위소득 50%이다. 저소득가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일반가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를 의미한다. 이 때, 두 가지를 고려하여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 어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이다. 가구소득은 소득 항목 구성에 따라 경상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공공부조 전 소득 등을 사용할 수 있

다. 본 절에서는 공공부조 전 소득을 사용한다. 차상위·빈곤패널 구축의 목적 중 하나가 빈곤정책 대상가구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빈곤정책 대상가구는 공공부조 급여를 하지 않았을 때, 빈곤에 놓여진 가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절의 저소득가구는 공공부조급여 전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가구규모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이다. OECD에서 사용하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가구규모별 중위소득 50%를 산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다음 저소득가구(인구)와 일반가구(인구)의 규모를 제시할 때는 두 가지 방법 각각을 사용한 규모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후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일반특성, 소득·지출 특성을 비교분석 할 때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구분은 전자 즉,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한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밝혀둔다.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구균등화 지수를 사용한 저소득가구의 규모는 22.5%, 저소득인구 규모는 17.0%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규모별 중위소득 50% 기준을 사용했을 때는 저소득가구규모가 19.3%, 저소득인구규모가 16.8%로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 규모가 다소 작게 추정됨을 알 수 있다.

〈표 4-67〉 저소득가구(인구)와 일반가구(인구) 규모

(단위: %)

구분		저소득	일반	전체
A	가구	22.5	77.5	100.0
	인구	17.0	83.0	100.0
B	가구	19.3	80.7	100.0
	인구	16.8	83.2	100.0

주: 1) A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한 중위소득 50%이하 규모를, B는 가구규모별 중위소득50%이하 규모를 각각 뜻함.

2.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일반 특성

조사가구를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로 분류하여 일반적인 가구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지역별로 특성을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일반가구가 80.5%,

81.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농어촌은 일반가구가 62.3%, 저소득 가구가 37.7%로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규모별 특성을 보면 1인 단독가구에서는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비율이 47.8%, 52.2%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2인~4인가구는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낮아졌다.

기초보장 수급 여부에 따른 특성을 보면 기초보장수급가구의 93.2%가 저소득가구이며, 기초보장비수급가구의 19.8%가 저소득 가구로 나타났다.

〈표 4-68〉 저소득 가구와 일반가구의 일반 특성

(단위:%)

구분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합계
지역별	대도시	19.5	80.5	100.0
	중소도시	18.5	81.5	100.0
	농어촌	37.7	62.3	100.0
가구규모별	1인가구	47.8	52.2	100.0
	2인가구	35.3	64.7	100.0
	3인가구	16.6	83.4	100.0
	4인가구	9.2	90.8	100.0
	5인가구	10.3	89.7	100.0
	6인가구	14.3	85.7	100.0
	7인 이상 가구	15.8	84.2	100.0
기초보장 수급여부	기초보장 수급	93.2	6.8	100.0
	기초보장 비수급	19.8	80.2	100.0
주거점유형태	자가	21.1	78.9	100.0
	전세	18.8	81.2	100.0
	보증부월세	23.6	76.4	100.0
	월세	41.5	58.5	100.0
	무상거주	38.4	61.6	100.0
	기타	44.0	56.0	100.0

주거점유형태별 특성을 보면 자가가구의 경우 21.1%, 전세가구의 경우 18.8%가 저소득가구인 반면, 보증부 월세가구의 23.6%, 월세가구의 41.5%, 무상거주 가구의 38.4%가 저소득가구인 것으로 나타나서, 저소득가구일수록 주거형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9.6세이고 일반가구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5.3세로, 저소득 가구주의 연령이 평균 14.3세가 많았다. 평균 가구원수를 보면 저소득 가구는 2.3명, 일반 가구는 3.2명으로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이 1명 정도 적었다. 가구주의 연령대별 비중을 비교해 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대부분 은퇴했거나 근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70대가 31.2%를, 60대가 24.7%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일반가구의 70대가 3.0%, 60대가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반가구의 경우는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 30대와 40대의 비중이 각각 29.2%와 31.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가구에서의 동일 연령대의 비중은 10.2%와 18.0%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9〉 저소득가구와 일반 가구의 가구주 연령, 가구규모 특성

(단위:%)

구분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평균연령		59.6세	45.3세
평균 가구원수		2.3명	3.2명
연령대	10대	0.1	0.1
	20대	2.2	7.0
	30대	10.2	29.2
	40대	18.0	31.5
	50대	13.6	19.2
	60대	24.7	9.9
	70대 이상	31.2	3.0
		100.0	100.0

노인가구주 가구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저소득 가구비율이 65.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구주 가구의 저소득 가구비율이 14.5%인 것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노인가구주 가구의 가구규모별 특징을 보면 노인 1인 단독가구의 저소득 가구 비율이 84.2%로 가장 높고,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줄어드는 형태를 보였다.

〈표 4-70〉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노인가구주 가구 특성

(단위: %)

구분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합계
노인가구주 가구	일반가구주 가구	14.5	85.5	100.0
	노인가구주 가구	65.7	34.3	100.0
노인가구주 가구 가구규모	1인가구	84.2	15.8	100.0
	2인가구	65.3	34.7	100.0
	3인가구	42.0	58.0	100.0
	4인가구	32.8	67.2	100.0
	5인가구	30.6	69.4	100.0
	6인가구	28.0	72.0	100.0
	7인 이상 가구	14.3	85.7	100.0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특성을 보면, 남성가구주 가구는 저소득 가구가 17.5% 인데 비하여 여성 가구주 가구는 저소득 가구가 46.9%나 되어서 남성가구주 가구의 2.6배정도 저소득 가구 비율이 높았다.

〈표 4-71〉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구주 성별 특성

(단위:%)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합계
남성	17.5	82.5	100.0
여성	46.9	53.1	100.0

결혼상태에 따른 특성을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저소득 가구보다 일반 가구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반면 사별인 경우는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62.1%나 되었으면 이혼도 39.6%로 나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저소득 가구가 되는 비율이 높았다.

〈표 4-72〉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결혼상태

(단위: %)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합계
배우자 있음	16.7%	83.3%	100.0%
사별	62.1%	37.9%	100.0%
이혼	39.6%	60.4%	100.0%
미혼	15.8%	84.2%	100.0%

가구주의 장애상태에 따른 특성을 보면 가구주가 비장애인인 경우 저소득가구가 21.3%이고, 장애인 가구주인 경우 43.1%로 나타나 가구주에게 장애가 있을 때 저소득 가구 비율이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2배 정도 높았다. 장애인 가구주의 장애정도에 따른 특성을 보면 중증장애를 가졌을 경우가 53.0%로 경증장애 40.3%보다 저소득 가구 비율이 높았다.

〈표 4-73〉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구주 장애상태

(단위:%)

구분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합계
장애여부	비장애인	21.3	78.7	100.0
	장애인	43.1	56.9	100.0
장애정도	중증 장애	53.0	47.0	100.0
	경증 장애	40.3	59.7	100.0

가구주의 취업여부에 따른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가구주가 비취업상태일 때 저소득 가구 비율이 60.1%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 가구주의 고용상태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면, 가구주가 상용직 근로자이거나 고용주일 때 저소득가구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자활 및 공공근로 80.0%, 일용직 임금근로자 36.8%, 무급가족종사자 27.3% 순으로 저소득 가구 비율이 높았다.

〈표 4-74〉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구주 경제활동참여상태 특성

(단위:%)

구분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합계
취업여부	비취업	60.1	39.9	100.0
	취업	12.3	87.7	100.0
취업가구주의 고용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9	98.1	100.0
	임시직 임금근로자	13.1	86.9	100.0
	일용직 임금근로자	36.8	63.2	100.0
	자활 및 공공근로	80.0	20.0	100.0
	고용주	4.3	95.7	100.0
	자영업자	19.1	80.9	100.0
	무급가족종사자	27.3	72.7	100.0

3. 가구원 특성비교

이번에는 가구주를 포함하는 가구원의 특성별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일반특성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표 4-75〉 아동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교

(단위: %)

구분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전체	
아동 없는 가구	69.1	(48.0)	30.9	(73.8)	100.0	(53.8)
아동 1명 있는 가구	85.0	(18.3)	15.0	(11.1)	100.0	(16.7)
아동 2명 있는 가구	89.0	(29.2)	11.0	(12.4)	100.0	(25.4)
아동 3명이상있는가구	84.7	(4.4)	15.3	(2.7)	100.0	(4.1)
전체	77.4	(100.0)	22.6	(100.0)	100.0	(100.0)

일반가구의 경우 아동이 없는 가구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이 있는 가구 중에서는 2명 있는 가구 29.2%, 1명 있는 가구 18.3%, 그리고 3명 이상인 가구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소득가구에 있어서는 아동이 없는 가구의 비중이 73.8%로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 중 아동이 있는 가구는 2명, 1명, 3명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소득가구 중 아동이 있는 가구를 다 합쳐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 노인이 없는 가구가 84.1%인 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47.2%에 불과해 일반가구일수록 노인가구원이 속한 가구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이 1명 있는 가구는 일반가구는 12.4%, 저소득가구는 36.0%이고, 노인가구원이 2명, 3명 이상인 경우도 이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저소득가구일수록 노인가구원 가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노인가구원수에 따른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상대적 비율을 살펴보면, 노인이 없는 가구 중에서 일반가구의 비중이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1명 있는 가구, 2명 있는 가구, 그리고 3명 이상 있는 가구의 경우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상대적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6〉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교

(단위: %)

구분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전체	
노인 없는 가구	86.0	(84.1)	14.0	(47.2)	100.0	(75.8)
노인 1명 있는가구	54.1	(12.4)	45.9	(36.0)	100.0	(17.7)
노인 2명 있는가구	41.4	(3.4)	58.6	(16.6)	100.0	(6.4)
노인3명이상 있는가구	52.0	(0.1)	48.0	(0.3)	100.0	(0.1)
전체	77.5	(100.0)	22.5	(100.0)	100.0	(100.0)

일반가구 중에서 근로능력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97.0%, 근로무능력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3.0%로 거의 대부분의 일반가구가 근로능력가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근로능력가구가 64.3%, 근로무능력가구가 35.7%로 근로무능력가구의 상대적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근로능력가구 중에서 일반가구의 비중은 83.8%, 저소득가구의 비중은 16.2%로 나타났으며, 근로무능력가구 중에서 일반가구는 22.3%, 저소득가구는 77.7%로 나타나 근로무능력가구가 저소득가구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7〉 근로무능력가구와 근로능력가구 비교

(단위: %)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전체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근로능력가구	83.8	(97.0)	16.2	(64.3)	100.0	(89.6)
근로무능력가구	22.3	(3.0)	77.7	(35.7)	100.0	(10.4)
전체	77.5	(100.0)	22.6	(100.0)	100.0	(100.0)

일반가구에서는 취업가구원이 없는 가구의 비중은 4.9%에 불과한 반면, 취업가구원이 1명 있는 가구는 53.1%, 2명 있는 가구는 35.4%, 3명 이상 있는 가구는 6.6%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에서는 95%이상이 가구원 중 적어도 1명 이상이 취업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저소득가구에서 취업가구원이 없는 가구의 비중은 48.2%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구에서 취업한 가구원이 1명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취업한 가구원이 없는 가구 중에서 일반가구의 비중은 26.0%에 그치는 반면, 저소득가구의 비중은 7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한 가구원이 적어도 1명 이상 있는 가구의 비중은 일반가구는 약 90% 수준이며, 저소득가구는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8〉 취업가구원수별 비교

(단위: %)

구분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전체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취업가구원 없는가구	26.0	(4.9)	74.0	(48.2)	100.0	(14.7)
취업가구원 1명있는가구	83.0	(53.1)	17.0	(37.5)	100.0	(49.6)
취업가구원 2명있는가구	90.1	(35.4)	9.9	(13.3)	100.0	(30.4)
취업가구원 3명이상있는가구	95.8	(6.6)	4.2	(1.0)	100.0	(5.3)
전체	77.5	(100.0)	22.5	(100.0)	100.0	(100.0)

4.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득 및 지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득원별 구성비는 다음과 같다. 가구 전체 소

득주²¹⁾에서 가구주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가구 80.3%, 일반가구 79.8%로 거의 유사하였다.

〈표 4-79〉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득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전체
가구주 소득비율	80.3	79.8	79.9
가구원 ¹⁾ 소득비율	19.7	20.2	20.1
전체	100.0	100.0	100.0

주: 1) 가구주의 가구원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득원천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가구의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6.7%로 일반가구의 93.9%에 비해 근로소득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가구는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각각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3%, 23.6%로 일반가구의 경우 1.9%, 2.0%인 것에 비해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소득에서 재산소득의 비중은 저소득가구 3.4%로 일반가구의 2.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산소득의 평균액은 저소득가구 1.8만원, 일반가구는 6.4만원으로 절대액수는 일반가구가 높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득원천별 구성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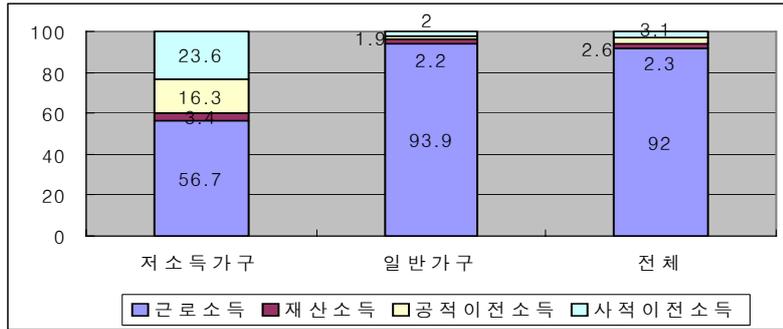
〈표 4-80〉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득원천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전체
근로소득	56.7	93.9	92.0
재산소득	3.4	2.2	2.3
공적이전소득	16.3	1.9	2.6
사적이전소득	23.6	2.0	3.1

주21) 여기서 가구 전체소득은 경상소득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

[그림 4-2]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득원천별 구성비



한편,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출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가구의 총지출^{주22)}은 86.8만원으로 일반가구 227.7만원의 38.1%에 불과하다. 총지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대도시 98.1만원, 중소도시 88.2만원, 농어촌 65.6만원으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총지출도 마찬가지로 대도시 239.7만원, 중소도시 219.9만원, 농어촌 194.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4-81>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역별 총지출

(단위: 만원)

구분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전체
총지출	86.8	227.7	196.0
지역			
대도시	98.1	239.7	211.4
중소도시	88.2	219.9	194.3
농어촌	65.6	194.5	142.5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출비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가구 각 지출비목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장보는 비용, 용돈을 포함한 기타지출, 교통통신비,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순으로 나

주22) 여기서 총지출은 경상지출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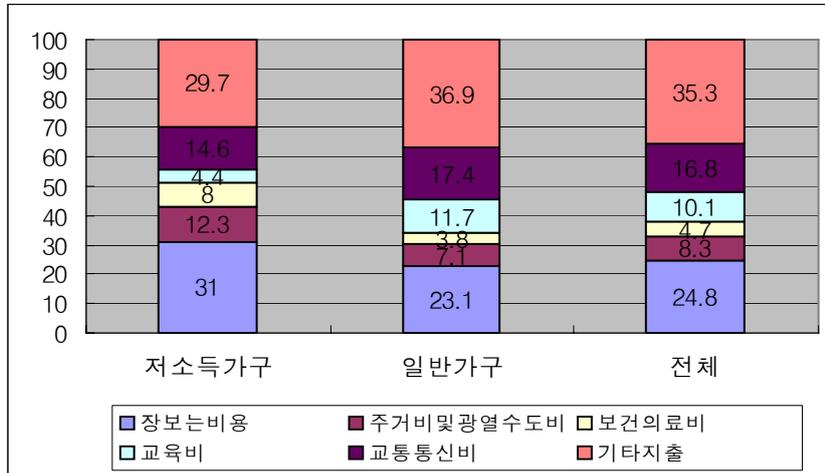
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타지출, 장보는 비용, 교통통신비, 교육비,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높고, 교육비의 비중이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출비목별 구성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3]과 같다.

<표 4-82>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출비목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전체
장보는 비용	31.0	23.1	24.8
주거비및광열수도비	12.3	7.1	8.3
보건의료비	8.0	3.8	4.7
교육비	4.4	11.7	10.1
교통통신비	14.6	17.4	16.8
기타지출	29.7	36.9	35.3
합계	100.0	100.0	100.0

[그림 4-3]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출비목별 구성비



이상의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출비목 구성비를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총지출 대비 교육비의 비중을 보면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13.0%로 아동이 있는 일반가구의 17.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의료비의 경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노인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10.6%로 노인이 있는 일반가구의 경우 6.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도 노인이 있는 가구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비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가구의 경우 8.5%로 일반가구의 6.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주23)}.

〈표 4-83〉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구유형별 지출비목 구성비

(단위: %)

구분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전체
교육비비중	아동있는가구	13.0	17.6	16.9
	아동없는가구	1.1	4.8	3.6
	전체	4.0	13.4	9.5
의료비비중	노인있는가구	10.6	6.7	8.8
	노인없는가구	5.2	3.6	3.9
	장애인이있는가구	8.5	6.3	7.2
	장애인이없는가구	8.1	3.9	4.9
	전체	8.2	4.1	5.1

이상에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득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계수지를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다음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소득가구의 절반이상이 소득이 지출보다 적은 이른바 가계수지 적자인 가구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중 소득이 지출보다 많은 가계수지 흑자인 가구비율은 29.9%이다. 반면에 일반가구의 경우 17.5%만이 가계수지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가계수지 흑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23) 저소득층의 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의료비 비중이 각각 8.5%, 8.1%로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장애인을 등록장애인으로 정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저소득층 등록장애인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저소득층의 비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의료비 비중은 각각 9.2%, 8.1%로 나타났다.

〈표 4-84〉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계수지

(단위: %)

구분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전체
적자: 소득<지출	54.8	17.5	25.9
균형: 소득=지출	15.4	2.2	5.2
흑자: 소득>지출	29.9	80.3	68.9
전체	100.0	100.0	100.0

다음으로 가계수지를 가구주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구주 성별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계수지를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여성가구주가 35.5%로 일반가구의 경우 11.7%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높다. 남성가구주 가구만을 비교할 때, 저소득가구의 경우 60.8%가 가계수지 적자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17.2%와 비교할 때, 적자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도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계수지 적자 가구의 비율이 43.9%로 일반가구의 19.7%에 비해 적자가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85〉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구주 성별 가계수지

(단위: %)

구분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남성가구주	소득<지출	39.2	(60.8)	15.2	(17.2)
	소득=지출	7.9	(12.2)	1.6	(1.8)
	소득>지출	17.4	(27.0)	71.5	(81.0)
	소계	64.5	(100.0)	88.3	(100.0)
여성가구주	소득<지출	15.6	(43.9)	2.3	(19.7)
	소득=지출	7.5	(21.1)	0.6	(5.1)
	소득>지출	12.5	(35.0)	8.8	(75.2)
	소계	35.5	(100.0)	11.7	(100.0)
전체		100.0		100.0	

한편, 가구주 노인여부에 따른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계수지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노인가구주 가구가 45.5%로 일반가구의 경우 6.9%에 비해 노인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높다. 노인가구주 가구만을 비교할 때, 저소득가구의 경우 37.5%가 가계수지 적자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15.9%와 비교할 때, 적자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도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계수지 적자 가구의 비율이 69.3%로 일반가구의 16.4%에 비해 적자가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86〉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노인/비노인 가구주 가구 가계수지
(단위: %)

구분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노인가구주	소득<지출	17.0	(37.5)	1.1	(15.9)
	소득=지출	10.0	(22.0)	0.6	(8.7)
	소득>지출	18.4	(40.5)	5.2	(75.4)
	소계	45.5	(100.0)	6.9	(100.0)
비노인가구주	소득<지출	37.7	(69.3)	16.4	(17.6)
	소득=지출	5.3	(9.7)	1.6	(1.7)
	소득>지출	11.4	(21.0)	75.1	(80.7)
	소계	54.5	(100.0)	93.1	(100.0)
전체		100.0		100.0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계수지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취업가구주 가구가 43.0%로 일반가구의 경우 89.0%에 비해 취업가구주 비율이 낮다. 취업가구주 가구만을 비교할 때, 저소득가구의 경우 59.0%가 가계수지 적자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16.3%와 비교할 때, 적자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비취업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도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계수지 적자 가구의 비율이 51.6%로 일반가구의 27.3%에 비해 적자가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87〉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취업/비취업 가구주 가구 가계수지
(단위: %)

구분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취업가구주	소득<지출	25.3	(59.0)	14.5	(16.3)
	소득=지출	3.2	(7.4)	1.2	(1.3)
	소득>지출	14.4	(33.6)	73.3	(82.4)
	소계	43.0	(100.0)	89.0	(100.0)
비취업가구주	소득<지출	29.5	(51.6)	3.0	(27.3)
	소득=지출	12.2	(21.4)	1.0	(9.1)
	소득>지출	15.4	(27.0)	7.0	(63.6)
	소계	57.0	(100.0)	11.0	(100.0)
전체		100.0		100.0	

다음으로 가구원특성별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계수지를 비교해보았다. 가구원특성은 노인가구원·아동가구원·장애인가구원·취업가구원 유무를 의미한다.

먼저, 다음 표에서는 노인가구원유무에 따른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계수지를 살펴보았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52.2%로 일반가구의 경우 14.1%에 비해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다. 노인이 있는 가구만을 비교할 때, 저소득가구의 경우 40.5%가 가계수지 적자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17.0%와 비교할 때, 적자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노인가구원이 없는 가구의 경우에도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계수지 적자 가구의 비율이 70.0%로 일반가구의 17.5%에 비해 적자가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88〉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노인가구원유무에 따른 가계수지
(단위: %)

구분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노인가구원있음	소득<지출	21.1	(40.5)	2.4	(17.0)
	소득=지출	10.6	(20.3)	0.6	(4.3)
	소득>지출	20.4	(39.2)	11.1	(78.7)
	소계	52.2	(100.0)	14.1	(100.0)
노인가구원없음	소득<지출	33.6	(70.4)	15.0	(17.5)
	소득=지출	4.7	(9.8)	1.6	(1.9)
	소득>지출	9.4	(19.8)	69.2	(80.6)
	소계	47.8	(100.0)	85.9	(100.0)
전체		100.0		100.0	

다음 표에서는 아동가구원유무에 따른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계수지를 살펴보았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아동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26.2%로 일반가구의 경우 52.0%에 비해 아동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낮다. 아동이 있는 가구만을 비교할 때, 저소득가구의 경우 69.8%가 가계수지 적자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16.1%와 비교할 때, 적자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동가구원이 없는 가구의 경우에도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계수지 적자 가구의 비율이 49.4%로 일반가구의 19.0%에 비해 적자가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89〉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아동가구원유무에 따른 가계수지 (단위: %)

구분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아동가구원있음	소득<지출	18.3	(69.8)	8.4	(16.1)
	소득=지출	1.9	(7.3)	0.6	(1.1)
	소득>지출	6.0	(22.9)	43.1	(82.8)
	소계	26.2	(100.0)	52.0	(100.0)
아동가구원없음	소득<지출	36.5	(49.4)	9.1	(19.0)
	소득=지출	13.5	(18.2)	1.7	(3.5)
	소득>지출	23.9	(32.4)	37.2	(77.5)
	소계	73.8	(100.0)	48.0	(100.0)
전체		100.0		100.0	

다음 표에서는 장애인가구원유무에 따른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계수지를 살펴보았다.

〈표 4-90〉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장애인가구원유무에 따른 가계수지 (단위: %)

구분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장애인가구원있음	소득<지출	7.9	(51.2)	1.5	(19.6)
	소득=지출	2.5	(16.2)	0.2	(2.2)
	소득>지출	5.0	(32.6)	5.9	(78.2)
	소계	15.3	(100.0)	7.5	(100.0)
장애인가구원없음	소득<지출	46.9	(55.5)	16.0	(17.3)
	소득=지출	12.9	(15.2)	2.0	(2.2)
	소득>지출	24.9	(29.3)	74.4	(80.5)
	소계	84.7	(100.0)	92.5	(100.0)
전체		100.0		100.0	

저소득가구의 경우 장애인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15.3%로 일반가구의 경우 7.3%에 비해 장애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만을 비교할 때, 저소득가구의 경우 51.2%가 가계수지 적자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19.6%와 비교할 때, 적자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가구원이 없는 가구의 경우에도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계수지 적자 가구의 비율이 55.5%로 일반가구의 17.3%에 비해 적자가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에서는 취업가구원유무에 따른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계수지를 살펴보았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취업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51.8%로 일반가구의 경우 95.1%에 비해 취업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낮다. 취업가구원이 있는 가구만을 비교할 때, 저소득가구의 경우 59.6%가 가계수지 적자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17.0%와 비교할 때, 적자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가구원이 없는 가구의 경우에도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계수지 적자 가구의 비율이 49.7%로 일반가구의 26.5%에 비해 적자가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91〉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취업가구원유무에 따른 가계수지
(단위: %)

구분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취업가구원있음	소득<지출	30.8	(59.6)	16.2	(17.0)
	소득=지출	3.9	(7.5)	1.3	(1.4)
	소득>지출	17.0	(32.9)	77.6	(81.6)
	소계	51.8	(100.0)	95.1	(100.0)
취업가구원없음	소득<지출	23.9	(49.7)	1.3	(26.5)
	소득=지출	11.4	(23.7)	0.9	(18.4)
	소득>지출	12.8	(26.6)	2.7	(55.1)
	소계	48.2	(100.0)	4.9	(100.0)
전체		100.0		100.0	

다음으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여부(주24)를 살펴보았다. 다음 표에 의하면 저소득가구의 15.1%가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

주24) 자산과 부채의 증감은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3개월간(2005년 7월-9월) 가계 자산과 가계 부채의 증감 여부를 묻은 결과로 분석했다. 자산 및 부채의 증감 기간인 지난 3개월은 소득과 지출 질문의 기간과 일치한다.

반가구의 60.6%와 비교해 자산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가구의 29.5%가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11.0%와 비교해 자산이 감소한 가구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채의 증감 여부를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중 부채가 증가한 가구의 비율은 16.4%로 일반가구의 10.8%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부채가 감소한 저소득가구의 비율은 1.9%로 일반가구의 7.8%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92〉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자산 및 부채증감여부

(단위: %)

구분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전체
자산	증가	15.1	60.6	50.3
	변동없음	55.3	28.5	34.5
	감소	29.5	11.0	15.2
부채	증가	16.4	9.1	10.8
	변동없음	81.7	83.0	82.8
	감소	1.9	7.8	6.5

제5장 결론

제1절 본조사 표본추출방안

빈곤패널 본조사의 표본추출방안은 조사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빈곤패널조사의 목적은 빈곤계층의 규모나 단면적인 특성을 주로 파악하는 횡단면자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활실태, 복지욕구의 변화 양태 등 빈곤문제의 동태적인 분석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즉, 빈곤패널은 빈곤층의 빈곤으로의 진입 및 탈출의 원인, 장기빈곤과 단기 빈곤의 차이와 추이 등 개인의 저축, 근로 및 실업 등의 경제행위 및 그 변화를 추적해 가는 종단면(longitudinal)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패널자료는 빈곤과 관련한 기술적(descriptive)인 통계현황은 물론, 관련 변수간의 인과관계 등을 파악 가능하게 됨으로써 빈곤정책의 수립 및 정책의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빈곤패널의 표본은 첫째 빈곤계층의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고, 둘째 이러한 빈곤계층의 실태를 비교할 수 있는 준거집단이 필요할 것이다. 즉, 빈곤패널표본은 대표성(representativeness)과 충분성(sufficiency)이라는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요소는 표본규모를 충분히 크게 잡는다면 모두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패널조사는 조사비용이 횡단면조사에 비해 매우 많이 드는 관계로, 한정된 조사비용에 의해 발생하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즉, 조사비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익년도에는 약 4000가구를 목표로 빈곤패널 표본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제한적인 규모의 표본을 표집하는 경우에는 표본의 대표성과 충분성 요소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여야 한다.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우리나라의 빈곤계층을 규모를 고려하여 4000가구 전부를 중위소득이하 집단에서 추출하는 방법, 둘째, 4000가구를 소득계층 구성비에 비례하여 뽑는 방법, 그리고 셋째, 이들 두 방법을 절충하여 저

소득계층을 과대 표집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표본추출방법은 표본에 빈곤층을 포함한 저소득계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빈곤층의 실태를 파악 하는 데는 유리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중위소득 이상의 가구가 표본에서 제외됨으로써 기존의 노동패널이나 자활패널의 경우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집단의 모수(parameters)를 추정할 수 없고, 빈곤층의 생활양태, 복지욕구 및 경제행위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준거집단이 없는 단점이 있다.

한편 두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전국민을 모집단으로 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빈곤가구의 표본 수는 713가구에 불과하여 빈곤층의 심층적인 실태분석을 위한 표본규모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또한 향후 발생할 패널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인 표본의 이탈률(attrition rate)을 고려하면 더욱 충분하지 못하다.(표 5-1 참조)

<표 5-1>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수준별 본조사 표본수

소득수준	기초조사 가구수	비율	본조사 표본수
소득<100%	3165	17.8%	713
100%<소득<120%	767	4.3%	173
120%<소득<150%	2436	13.7%	549
150%<소득<180%	1516	8.5%	341
180%<소득	9884	55.6%	2225
계	17768	100.0%	4000

따라서 빈곤패널의 조사목적을 살리고, 표본의 대표성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 하는 추출방법이 첫 번째 와 두 번째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조사비용예산의 제약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을 1,500가구, 최저생계비의 100%~180%까지의 소득계층을 1,000가구, 최저생계비의 180% 이상의 소득계층

을 1,500가구로 구성하는 추출방법이다. 이 경우 빈곤패널에 참여를 거부할 것을 고려하여 각 소득계층별 대상가구수의 1.3배를 접촉가구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고려한 접촉대상 가구 수는 아래 <표 5-2>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각 소득층의 접촉대상가구수를 가용 가능한 기초조사 가구 수와 비교하여 보면 절대빈곤층의 경우 기초조사 가용가구수가 본조사 표본수의 2.1배로 비교적 충분하다. 물론 이와 같이 빈곤층을 과대 표집하는 경우에는 각 층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모수를 추정해야 할 것이며, 가중치의 산출과정이 다소 복잡해지는 점은 감내해야 할 것이다.

<표 5-2>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수준별 본 조사 표본수 및 접촉대상 가구수

소득수준	본조사 표본수	기초조사 가구수	접촉대상 가구수
소득≤100%	1,500	3,165	1,950
100%<소득≤180%	1,000	3,952	1,300
180%<소득	1,500	10,651	1,950
계	4,000	17,768	5,200

제2절 본조사의 패널 관리방안^{주25)}

패널조사가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장기간 표본의 대표성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대상 표본의 탈락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회수가 늘어날수록 표본탈락률이 증가 하게 되면 조사의 지속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패널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우패널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패널의 탈락에 의하여 표본이 점점 대표성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패널조사에서는 철저한 표본관리와 아울러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주25) 본 절은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 데이터 구축방안(2004)」에서 채구성함.

1. 추적조사

먼저 추적조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다.

- 조사대상자가 이사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지역을 이동할 경우에는 추적조사 한다.
- 한번 표본으로 설정된 조사 대상가구는 이혼, 별거, 가구원의 독립 등의 변화가 있어도 계속적으로 가구원들을 추적조사 한다. 다만 이혼 또는 별거 후 재혼하거나 타인과의 동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추적조사 하지 않는다.
- 가구의 이사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친지, 이웃 등 가장 가까운 가구나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두어 응답자 관리의 부차적인 접촉방법으로 강구한다. 패널 응답가구와 적어도 1년에 1번 이상은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이사계획이나 이사 예정시기, 취업 후 이동한 지역 등을 철저히 파악한다. 행정 전산망, 사회보장관련기관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가구의 주거지를 체크한다. 패널대상이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주거지 정보를 조사주관기관에 제공할 때는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
- 추적조사 대상은 이전 조사에 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응답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조사에서의 응답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외국(미국, 영국, 독일 등)의 경우 대개 후자의 경우를 택하고 있고, 패널의 대표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후자의 추적원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2. 응답자 관리

패널조사는 표본탈락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표본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국내외의 패널조사의 응답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 할 수 있다.

-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조사에 대

한 사전예고 우편물을 발송한다.

- 조사를 약속한 응답자가 약속을 어길 경우 ‘또 찾아 뵙겠습니다’ 카드를 남겨 후속 약속을 잡도록 한다.
- 응답거절자에 대하여 설득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발송하여 응답률을 높인다.
- 조사 직후 조사대가 및 감사의 현물 또는 선물을 제공한다.
- 설문에 응해준 것에 대한 감사편지를 발송하여 지속적인 패널조사대상자로서의 동기부여를 한다.
- 정기적인 뉴스레터(on-line 또는 off-line) 및 조사결과로 나온 간행물을 발송하여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생일카드 등 조사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 현장실사를 담당하는 조사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철저한 감독과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정확한 패널조사를 유지하도록 한다.
- 면접원 관리와 배치를 효과적으로 하여 조사대상자간의 유대관계를 확보하고 유지한다.

이 중 마지막 두 가지는 조사의 장기지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설문조사 문화상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전문기관과 주관기관, 이들 기관과 조사원간의 장기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은 필요하다.

또한 조사성공률을 제고하고 조사질문에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금전적(현금, 선물 및 상품권) 보상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외 패널조사의 경우 대부분 금전적 보상을 표본응답자 관리의 핵심적인 유인장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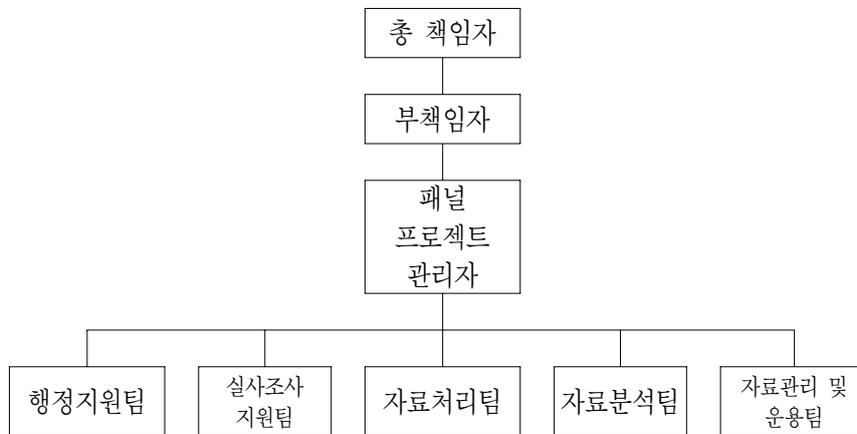
조사대상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응답자 관리방안은 예비조사 시 최종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응

답자의 욕구(보상수준 및 방법)를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최적의 조사유인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조사원들에게도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3. 관리조직

이상과 같은 패널자료의 수집과 분석·관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조직이 필요하다. 즉, 행정적 지원과, 실제적인 현장에서 자료수집, 수집된 자료의 처리, 자료 분석, 지속적인 자료의 관리를 맡는 전문적인 팀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며, 아래 그림과 같은 운용조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5-1] 차상위 및 빈곤 패널의 운영조직표(안)



참고문헌

- 강석훈, 『패널조사 설계시의 이슈들』, 2002.
- 금재호, 『캐나다 고용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1998.
- 금재호, 『패널조사의 응답자 관리』. 한국노동연구원, 1997.
- 김정언, 정현준, 「IT 산업 양극화 현황과 정책방향」, 『KISDI 이슈리포트』,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 노동패널 Website, <http://www.kli.re.kr>
- 민승규, 이갑수, 김근영, 손민중,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CEO Information』, 547호, 삼성경제연구소, mimeo.
- 박찬용·강석훈·김태완, 『소득분배와 빈곤동향 및 변화요인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박천수의, 「고용구조 및 청년패널의 조사설계」, 노동부 Website.
- 백화중 외,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 데이터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각 연도.
- 서중해, 「혁신을 통한 생산력 향상—경쟁력 도전에 대한 한국의 대응」, 『동북아 경제의 산업 역동성과 경쟁력』, 국제회의 발표자료, KDI, 2004.
- 신동균, 『미국 패널데이터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1998. 4.
- _____, 「소득분포의 양극화: 개념과 실태」, 『노동리뷰』, Vol. 13, 한국노동연구원, mimeo.
- 이용하, 『국민연금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
- 이정우, 이성림, 「외환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외환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국제경제연구』, 제7권(2), 2001.
- 이현주 외,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전병유, 김혜원, 신동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채창균 외, 한국교육고용 패널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2.
- 최희갑, 「외환위기와 소득분배의 양극화」, 『국제경제연구』, 제8권(2), 2002.
- Greg J. Duncan, *Panel Studies of Poverty: prospects and Problems*, Survey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 1989.
- John P. Haisken-DeNew and Joachim R. Frick (Eds.), *Desktop Companion to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SOEP)*, DIW Berlin, 2003.
- Joachim R. Frick, “Introduction to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SOEP)”, Jürgen Schupp, *20 Years of Household Panel Data for Germany: The SOEP survey and organization between continuity and innovation*, DIW-Berlin, 2004.
- Martin Spiess. and Martin Kroh, *DIW Materialien Research Notes: Documentation of Sample Sizes and Panel Attrition in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GSOEP) (1984 until 2003)*, 2004. 7.
- NOP, *Living in britain, Living in scotland, Living in wales wave 13 mainstage booking in, editing & coding instructions*, 2003. 9.
- Peter Gottschalk, Patricia Ruggles, *Using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to Study Poverty and Welfare Dynamics*, Paper Commissioned by the PSID, 1994.
- DIW-Berlin, 2004. 6 (<http://www.diw.de/gsoep>)
- BHPS Website, <http://www.iser.essex.ac.uk/ulsc/bhps>
- HILDA Website, <http://www.melbourneinstitute.com/hilda>
- PSID Website, <http://psidonline.isr.umich.edu>
- SLID Website, <http://www.statcan.ca/english/survey/household/dynamic/income.htm>

정부승인통계
마크
승인번호
제 05017
호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가구경제 기초조사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조사표번호 (후기제)

주소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 _____ 통·리 _____ 번지 _____ 호 (_____ 아파트 _____ 동 _____ 호)
----	---

1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미완(사유: _____)	방문자 성명	
2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미완(사유: _____)	방문자 성명	
최종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미완(사유: _____)	방문자 성명	
조사표 완료 소요시간		총 _____ 분	총방문횟수		_____ 회

가구주 성명	응답자 성명	전 화 번 호	주택 ()	해당가구원 성명
	응답자 가구원번호		핸드폰	
	호		이메일	

지도원 확인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미완(사유: _____)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	--	-----------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가구일반사항

※ 2005. 9. 30 현재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원 대상(생계만 함께 하는 주소득원 포함)

가구원수		명
------	--	---

가구원 번호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동거여부	결혼 여부	장애등급	경제활동 참여상태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손자녀의 배우자 ⑨ 조부모 ⑩ 배우자의 조부모 ⑪ 형제자매 ⑫ 배우자의 형제·자매 ⑬ 형제·자매의 배우자 ⑭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⑮ 기타친인척 ※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① 남 ② 여	실제 만나이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비해당 (남17세 이하, 여15세 이하)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미혼모 포함) (남18세 이상, 여16세 이상)	① 비해당 (비장애인) ② 1급 ③ 2급 ④ 3급 ⑤ 4급 ⑥ 5급 ⑦ 비등록 장애인	2005.9.30 현재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①비해당(14세이하포함) ②상용직 임금근로자 ③임시직 임금근로자 ④일용직 임금근로자 ⑤자활 및 공공근로 ⑥고용주 ⑦자영업자 ⑧무급가족종사자 ⑨실업자(지난4주동안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 ⑩ 비경제활동인구
1		0 1						
2								
3								
4								
5								
6								
7								
8								
9								

기초보장수급여부	
① 수급 ② 비수급	

주거점유형태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 ⑤ 무상거주 ⑥ 기타()	

II. 생활비 ※사업용도의 지출 및 일회성 지출(주택구입자금, 애경사비 등)은 제외

			실 제 지 출 금 액			
1	총 생활비	지난 3개월(2005.7.~9.)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총 생활비(지출)는?	월 단 위			만 원
2	장 보 는 비 용	지난 3개월(2005.7.~9.) 동안 월평균(일주일평균×4) 장보는 데 지출한 비용은? (학교급식비 포함)	월 단 위			만 원
3	주 및 광 열 거 수 도 비	지난 3개월(2005.7.~9.)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월세,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연료비 포함)는? ※ 자가구입비, 전세보증금, 일회성 수리비(도배비) 제외	월 단 위			만 원
4	보 건 의 료 비	지난 3개월(2005.7.~9.)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건강보조식품 포함)	월 단 위			만 원
5	교 육 비	지난 3개월(2005.7.~9.)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교육비는? (보육비 포함)	월 단 위			만 원
6	교 통 · 통 신 비	지난 3개월(2005.7.~9.)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교통·통신비는? (차량보험료, 자동차할부금 낸 것 포함) ※ 자동차세 제외	월 단 위			만 원
7	기 타 지 출	지난 3개월(2005.7.~9.) 동안 가구원들이 사용한 용돈을 포함한 기타지출의 월평균액은? (이자지출, 보장성 보험료 포함)	월 단 위			만 원
8	세 금	지난 1년(2004.10~2005.9.) 동안 지출하신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월평균액은?	월 단 위			만 원

III. 자산 및 부채 변동

			① 증가했다 ② 변동없다 ③ 감소했다	연간 변동금액 (※변동없는 경우 '0')		
1	자 산 증 가(감소)	지난 3개월간(2005.7~2005.9) 자산(부동산, 저축, 개인연금, 교육보험 등) 변동은? ※ 부동산 취득(상실)만 포함. 시세변동으로 인한 증감액은 제외, 사업자산 제외		금 액		만 원
	부 채 증 가(감소)	지난 3개월간(2005.7~2005.9) 부채 변동은? ※ 가계부채만 포함, 사업부채 제외		금 액		만 원

IV. 주거환경 및 이사계획

1	주 거 환 경	귀하가 사시는 집 근처에 밤중에 무서워서 혼자 걸을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이 웃	귀하가 사시는 집 근처에서 살고 있는 이웃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항상 신뢰할 수 있다 ②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③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 ④ 항상 조심해야 한다 ⑤ 모르겠다.				
3	이 사 계 획 여 부	앞으로(2005.9.30기준) 6개월(2006.3.31) 이내 이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예(1-1번으로) ② 아니오(다음페이지로)				
1-1	이 사 시 기	이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년		월
1-2	이 사 지 역	이사지역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V. 소득1

※ 지난 3개월간(2005.7.~9.) 총액 + 3 한 금액 기록. 없음은 0으로 표시

가구원 번호	경제활동 참여상태변화	상용직·임시직 임금근로자 소득		사회보험급여	개인연금 급여	기초보장 급여	기타 정부보조금	민간보조금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지난 3개월간 (2005.7.~9.) 경제활동상태가 변화 했다 면 2005.9.30 현재 기준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①비해당 (변동하지 않음. 14세이하) ②상용직임금근로자 ③임시직임금근로자 ④자활및공공근로 ⑤고용주 ⑥자영업자 ⑦무급가족종사자 ⑧실업자(지난4주동안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 ⑨ 비경제활동인구 참여 상태1 참여 상태2	지난 3개월간 (2005.7.~9.) 상용직 근로소득 월평균액은? ※ 근로소득은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특정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댓가로 받은 보수를 말함. ※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한 금액. ※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	지난 3개월간 (2005.7.~9.) 상용직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의 월평균액은? ※ 상용직임시직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합계액을 말함. ※ 원천징수되는 경우 직장인 중식비 포함.	지난 3개월간 (2005.7.~9.) 사회보험급여의 월평균액은? ※ 국민연금,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보훈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애연금, 유족급여), 보훈연금(국가유공상이자) 급여의 월평균액	지난 3개월간 (2005.7.~9.) 개인연금급여의 월평균액은?	지난 3개월간 (2005.7.~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급여 월평균액은?	지난 3개월간 (2005.7.~9.) 기타 정부보조금(현금)의 월평균액은?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경로연금, 소년소녀가장부가급여, 가정위탁금, 국가유공자 보조금, 노인교통비 등 정부보조금(현금) 월평균액	지난 3개월간 (2005.7.~9.) 부모나 자녀, 친척,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 등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일회성 아닌) 받은 현금 월평균액은?	
1			만원		만원		만원		만원
2			만원		만원		만원		만원
3			만원		만원		만원		만원
4			만원		만원		만원		만원
5			만원		만원		만원		만원
6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			만원		만원		만원		만원
8			만원		만원		만원		만원
9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농림축산어업 소득 보조질문란

[보조질문란1] 지난1년간(2004.10.~2005.9) 총수확량, 판매량, 자가소비량, 판매단가 및 판매수입

- ※ 가구원 1인 이상이 농림축산어업경영주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가구전체의 연간판매수입과 자가소비액을 가구주(혹은 주활동자)란에 기입함.
- ※ 보조기입란 순서대로 기입한 후 판매수입과 자가소비액을 계산한다.
- ※ 자가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임차료, 임금 등으로 준 경우도 판매수입에 포함하여 기록한다.
- ※ 판매수입 = 판매량 × 판매단가, 자가소비액 = 자가소비량 × 판매단가
- ※ 축산업에서 총 수확량은 가족의 총보유량임.

구분	계절	종류	총 수확량	판매량	자가소비량	판매단가(천원)	판매수입(만원)	자가소비액(만원)
농림업	농농사							
	밭작물							
축산업								
어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수산가공업							
총계								

※ 농림물의 종류

- 미 곡 : 메벼, 멥쌀, 찰벼, 찹쌀
- 곡 류 : 미곡을 제외한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
- 채 소 : 무, 배추 등
- 과 실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자두, 귤 등
- 특 용 작물 : 참깨, 들깨, 섬유작물, 인삼, 담배, 버섯, 기타약용작물 등
- 기타농작물 : 화훼, 뽕잎, 과수묘, 뽕묘, 조립용 묘목 등
- 임 산 물 : 밤, 잣, 호도, 도토리, 장작 등

※ 축산물의 종류: 소, 젓소, 우유, 돼지, 닭, 달걀, 개, 젓산양, 염소, 사슴, 토끼, 오리, 꿀벌, 기타 가축(면양 등)

※ 어로어업 : 어선, 어구, 어망 등을 사용하여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

※ 양식어업 : 어류, 갑각류, 패류, 해조류, 기타 수산동물을 기르는 어업

[보조질문란2] 지난1년간(2004.10.~2005.9) 농·임·수산물 생산, 가축사육에 소요된 지출의 세부항목												
※ 농림축산어업경영주인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어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기입함.												
※ 양식어장 사용료는 기타임차료에 포함됨.												
지출항목		연간총지출금액				지출항목		연간총지출금액				
농림축 산업	농 지 임 차 료	연간				만원	운 송 비	연간				만원
	농업장비임차료	연간				만원	저 장 비	연간				만원
	인 권 비	연간				만원	가 축 구 입 비	연간				만원
	종 자 구 입 비	연간				만원	사 료 비	연간				만원
	비료 및 농약구입비	연간				만원	영농·축산 시설비	연간				만원
	영 농 광 열 비	연간				만원	기 타	연간				만원
어업	선박임차료	연간				만원	시 설 비	연간				만원
	선박유지비	연간				만원	인 권 비	연간				만원
	기타임차료	연간				만원	기타경비	연간				만원
							총계	연간				만원

※ 영농광열비는 벼·고추 등 농작물 말리기, 비닐하우스 조명 및 난방 등.

연구보고서 2005-27

차상위·빈곤층 패널조사 연구
A panel study on the near-poor and the poor

발행일	2005년 12월 일	값 6,000원
저 자	백 화 종 외	
발행인	김 용 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동원문화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ISBN 89-8187-374-7 93330